

# 한국민족주의 연구

1994. 12

조민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HO

OF

본 연구는 한국민족의 개념 및 형성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남북한주민의 민족적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를 추론하였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한국민족주의의 정립방향을 우리사회 내부의 성격과 구성논리를 통해 고찰하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와해는 한반도에서 체제대결의 논리 대신에 민족의식과 민족주의 논리를 부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남북한간 이념과 체제논리를 지양하고 민족논리가 들어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분단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외재적 논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으며,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민족내부의 문제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정치적 공백을 민족주의에 의한 대안적 모색으로 빈칸을 채울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민족주의의 공간을 확대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세계화의 추세는 한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오히려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남북한의 대결과 갈등상태에서 민족주의 이념의 유용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남한의 반공·반북주의와 북한의 주체형 사회주

의의 양극단을 해소하고 '계급에 앞선 민족'을 확인한 바탕 위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우리 민족은 민족의 생활영역과 국가의 제도적 공간이 일치해야 된다는 본능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다. 민족문제의 미해결과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서 민족문제의 의미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실천의 과제로서 민족주의의 문제는 항상 방기되었다. 우리에게 있어 민족은 종족적 단일성의 신화 속에서 '상상된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분단상태의 민족은 그러한 추상적인 관념만으로 민족적 결속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남북한을 마땅히 하나로 묶는 한국의 민족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두 국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민족임을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민족주의는 세 차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 한국민족주의는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이념적 자원으로 중시될 수 있다. 최근 '누가 우리인가?'라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가, 민족의 성원 내에서 동일한 이해기반이 존재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의 논리와 윤리를 시급히 회복해야 할 단계라고 여겨진다. 둘째, 국제화·세계화와 관련하여, 경제적 차원에서 민족경제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와 함께 공동체 내부구성의 형태와 논리를 점검해야 한다. 세

제,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민족주의의 정립방향을 모색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된다.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의 실천적 과제라면, 세계화 과정 속에서 문화적 正體性을 발견하고 재확립하는 노력을 통해 민족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共屬意識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한국민족의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지표 등을 기준으로 한국민족을 정의하면, 한국민족은 “혈연(또는 혈연의식)·언어·지역·문화 및 자의식의 공동체로서 단일국가를 구성하려는 지향성을 지닌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개념과 민족형성론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현재의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민’으로 나뉘어진 缺損國家(a broken state)로 규정하였다. 남북한 두 국가의 서로 다른 정치행태와 다양한 현상적 차별성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민족의 분리의식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단일민족의식을 회복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를 일차적으로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정치적 원리로 규정한다면, 한국민족주의는 한민족의 자주적 근대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치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민족주의는 서구민족주의와 발생사적·존재론적 차원을 달리한다. 해방을 전후하여, 분단시대 전단계의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는 민족보존 및 민족해방의 이념과 실천 속에서 발견된다. 분단시대 민족주의의 과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지향한 민족통일 이념과의 관련 속에서 전개되었다.

한국민족주의는 평화통일 및 「민족공동체」 형성의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이 상호 대립적인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제내부의 개혁작업을 선행하여 구조적 상용성을 확보한 바탕 위에서, 상호 분열성을 완화하고 민족적 통합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하다.

세계화는 우리의 경우 선택대상이 아니다.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구호와 함께 성장과 경제지상주의의 신화에 매몰되어 형평성, 복지, 환경, 인권 등 민주주의 원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강자의 논리가 정당화되고 약자가 배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한국민족주의는 개개인의 '수평적 동료의식' 속에서 결집될 때, 비로소 참된 공동체 형성을 통한 한국민족주의의 방향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민주화를 통해 우리사회 성원 모두의 높은 수준의 물질적 형평성과 기회균등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사회 내부의 변화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류애와 더불어 여러 민족국가와 공생할 수 있는 바탕을 넓혀 나가는 한편, 국경을 넘어 다민족 시민사회의 존재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目 次

제 I 장 서 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방법 .....	6
제 II 장 민족이론 및 한국민족 형성론 .....	9
1. 민족이론의 검토 .....	9
가. 민족개념 : 객관주의 및 주관주의 .....	9
나. 민족형성론 .....	14
다. <i>ethnie</i> 및 nation .....	30
2. 한국민족의 개념 및 한국민족의 형성 .....	36
가. 한국민족의 개념 .....	36
나. 한국민족의 형성 .....	43
제 III 장 한국민족주의의 접근방법 및 전개과정 .....	55
1. 한국민족주의의 접근방법 .....	55
2. 前期的 단계의 민족주의 .....	61
가. 원초적 민족주의 .....	61
나. 저항적 민족주의 .....	67
다. 민중적 민족주의 .....	75
라. 민족국가 건설론 .....	82
3. 분단시대 민족주의 .....	86
가. 신민족주의 .....	86

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	94
다. 민족민주운동과 민중민족주의 .....	108
제 IV 장 한국민족주의의 성격 및 과제 .....	115
1. 한국민족주의 성격 .....	115
가. 문화민족주의 및 공동체적 결속력 .....	116
나. 반외세의 논리와 한계 .....	121
2.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	125
가. 평화통일의 이념 및 「민족공동체」 .....	125
나. 자유와 민주주의 .....	128
다. 통일민족주의와 「책임공동체」 .....	130
제 V 장 세계화와 한국민족주의 .....	135
1. 세계화와 민족국가 .....	135
가. 세계화의 개념과 본질 .....	135
나. 세계화와 대응논리 .....	139
2. 세계화와 한국민족주의 정립방향 .....	146
가. 문화민족주의 .....	146
나. 공동체의식과 ‘열린 민족주의’ .....	154
제 VI 장 결    론 .....	160
참 고 문 헌 .....	167

## 제 I 장 서 론

### 1. 문제제기

서구 계몽주의의 유산인 근대성은 ‘역사적 사회주의’의 기억과 함께 해체과정에 놓여 있다. 인류의 역사는 군집생활을 시작한 이래 인간집단의 결속단위의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를 내다보는 문턱에서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공동체의 내적 관계를 규제하고 작동시키는 힘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고전적인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정한 영토적 범위 내에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위구조를 지닌 국가의 등장은 유럽사회에서는 지극히 근대적인 현상이었다. 민족은, 그 실체를 포착하기가 지난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라고 지칭되는 것은 근대국가라는 동일한 실체의 양면이다. 국민국가가 대개 절대주의시대의 군주-귀족중심의 국가로부터 부르조아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국가의 대외적 관계의 측면을 말할 때 민족국가라고 부른다.

이러한 민족국가는 최근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민족국가는 위로는 초국가질서의 구축에 의해, 아래로는 지방화와 인종주

의, 다양한 분리주의운동에 의한 이중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근대적인 주권국가의 형성이 처음으로 나타난 서유럽지역에서 국가주권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근대 이래 2~3세기 동안 인간의 삶을 규제해온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 초국가적 제도와 기구 및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변화된 세계를 바라볼 수 없다는 논리가 팽배하고 있다.

탈근대화론자는 민족 이후의 시대를 기다린다. 민족국가의 배타성은 自助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정치의 구심력을 억제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협해 왔다는 것이다. 탈근대의 혁명적 전환기에 근대의 산물인 국가가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고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리라는 약속은 앞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족국가의 한계를 강조한다.<sup>1)</sup>

그러나 국가와 비국가적인 세력들, 행위자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정치사상은 전적으로 새로운 정치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타나고 있다.<sup>2)</sup> 이런 점에서 민족국가와 민족주의, 영토적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주권의 수립·회복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은 좀처럼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1) Mark Hoffman, "Restructuring, Reconstruction, Reinscription, Rearticulation: Four Voices in Critical International Theory," *Millennium*, vol. 21, no. 3 (Winter 1992), pp. 407~410.

2)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London: Macmillan, 1977), pp. 278~280.

한다.<sup>3)</sup>

한편 국가의 쇠퇴와 달리 민족의 부활을 주장하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냉전종식으로 인해 소련과 유고와 같은 다민족국가들을 묶어주던 유대가 느슨해지고 스코틀랜드, 스페인, 인도, 캐나다 등 여러 지역에서 활발한 분리주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가는 지는 해라면 민족은 떠오르는 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민족주의 내지 국민국가주의라기 보다는 종족주의의 표현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정치적 국제주의에 의해 촉발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 통합력으로서 국민국가주의의 생존능력의 쇠퇴현상을 반영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와해는 한반도에서 체제대결의 논리 대신에 민족의식과 민족주의 논리를 부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남북한간 이념과 체제논리를 지양하고 민족논리가 들어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분단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외재적 논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으며,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민족내부의 문제로 될 수 있는

3) David Held, "Democracy, the nation-state and the global system," in *Economy and Society*, vol. 20, no. 2. (May 1991), 정일준 역, "민주주의, 민족국가 그리고 지구촌," 한상진 편저,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1).

4) David Binder & Barbara Crossette는 "As Ethnic Wars Multiply, U.S. Strives for a Policy" 라는 기고문에서 48개의 종족전쟁을 열거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1993년 2월 7일자).

객관적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정치적 공백을 민족주의에 의한 대안적 모색으로 빈칸을 채울 수는 없지만, 냉전체제의 와해로 인해 분명 민족주의의 공간이 확대된 것만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세계화의 추세는 한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오히려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민족주의는 남과 북에서 다같이 분단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식틀의 발견이 요망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된다. 남북한의 대결과 갈등상태에서 민족주의 이념의 유용성을 찾는다면, 한국민족주의는 남한의 반공·반북주의와 북한의 주체형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해소하고 '계급에 앞선 민족'을 확인한 바탕 위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데에 있다.

우리 민족은 민족의 생활영역과 국가의 제도적 공간이 일치해야 된다는 본능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다. 민족문제의 미해결과 또한 모든 사회생활에서 민족문제가 지닌 의미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실천의 과제로서 민족주의의 문제는 항상 방기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 민족은 종족적 단일성의 신화 속에서 '상상된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분단상태의 민족은 그러한 추상적인 관념만으로 민족적 결속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남북한을 마땅히 하나로 묶는 한국의 민족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두 국가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민족임을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접근에 앞서 한국의 민족문제를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민족주의는 세 차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한국민족주의는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한 이념적 자원으로 중시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더 우기 최근에 ‘누가 우리인가?’라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중적 정체성이 논의되면서 국가, 민족의 성원 내에서 동일한 이해기반이 존재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의 논리와 윤리를 시급히 회복해야 할 단계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한국민족주의 연구의 두번째 의의는 국제화·세계화와 관련하여, 경제적 차원에서 민족경제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와 함께 공동체 내부구성의 형태와 논리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 세번째는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민족주의의 정립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의 실천적 과제라면, 세계화 과정 속에서 문화적 正體性을 발견하고 재확립하는 노력을 통해 민족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共屬意識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의를 강조하고 싶다.

5) Robert B. Reich, *The Work of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91), pp. 301~315.

## 2. 연구방법

민족주의는 민족운동의 이념적 표현이다. 그러나 민족과 민족주의는 발생사적인 성격을 달리한다. 민족주의는 분명 근대의 산물이지만, 민족은 지역과 개별 민족 단위에 따라 형성과 발생의 시기가 다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에 앞서 민족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민족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민족이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제Ⅱ장에서는 민족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민족을 다양한 징표에 따라 구분되는 인간집단의 객관적 속성을 중시하는 객관주의적 입장과, 이와 달리 특정 집단에의 공속의식을 강조한 주관주의적 입장을 대조하였다. 그리고 비교사적 맥락에서 서구사회의 민족의 기원 및 형성문제에 대해 근대주의와 영속주의로 구분되는 대립적 논의를 살펴보고, 양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을 모색했다.

민족의 기원 및 형성문제를 검토한 까닭은 오늘날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민족'으로서의 규정성을 획득하게 된 시기와 관련하여 한민족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한민족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방법론적으로는 남북한 주민이 동일한 하나의 민족임을 전제한 연역적 방법을 통해, 민족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가설을 선택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민족의 기원 및 형성과정에 관한 남북한 학계의 인식의 공유를 확인했다. 그 결과 남북한 주민이 공통적으로 지닌 요소를 민족의 본질적 측면이라 한다면, 차별적인 측면은 현실의 남북한 주민의 존재양태에 불과함을 밝혔다.

제Ⅲ장에서는 한국민족주의의 접근방법으로 그것은 서구민족주의와는 발생사적·존재론적 기반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비유럽지역의 민족주의의 일반적 유형의 검토를 통해 한국민족주의의 선택적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해방을 전후한 두 단계로 구분하고 매 단계의 각 계기마다 특징적인 유형화를 시도했다.

제Ⅳ장에서는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을 그것의 전개과정을 통해 귀납적인 형태로 도출하고자 했으며, 앞으로의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를 평화통일의 이념과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한 민족주의는 오히려 분열적인 논리가 될 우려가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남북한 관계에서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학문,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 남한의 주도적인 역할이 관철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우리사회의 민족주의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한국민족주의의 방향정립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세계화와 민족국가의 장

래와 관련하여 세계화가 일정한 영토에 기반한 민족국가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탈근대적 현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세계화의 개념과 본질을 문제삼았다. 그리고 한국민족주의의 정립방향을 두 축에서 접근했다. 하나는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공통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문화적 正體性의 확립을 통해 自我同一性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우리사회가 참된 공동체로 결속될 수 있도록 '수평적 동료의식'에 토대를 둔 공동체 형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한국민족주의는 민주주의와 깊은 상관성을 지닐 때,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을 위한 이념적 기반이 되며 나아가 세계를 향한 '열린 민족주의'의 지평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했다.

## 제II장 민족이론 및 한국민족 형성론

### 1. 민족이론의 검토

#### 가. 민족개념: 객관주의 및 주관주의

민족문제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상에는 현재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한다. 각 민족은 개별민족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민족은 근대정치사에 중심적인 영향을 미친 인간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민족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의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민족개념의 모호성과 다양성은 민족문제를 둘러싼 인류의 역사적 체험의 다양함과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다.

민족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이해도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의해 접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민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민족으로 부를 수 있는 특정한 인간집단이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었는가라는 민족의 기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족개념은 민족의 기원에 대한 연구의 귀납적인 형태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1)</sup>

1) 민족의 기원(origin)에 대한 논의는 근대를 전후하여 전근대의 종족집단

민족에 대한 이해는 민족주의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전되었다. 민족주의 연구에 대해 선구적 업적을 남긴 C. 헤이스, H. 콘 등을 비롯한 역사가들은 민족주의 연구의 출발점으로 민족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규정을 제시하였다. 이들 역사가들은 민족을 진화론적으로 사고하였다. 인간집단이 가족, 씨족, 부족으로 발전해온 것과 같이, 민족을 인간집단의 발전의 최종적 형태인 세계공동체가 형성되기 바로 전 단계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민족은 인간사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 삶의 토양에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를 만드는 집단으로 보았다.

C. 헤이스는 한 민족은 자연지리나 생물학적인 인종에서 보다 문화와 역사의 힘에서 그 특징과 성격 및 개성을 얻게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힘 중에서 으뜸가는 것으로 언어를 꼽았으며, 언어와 함께 중요한 요인으로 역사적 전통 - 종교적, 영토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예술적 및 지적 전통 등을 포함한 - 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민족을 동일언어를 사용하고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는 인민의 문화적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헤이스는 민족주의를 애국심과 민족의식과의 융합체로 정의하면서 애국심은 장소, 인간, 이념 및 관습에 대한 충성이 결합된 상태로 과거에는 향토와 정치지도자 또는 도시국가와

---

과 연관성을 갖거나 혹은 전혀 새로운 현상으로 주장되는 '민족'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비해 '민족형성'(nation-building)이론은 주로 서구의 근대국가론이나 제3세계의 근대화론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제국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났으나, 애국심의 대상이 민족국가로 향할 때 비로소 민족주의가 생겨난다고 한다. 즉, 민족과 애국심이 결합되어 민족국가에의 충성을 다른 대상에의 충성보다 우위에 놓게될 때 민족주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집단 즉, 특정 민족이 동일언어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찬양할 때 그 결과는 문화적 민족주의로 된다.

그러나 여러 민족들이 상당히 오랜 시일에 걸쳐 정치적인 통일과 독립없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민족주의는 정치적 민족주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민족주의는 정치적 민족주의를 환기시켜 각 민족은 그 자신의 독립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각 민족에게 있어 이와같은 목표가 모두 달성된 것은 아니다. 헤이스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오래된 민족국가 내부에도 아직도 여전히 상이한 언어와 전통을 가지는 소수민족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장구한 역사에 걸친 민족의 유동성과 함께 이른바 '亞民族'(sub-nationalities) 내지 '二次的民族'(secondary nationalities)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sup> 마찬가지로 각색의 언어, 관습, 전통을 가지는 서로 다른 인류문화가 항상 있어온 것처럼 비록 특정 민족이 출몰·성쇠를 거듭해왔으나 민족현상은 인류 역사를 통해 언제나 존재해

2) Carlton. J. H. Hayes, *Essays on Nationalism* (1926) 및 *Nationalism: A Religion* (N.Y. The Macmillan Company, 1960), 차기벽 역, 「민족주의」 (서울: 문명사, 1979), pp. 13~27.

왔다고 한다. 이러한 헤이스의 민족에 대한 인식 특히, ‘亞민족’ 또는 ‘이차적 민족’의 존재에 대한 착안은 그후 최근의 연구에 다시 부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H. 콘의 민족에 대한 이해는 민족을 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산물로 규정하는 점이 특징이다. 민족은 씨족이나 부족 혹은 종족집단들 즉, 실질적이거나 가상적이거나 공통적인 혈통이나 거주지에 의해 결합된 인간집단과는 다르다. 종족학적 집단들은 역사의 초창기부터 줄곧 존재해왔으나 민족을 이루지는 않았다. 그들은 특정한 환경이 주어지면 민족을 형성할 수도 있는 ‘종족학적 자료’(ethnographic material)일 뿐이다. 그리고 비록 민족으로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보다 강한 민족에게 흡수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민족은 역사의 살아있는 힘의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동하는 것이며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콘은 민족의 기원은 극히 복잡하면서 최근의 현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민족을 절대적인 것, 선형적 객체, 또는 모든 정치적·문화적 생활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이러한 오류야말로 현대의 온갖 극단적 사태들을 낳게한 발단이었음을 주지시킨다.<sup>3)</sup>

3) Hans Kohn,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Origin and Background* (1944; New York: Macmillan, 1961), “민족주의의 개념,”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The Age of Nationalism: The First Era of Global History* (N.Y.: Harper & Brothers, 1962) 참조.

그리하여 콘은 민족(nationality)은 대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일정한 객관적인 제요소로서 혈연·언어·영토·정치적 실체·관습과 전통 내지 종교를 가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객관적 제요소에 비해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보다도 '생동하는 적극적인 소속의사'임을 주장했다. 이처럼 그의 민족개념은 일정한 객관적 요소 보다는 민족형성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생생하고 적극적인 공동의지'를 강조하면서, 민족은 민족을 형성하려는 결정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한 점에 특징이 있다.

민족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 개인의 적극적인 소속의사나 공동의지를 강조한 콘의 주관적 정의에 비해 언어와 역사적 전통을 민족의 지표로 설정하는 헤이스는 보다 객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비된다. 이들 역사가들은 모두 민족주의가 분명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콘의 경우 민족을 최근의 근대적 현상으로 보면서 민족의 기원을 근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는 반면에, 헤이스는 그 자신의 특이한 전통과 문화유형을 가진 인간집단인 종족이 종족주의로 나타나는 경우를 원시적 민족주의로 이해하면서 전근대에 이미 先在해 있었던 민족의 原재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 나. 민족형성론

최근 민족 및 민족주의 연구는 민족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했던 역사가들의 과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민족의 형성시기를 둘러싼 민족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족형성론은 이른바 ‘근대주의론’(modernist)과 ‘영속주의론’(primordialist)로 대별된다. E. 젤너, B. 앤더슨, E. 홉스봄 등으로 대표되는 ‘근대주의론’에 비해, 민족이 고대부터 존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이 원초적이고 초역사적 실체임을 강조하는 ‘영속주의론’의 전근대주의적 입장 사이에는 커다란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양자의 입장의 비판적 계승 위에서 ‘에스니’ *ethnie* 개념의 설정을 통해 민족형성의 전근대-근대론의 지양을 시도하고 있는 A. 스미스의 민족이론은 이 분야의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에스니’ 개념은 한국민족의 실체와 개념정립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론으로 생각된다.

### (1) 근대주의

E. 젤너는 민족주의 현상을 산업화와 근대화라는 세계사적 과정 속에서 규명하면서, 경제성장의 필요가 민족주의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민족주의가 인간심성에 무언

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가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산업화, 도시화, 정치적 동원, 세속화, 대중교육 및 과학의 발전 등의 근대화에 따른 역할체계의 잠식으로 인한 문화적 표준화 및 확산의 필요와 그에 대한 부적응의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파악했다.<sup>4)</sup> 그리하여 “민족주의는 민족들의 자의식에 눈뜬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없는 곳에서 민족을 발명해 낸다”고 주장했다.<sup>5)</sup>

‘민족은 민족주의의 발명물’이라는 입장에서 젤너는 그 후 산업사회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민족주의를 그 사회적 근원의 관점에서 접근한 저작 「민족과 민족주의」를 통해 스스로 민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민족성이론을 구축하는 두 요소로 의지와 문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민족은 민족주의 시대라는 관점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고 하여 더욱 과감하게 “민족을 발생시키는 것은 민족주의일 뿐 다른 방법은 아니다”고 선언한다.<sup>6)</sup> 요컨대 젤너에게 있어서는 민족주의가 근대적 산물임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하나의 ‘발명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민족이론에 대해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한 B. 앤더슨은

4) Ernest Gellner,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4), ch. 7.

5) *Ibid.*, p. 169.

6)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Oxford: Blackwell, 1983), pp. 77~83.

민족, 민족성, 민족주의는 특수한 종류의 문화적 조형물로 18세기 말경에 이 조형물들이 창조된 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 역사적 동력들이 착종되어 나온 무의식적 증류물로 파악했다. 그리하여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민족은 원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 정치공동체(imagined political community)”로 규정했다. 앤더슨은 젤너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규정은 민족주의가 거짓된 구실 아래 가면을 쓰고 변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너무 애쓴 나머지 ‘발명’을 ‘상상’이나 ‘창조’보다는 ‘허위날조’와 ‘거짓’에 동화시키고 말았으며, 이렇게 해서 젤너는 민족에 대조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들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듯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앤더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사례연구를 통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원초적 마을보다 큰 공동체는 사실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며, 공동체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양에 의해 구별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어떤 민족도 그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족은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각 민족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실질적인 불평등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언제나 심오한 ‘수평적 동료의식’(horizontal comradeship)으로 상상되기 때문에, 바로 이 ‘수평적 동료의식’인 형제애야말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제한된 상상체들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민족은 “공동체로 상상된다”고 주장한다.<sup>7)</sup> 공동체 내부의 계급·계층적 차별성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상상된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수평적 동료의식’은 선협적으로 전제된 것이라기 보다는, 중세적 종교공동체와 왕조국가들이 쇠퇴하는 시기에 부르조아 중심의 공동체에 대한 공속의식이 형성되면서 신과 군주 등의 중심지향적 우주질서와 위계적·수직적 인간관계를 수평적 동료의식이 대체하게 된다는 역사적 의미로 이해된다.

그리고 민족의식의 기원은 경제변동, 사회적·과학적 발전 및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함께 자본주의의 발달, 특히 인쇄자본주의(print-capitalism)의 발달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sup>8)</sup> 즉,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지방어(vernacular)로 쓰인 서적이 대량 출판됨으로써 민족주의 의식의 전파와 확산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앤더슨에 의하면 민족공동체는 완결된 상태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형제애와 평등의식에 기반을 둔 민족공동체가 가장 정당한 공동체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입론은 우리 사회의 민족주의 연구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민족을 원초적이거나 불변적인 실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E. 홉스봄도 민족의 영속주의 입장을 거부하는 뚜렷한

7)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1983), 윤형숙 옮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1991), pp. 15~23.

8) 위의 책. pp. 59~70.

근대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는 민족이 역사적으로 최근의 특정 시기에만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것은 특정한 종류의 근대적 영토국가 즉, 민족국가에 관련될 때에 한해서만 사회적 실체이기 때문에 민족을 민족국가와 관련시키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의 입장을 요약하면서 민족형성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젤너와 마찬가지로 필자는 민족형성에 개입된 가공, 발명, 그리고 사회공학 등의 요인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민족을 인간을 분류하는 자연적 신법, 다시말해 본래적...정치적 운명으로 보는 것은 신화이다. 민족주의는 때때로 이전의 문화를 취하여 민족으로 바꾸며, 어떤 때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종종 이전 문화를 말살한다. 바로 이것이 실체이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나아가 민족주의가 민족에 앞서며 민족이 국가와 민족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선언했다.

홉스봄은 근대민족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의 기본적인 특성을 근대성에서 찾는다. 근대의 민족개념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근대적이고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짧은 역사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것으로서의 민족’이, 민족 자체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수주의자나 전통주의자가 반대했으나 그 반대편에겐 매력적인 것으로, 부르조아 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인류진화

9) Eric.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N.Y.: The Press of University of Cambridge, 1990),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pp. 25~26.

및 진보주의적 세계관과 함께 자유와 평등이 형제애와 연관이 되듯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일부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기도 했다고 한다.<sup>10)</sup>

그러나 홉스봄에게 있어서 민족은 이른바 ‘발명된 전통’(invented tradition)의 가장 뚜렷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의 민족개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산업혁명 이래 전통의 발명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의미를 밝히는 가운데, 특히 ‘민족’과 그것에 연관된 현상들 즉, 민족주의, 민족국가, 국가적 심볼 - 국가, 국기, 국가표장 - 등은 비교적 최근의 역사적 혁신이라 할만한 것으로 이른바 ‘발명된 전통’에 딱 들어맞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sup>11)</sup>

‘민족주의가 민족을 발명해 낸다’는 젤너의 명제와 그러한 명제에 합의하여 민족과 그것에 연관된 현상들을 ‘발명된 전통’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홉스봄의 경우나, 그리고 ‘상상된 공동체’로 민족을 규정하는 앤더슨의 입장은 민족이 근대 즉,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역사적 실체라는 점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다.

한편 ‘민족’이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있어 전혀 방기된 과제는 아니었지만 마르크스주의는 민족문제에 있어서는 이론면에서나 실천면에서나 실패하고 말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인

10) 위의 책, pp. 30~67.

11) Eric J. Hobsbawm and Terence Ranger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N.Y.: Cambridge Univ. Press, 1983), pp. 1~14.

식론적 차원에서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군집성의 원초적 형태는 인간의 類的 存在 즉, 인류였다. 따라서 현존하고 있는 사회계급, 국가, 민족 등은 인간존재의 부차적 형태에 불과한 것이었다. 진보를 향한 인류역사의 합법칙적 과정은 소외와 분화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인간존재로 재구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진화과정의 최고단계에 - 곧 도래할 단계로 믿어졌던 - 다다르면 모든 계급적 차이와 민족적 차별은 소멸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민족적 실체는 궁극적 보편주의에 의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sup>12)</sup>

엔겔스는 인류의 공동체적 존재방식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시적 가족형태인 群婚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후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 연령별로 혼인집단이 형성되는 혈연가족을 거쳐 모권 및 모계에 기초하는 씨족이 형성된다. 그리고 씨족이 발전함에 따라 몇개의 씨족이 결합하여 새로운 공동체 집단인 胞族(Phratric)이 출현하게 되며, 여러 포족이 묶여져서 부족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공동체 집단의 형성과정은 아메리카인디언이나 고대 회랍을 막론하고 문명단계 이전시기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엔겔스가 중세사회의 전형적인 공동체로 ‘民族體’(Nationalität)를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그는 민족체를 “중

12)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민족이론에 대해서는 임지현 위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1986) 참조.

세 초기의 민족혼란으로 부터 점차 새로운 민족체들이 발전해 나왔다...언어집단이 일단 경계설정을 완료하게 되면 민족체가 주어진 토대 위에서 국가건설에 복무하게 되고 민족(Nation)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말한다. 이처럼 엥겔스는 ‘민족체’를 중세봉건제에서 인류의 전형적인 공동체적 존재방식으로 보는 한편, 미래에 출현할 민족의 자연사적이고 인종적인 토대인 동시에 민족의 선행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체’를 전자본주의적 현상으로 간주한다면 민족은 바로 이러한 ‘민족체’로부터 자본주의의 성립과 더불어 성장·발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sup>13)</sup> 엥겔스의 ‘민족체’와 함께 민족통일과 독립의 권리가 인정된 ‘역사적 민족’이라는 특이한 이론적 개념은 한국민족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sup>14)</sup>

20세기초 전쟁과 혁명적 상황 속에서 민족문제는 마르크스주의자에겐 회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레닌의 요청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라는 유명한 논문을 집필한 스

13)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서울: 까치, 1989), pp. 35~47.

14) 엥겔스는 폴란드에 관한 1866년의 일련의 논문들에서 민족통일과 독립의 권리가 인정된 ‘유럽의 위대한 역사적 민족들’-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독일과 짜르와 나폴레옹 3세의 도구로 ‘유럽적 중요성’을 발견할 수 없고 ‘민족적 생명력’을 갖지 못한 여러 민족들의 자취-루마니아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등-를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다. Engels, “What is to Become of Turkey in Europe?,” *New York Daily Tribune*, 1853, MEW IX, M. 레위,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에서 재인용.

탈린은 민족을 “국가민족이란 언어, 영토, 경제생활 그리고 공통의 문화 속에서 나타난 심리적 구조를 갖춘 역사적으로 성장한 영속적인 공동체” 라고 정의하면서, “이들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 민족은 국가민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sup>15)</sup> 이 4가지 요소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경제적 공통성’이다. 이때의 경제적 공통성이란 특정한 생산관계와 관련된 경제공동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공동체로서의 민족은 생산관계를 통해 상호 연결된 각 계급들로 구성된 인간들의 총체적 관계이며, 일정한 유형의 지배적 생산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체제를 지닌 사회구성체를 형성한다는 것이 된다. 스탈린은 이 경제적 공동체는 인류발전 단계에서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 형성되며, 이를 토대로 비로소 민족(Natsiya)의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 문화, 언어, 지역 등을 느슨하게 공유하고 있던 인간공동체를 엥겔스의 ‘Nationalität’ 개념을 차용하여 ‘나로드노스치’(Narodnost’: ‘민족체’ 또는 ‘準민족’)로 불렀다.

그런데 스탈린의 민족에 대한 정의가 과연 민족문제 해결에 직면한 레닌의 의도에 부합했는가하는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그는 O. 바우어의 문화적·심리학적 이론을 수용하여 ‘공통의 문화적 심리구조’라는 상당히 비마르크스주의적인 개념을 사용

15) J. Stalin,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1912),” in *Works* vol. 2 (Moscow: 1953), pp. 300~381.

함으로써 민족개념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인 바우어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국가제도를 진보적으로 조정한다는 개량주의적 관점에서 다민족 국가의 보존을 전제로 민족문제에 접근했다. 민족문제에 대한 바우어의 이론적 특징은 심리·문화적 성격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정의된 ‘민족적 성격’이라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기초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민족 자체에 대한 전략적 기초로서 민족문화 또는 민족문화공동체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 결과 바우어의 ‘문화주의’는 민족문제를 탈정치화시키고 민족문화의 물신화 경향을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sup>16)</sup> 그런데 바우어의 이러한 심리학 이론은 당시 레닌에 의해 통렬히 비판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민족개념에 수용되었다.

‘공통의 문화적 심리구조’에 대한 혼란된 해석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민족개념의 이론적 가치는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민족을 공통의 역사적 운명의 산물로, 지속적인 과정의 결코 완결되지 않은 결과인, 민족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영구히 변화하는 운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엥겔스의 ‘역사적 민족-비역사적 민족’이라는 도식적 구분에 따른 제민족에 대한 선형적 규정으로부터 나타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 Otto Bauer의 민족이론에 대한 글은 Michael Löwy, “Marxists and the National Question,” *New Left Review*, no. 96 (March 1976).

스탈린이 규정한 4가지 특성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민족을 갖게 된다는 원칙은 그후 민족개념에 대한 교조적이고 제한되고 경직된 성격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민족에 대한 정의는 그의 입장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와는 상관없이 민족의 개념설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이 되었던 것이다.<sup>17)</sup>

민족과 계급문제와 관련하여 폴란드의 마르크스주의자 L. 콜라코프스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역사는 '자연적 공동체'와 '보편적 형제애'와의 갈등 속에서 계급에 대한 민족의 승리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인류의 통합이라는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의 유산인 유토피아적 환상이 민족주의의 현실적 힘 앞에 굴복하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평가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sup>18)</sup>

민족주의 이론에 대해 마르크스 자신으로부터 그람시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부수적이거나

17) 1960년대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규정한 민족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밝히고자 각 구성요소들과 국가·계급·사회구성체의 관련범주의 상관관계를 해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민족이란 공통의 경제생활을 토대로 하며, 언어와 영토의 공통성 및 문화의 의식·심리 등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발전의 한 형태로서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인간집단의 공동체"로 규정하였다. A. 코징, 김영수 옮김, 「사적 유토피론적 민족이론」 (서울: 아침, 1989), pp. 103~105.

18) Leszek Kolakowski, "Marxist Philosophy and National Reality; Natural Communities and Universal Brotherhood," *Round Table* no. 253 (January 1974).

지엽적으로 다루었다고 지적한 T. 네언은<sup>19)</sup>,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실패가 우선 철학적, 개념적 실패에 있음을 환기시킨다. 그는 민족주의를 어느정도 사회의 균등하고 자연스러운 진화의 일부로 가정한 논리는 중심부의 환상에 불과했음을 비판하는 가운데 민족주의 진정한 기원은 세계경제의 구조 속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것은 18세기 이래로 역사의 불균등발전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민족의 형성과 민족주의의 발생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하면, 네언도 역시 민족 및 민족주의를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점에서 지극히 근대적 현상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불균등발전의 맥락과 유사한 입장에서 세계체제 내에서 근대국가의 형성이 중심부와 주변 부사회의 민족주의의 발생의 역사적 선행조건이었다는 I. 왈러스타인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요컨대 민족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의 이해도 ‘민족’을 초역사적 보편적 실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대주의적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9) A. 그람시는 민족전통의 형성에 있어서 지식인의 역할과 관련지어, ‘유기적’ 지식인계급이 민족의식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사례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논문으로는 Roger Absalom, “Gramsci’s Contribution to the Debate,” in Eric Cahm and V.C. Fiserer ed. *Socialism and Nationalism* vol. I (London: Nottingham Spokesman, 1979).

20) Tom Nairn, “Modern Janus,” *New Left Review*, no. 94 (November 1975).

21)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pp. 145~146.

이러한 근대주의론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민족의 기원과 세계적 현상을 근대사회의 경제적 기반 즉, 자본주의체제의 발생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파악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족의 기원에 대한 경제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분석수준을 보여주는 입장으로는 E. 겔너로 대표되는 근대화론에 기반한 민족 및 민족주의 연구방법이 보다 풍부한 설명력을 제시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근대화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족주의적인 동인 즉, 문화와 정치체제의 일치가 충족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민족주의 원리의 충족은 최초로 산업주의가 출현하는 선행조건이 아니라 그 산업주의가 만연한 결과일 따름이다. 그리하여 근대화의 조류가 세계를 휩쓸게 됨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적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 희생자가 같은 민족출신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하나의 민족주의가 생겨나며, 그것이 계속된다면 하나의 민족이 생겨난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 국가가 인종적 집단을 균형잡힌 민족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sup>22)</sup>

전통사회의 근대적 변화과정 속에서 '민족의식'의 발생을 포착한 A. 스미스의 경우도 근대민족의 형성설을 뒤받침하고 있다. 그는 근대화가 터어키 농민의 민족적 자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글에서, 농민의 집단적 자의식이 향촌영역을 벗어나 민족으로 확대된 것은 산업화가 진전되고 이들이 토지의 긴박

22) E.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pp. 151~154.

에서 풀려나 도시로 이주한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또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은 산업화의 결과 사회적 교류가 확대되고 그 교류망에 포섭된 이후에야 비로소 민족적 자의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sup>23)</sup>

지금까지 민족의 기원 및 형성시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자를 포함한 근대주의자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근대주의는 민족이란 순전히 근대적 현상이며 엄밀히 말해 자본주의, 관료주의, 세속적 공리주의 등의 근대적 발전의 산물로 규정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민족은 인간본성과 특정한 인간집단의 역사적 연속성에 뿌리를 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18세기 후반 이전으로 소급할 수는 없으며, 고대와 중세에 근대의 민족과 유사한 인간집단이 나타나 보이더라도 그것은 다만 우연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방법론적으로 근대주의의 출발점은 근대성의 전과정 및 제조권 속에서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에 접근한다. 근대사회의 보편적인 민족현상과는 달리 전근대사회에서 민족이 발생할 수 없는 이유는 농경사회와 근대적 산업문명 사이의 커다란 차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민족의 초역사성과 보편적 실체라는 가정은 민족이론의 분석과 설명을 크게 오도할

23) Anthony D Smith, *Theories of Nationalism* (London: Duckworth, 1971), pp. 89~93.

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정치적 행동을 기대하는 민족주의자의 신념과 이상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 (2) 영속주의

영속주의는 '민족'을 초역사적 보편적 실체로 파악하는 점에서 근대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영속주의는 민족적 유대감이나 정서야말로 역사를 이루는 자료가 되며, 그것 자체가 인간의 보편적 속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여긴다. 이들은 언어, 종교, 인종, 종족, 영토 등에 기반한 원초적 유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민족이나 종족공동체가 인간경험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인류역사의 자연스러운 구성단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사회생물학적 해석에 의하면 종족은 혈연관계가 확대된 것이며, 혈연은 생존투쟁에서 집단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가장 정상적인 매개관계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속주의에 기반한 사회학적 해석에 의하면 민족은 언어, 종교, 인종, 종족 및 영토 등을 인류역사를 통하여 인간을 결속시키는 유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조직원리로 간주된다. 따라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인류역사의 초기에 충분히 검출될 수 있는 공동체나 共屬意識 등이 근대에 들어와 보다 확대되고 효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요컨대 민족과 민족주의는 항구적이고 자연적

이며 또한 보편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속주의도 그들의 전근대적 민족과 근대적 민족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영속주의가 아주 오래된 공동체의 문화적 유대 및 정서를 그들의 주된 논거로 제시할 경우 그들의 주장은 그러한 유대 및 정서가 보편적이라는 근거없는 추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즉, 보편적인 것을 전제하는 논점선택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그들이 인간의 특성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공속성을 언급할 경우, 이러한 공속성이 민족의 형성 및 지속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고대적·중세적 공동체와 공속의식이 근대민족과 민족주의의 축소판이자 원초적 형태라면 근대-전근대 민족을 잇는 연결고리들이 실증적으로 예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문화적 유대와 정서를 공유하는 범위, 강도, 특징 및 정치적 중요성 등에 있어서의 변화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물론 충분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유대감 및 공속의식에 함축된 상징성과 신화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그것들이 보다 확대된 근대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역할까지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sup>24)</sup>

이렇듯 민족의 기원이나 형성문제에 대해 근대주의나 영속주

24)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Ltd., 1986), p. 13.

의는 모두 만족할 만한 설득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sup>25)</sup> 이런 점에서 양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시기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이라는 집단이 특정 시기를 전후하여 단절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근대주의와 영속주의에 대한 대립적 이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다. *ethnie* 및 *nation*

우리가 ‘민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nation*’이란 개념은 서구에서 자본주의의 발흥과 함께 18세기 후반 근대적 국민국가가 성립된 이래 일반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족이란 용어가 19세기 말엽 유럽으로부터 수입되기 이전에는 人, 種, 族, 類 등으로 지칭된 것으로 보인다.<sup>26)</sup>

그런데 A. 스미스는 민족의 종족적 기원을 밝히는 연구에서 민족의 기원문제에 대한 근대설과 전근대설을 함께 비판하면

25) John A. Armstrong은 민족의 객관적 요소들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변화하나, 그것을 ‘장기지속’(longue duree)의 범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근대주의적 입장을 비판한다. *Nations Before Nationalism* (N.Y.: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pp. 4~10; the ‘primordialist·instrumentalist’ 및 the ‘modernist·perennialist’와의 논쟁은 Gellner와 Armstrong의 최근 연구참조.

26) 노태돈, “한국민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대사논총』 1, 1991.

서 최근 분출하고 있는 민족 연구는 종족적 배경(ethnic background)의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종족적 배경은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형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족형성의 근대·전근대적 시각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sup>27)</sup>

스미스의 연구에 의하면 종족적 배경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대에 걸쳐 전개되어온 민족주의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한다. ‘종족공동체’(ethnic community) 즉, ‘에스니’ *ethnie*를 민족연구의 지표로 삼을 경우 근대적 민족과 전근대적 공동체 및 공속의식 사이의 급격한 단절을 강조하는 근대설과 이와 대조적으로 전자는 후자의 현대판이며 확대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전근대설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8)</sup>

근대설을 거부하면 흔히 사회학자들이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또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다. 전통적·근대적, 농경사회·산업사회 사이의 급격한 단절이 드러나 보이더라도 적어도 산업사회나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개념범주와는 달리 문화적인 영역에서 그와같은

27) 한국민족의 형성에 관한 이해는 임현진·김병국·공유식의 공동연구, “왜 缺損國家인가? -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역사사회과학적 단상,” 「남북관계의 새로운 인식」(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1993) 참조.

28)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pp. 13~18.

급격한 단절을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기본적인 결속집단에 대한 충성심이나 공속의식이 근대성과 그에 수반된 요소들에 의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 변화는 집단적 충성심과 정체성이 이전부터 존재해온 전통적인 구조내에서 일어나며, 근대적 변화가 전통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집단적 충성심과 정체성은 또한 변화를 조건지우기도 한다. 스미스는 '에스니'를 근대의 민족적 결속체 및 공속의식 그리고 전근대의 집단적인 문화적 결속체 및 공속의식간의 차별성과 유사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유형으로 설정하여 전통적 구조와 근대적 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에스니'라는 개념은 '인종공동체'(ethnic community)를 뜻하는 프랑스 말이다. 이 용어는 생물학적, 혈연적 차이를 뜻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의미를 지닌 '에트노스'*ethnos*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에스니'는 역사적 공동체의식과 함께 문화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에스니'는 다른 인간집단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속성을 갖는다고 한다.<sup>29)</sup>

29) ① A collective name ② A common myth of descent ③ A shared history ④ A distinctive shared culture ⑤ An association with a specific territory ⑥ A sense of solidarity, A. Smith, 위의 책, pp. 21~32; A. Smith, *National Identity* (N. Y.: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p. 21.

첫째, 집합체의 이름; 태고로부터 독특한 집합체의 이름을 가짐으로써 다른 부류와 구별되는 자신의 본질(essence)을 가진다. 둘째, 공통의 신화; 자기네 나뭇의 선조의 내력과 기원에 관한 공통된 신화를 가짐으로써 서로 닮은 점과 귀속감을 공유한다. 셋째, 공통의 역사;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공통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역사를 공유한다. 이 경우 공동체에 전승되어 온 전통들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넷째, 다른 공동체와 뚜렷이 구별되는 공통의 문화; 언어, 종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관습, 제도, 법, 민속, 건축, 의복, 음식, 음악 및 예술 나아가 피부색깔, 신체골격 등 여러 측면에서 공유된 문화특질을 가진다. 다섯째, 특정한 영토적 공속성;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특정한 지역을 지니거나 또는 과거의 영토적 경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고국'(homeland)의 관념을 갖는다. 여섯째, 하나의 연대감; 동료애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강한 정체성, 공속의식과 연대감을 지닌다.

따라서 스미스가 말하는 '에스니'란 동일한 조상, 신화, 공통의 역사와 문화 등의 공유를 통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특정 영토와 연관되어 있으면서 서로간의 연대감을 지니는 인종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륙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 내지 재형성되어온 민족의 시원체 - 앵겔스적 개념에 의하면 민족체 또는 준민족 - 라고도 할 수 있다.<sup>30)</sup> 이러한

30) 스미스는 인종(ethnicity)을 선사시대가 끝나는 B.C.1~2세기경부터 인

‘에스니’를 우리 말의 ‘族’에 근접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근대설과 전근대설의 대립적 시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서구중심적 민족개념에 대한 비판은 S. 아민의 「계급과 민족」에서 제기된 바가 있다. 그는 봉건시대에 민족이 부재한 점과 민족과 자본주의의 동시적 탄생이라는 유럽적 상황을 비유럽지역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민족개념에 대한 서구중심적 왜곡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왜곡은 마르크스에서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아민은 중국 등의 동양사회 같이 잉여생산물이 국가로 집중되는 공납제사회에서나 자본간의 경쟁과 노동의 이동성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자본제사회에서 민족이 형성된다고 한다. 자본제 중심의 근대유럽사회에서는 민족이 나타나게 되나, 주변적이고 불완전한 사회에서는 민족적 동질성이 약하여 민족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서구중심적 민족개념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비유럽지역에 적용하였을 경우엔 제국주의 침략 이전에는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제국주의를 민족형

---

간조직과 의사소통의 사회문화적 모델로서 연속성상의 변화와 변화 속의 연속성을 갖는 역설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A. Smith,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p. 32.

31) 임현진 외, “왜 결혼국가인가? -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역사사회과학적 단상.” 참조.

성의 공로자로 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된다. 그는 서구에서의 민족형성은 타민족의 억압을 수반하는 것이었고, 식민지종속국에 있어서의 민족형성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조건에 따라 형성되어 있거나 형성과정에 있었으므로, 자본주의의 발생과 연관된 서구의 민족형성론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sup>32)</sup> 이와 함께 E. 홉스봄도 종족(ethnicity) 또는 인종(race)이 민족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를 언급하면서,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 3국은 종족이란 면에서 거의 또는 완전히 동질적인 인구로 구성된 역사적 국가의 희귀한 사례임을 강조하는 것과 아울러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종족과 정치적 충성이 실제로 연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33)</sup>

이처럼 민족형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민족사회인 서구중심적 시각을 동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비유럽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형성론에 대한 이해는 제 3의 대안적 시각으로 스미스가 말하는 '에스니'

32) Samir Amin, *Class and Nation* (N.Y.: Monthly Review Press, 1980), pp. 19~20, 조현태 역, 「계급과 민족」 (서울: 미래사, 1986), pp. 29~30.

33) E. 홉스봄은 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남북한의 경우, 인구의 99%가 동질적이고, 중국은 94%가 한족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들은 다소 그들의 역사적 경계안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위의 책, pp. 90~95; 인종적 동질성에 대한 소련측의 추정치는 남북한 100%, 일본 99%, 중국 88%로 나타났다. G. T. Kurian, *The Book of World Rankings*. (N.Y.: Facts on File, 1979), pp. 44~46, 재인용.

와 근대적 ‘내이션’개념 사이의 연속적인 계기성에 착안하여 전 근대설과 근대설의 이분법적 구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한국민족의 개념 및 한국민족의 형성

### 가. 한국민족의 개념

한국민족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설정될 수 있는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한국민족으로 되었는가? 이러한 물음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민족’으로서의 규정성을 획득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로 바뀌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족형성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한국민족은 누구인가? 라는 민족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전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각각 두 국가체제에 소속되어 있는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민족개념으로 용해시켜야 한다면 - 이는 당위적인 요청이자, 실천적 과제이다 - 한국민족의 내포와 외연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민족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방법론적으로는 남북한주민을 먼저 동일한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출발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취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민족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언어, 혈연, 지역, 문화, 민족의식, 국가 및 경제의 주·객관적 요소를 들 수 있다. 현재의 한국민족의 개념규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

해서는 민족을 구성하는 일반적 요소 가운데 남북한주민 사이의 공통적 측면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주민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요소를 민족의 본질적 측면이라 한다면, 차이가 나는 요소들은 현실의 남북한 주민의 존재양태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역사학계의 연구를 수용하면서 남북한주민이 동일한 민족임을 확인하는 가설로 다음의 몇가지 요소를 검토해보자.

첫째, 언어 및 혈연은 남북한주민의 동일성을 말해주는 객관적 요소로서 한국민족의 가장 뚜렷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민족의 기원과 인종적 특성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형질인류학, 인종학, 언어학 등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환경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언어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구분 짓는 것으로 타 집단의 언어를 모르는 것이 의사소통의 가장 명백한 장애가 되고, 그래서 집단분리의 가장 뚜렷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문자해독층의 문자어인 한자는 물론 우리의 민족형성의 기준과는 무관한 통치엘리트층의 관용어로서 행정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었다. 흔히 민족의 기원을 고찰할 때 언어를 주요한 지표로 삼을 경우 주의할 점은 종족과 언어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어떤 경우에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언어를 차용하는 수가 있고, 특히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여 한 문화권을 이루었을 때에는 피정복민족은 지배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우리 민

족은 식민지시대 말기 일제의 조선어말살정책에 의해 한글과 우리 말을 빼앗기는 엄청난 수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종족과 토착적인 구어가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집단을 중심으로 오래동안 일치해온 결과 언어를 한국민족의 고유한 객관적 징표로 삼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한국민족의 객관적 징표로 혈연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천만이산가족’이나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등이 상징하듯, 이는 한국민족의 강한 혈연적 유대감을 절실하게 나타내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은 누구나 혈연이 한국민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데에 모두 공감한다. 이는 물론 인종적 동질성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혈연에 대한 강조는 민족의 단일성과 통일의 당위성을 절감케 하고 민족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민족이 생물학적 특성을 지닌 인종이나 종족 등과 구별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우리 민족의 혈연공동체를 주장한다고 해서 형질인류학적인 측면이나 생식을 통해 이어지는 유전학적인 특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혈연공동체란 종적적 체험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족, 친족 및 문중적 범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혈연으로 묶인 집단으로 여기는 것들 중 가장 큰 체험적 범위인 문중은 부계중심의 가족제도에 바탕을 둔 사회적 관계와 제도라 할 수 있다.

결국 한국민족의 동일성을 말할 때, 혈연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관계로서의 혈연이며 즉, 혈연의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민족은 사실 개개인이 체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인간집단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국민족을 한 핏줄을 이어받은 동포라고 하였을 때, 그 혈연의 의미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의미의 혈연이자, 혈연의 표현인 혈연의식을 말한다. 친족, 씨족 이상의 차원에서 혈연의식이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적응력을 가지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이다. 그에 따라 혈연(의식)이 미치는 외연과 그 내용은 역사적 시기마다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예로서 같은 조상·같은 핏줄의 사람들을 뜻하는 ‘겨레’<sup>35)</sup>나 ‘동포’라는 용어는 ‘우리 동포’ ‘한겨레’를 운운하며, 민족전체의 혈연의식이 고창되었던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였다. 민족의 공통요소로서 혈연은 생물학적·인종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혈연 곧 혈연의식은 사회적·문화적 제관계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血緣의 ‘緣’을 사회문화적 의미로 본다면 혈연은 민족의 공통요소로 볼 수 있으며, 그와 달리 이

34) 노태돈, “한국민족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1992 겨울) 참조.

35) 겨레의 사전적 풀이는 다음과 같다. ① 한 조상을 같이 받드는 자손들의 무리 ② 같은 동포나 민족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92); ① 같은 조상의 혈연관계에 있는 자손들 ② 같은 동포나 민족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원 출판사, 1990). 겨레 붙이는 한 겨레에 속하는 사람들 또는 족속을 뜻한다.

‘緣’을 생물학적 의미의 종족관계로 여긴다면 민족의 공통요소는 ‘혈연의식’이라고도 하겠다. 이 혈연의식은 장구한 역사를 통해 형성된 한국민족의 뚜렷한 공통분모인 것이다.

둘째, 민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공통의 지역성을 들 수 있다. 분단상황에서 남북한주민은 생활공간으로서 지역적 공통성을 공유하지 못하고 각각 한반도의 반쪽 부분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변의 동아시아 3국과의 관계에서 고대부터 일찍 생활공간으로서 지역적인 독자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삼천리강산’은 이것의 반쪽부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의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삼천리강산’ 전 지역을 생활공간으로서 회복해야 한다는 강렬한 소망은 민족의 지역적 공통성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바로 이점에서 한국민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공통의 지역성은 배제될 수 없을 것이다.

세째, 같은 민족이라는 ‘자의식’을 들 수 있다. 이 ‘자의식’은 공통의 언어, 혈연, 신화, 역사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나, 일단 형성이 되면 민족적 결속을 더욱 강하게 하는 접착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러한 ‘자의식’은 민족형성에 중요한 주관적 요소로 다른 민족과의 차별과 함께 한국민족에의 공속의식을 인식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민족의 내포와 외연을 범주화하는 데 국가 및 경제공동체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민족과 국가와

의 관계를 보면, 민족이 일단 형성되면 독자적인 정치체인 국가를 구성하려는 지향성을 나타낸다. 역으로 서구의 민족형성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 즉, 근대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는 일정 지역의 주민을 융합시켜 민족을 형성케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sup>36)</sup> 그러나 모든 민족이 국가라는 독립적인 정치체의 형성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없는 민족도 수없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도 국가를 상실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다. 다시 국가와 민족의 관계로 돌아가면, 현재 한국민족은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족의 특성으로서 국가의 문제가 강조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공통성이라는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민족개념에 있어서 경제적 공통성의 문제는 스탈린 이래 사회주의적 민족개념에서는 근본적인 요소로 주장되어 왔다. 이 개념에 의해 과거 동독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족·자본주의적 민족으로 구분하여 ‘두개의 국가, 두개의

36) C. 킬리는 민족주의라는 말은 국가가 국가목표를 위해서 국민들을 동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관계에서, 국가가 민족에 선행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족을 만들었다는 논리가 된다. 한국의 역사 및 사회적 기반과는 달리, 서구사에서 경험적으로 도출된 킬리의 입장은 한국의 민족형성의 이해와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Oxford: Basil Blackwell, 1990), 이항순 옮김,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4), pp. 186~190

민족'을 정식화시키기도 했다. 예컨대 이 이론에 따르면 남북한을 비롯한 중국·대만은 서로 다른 생산양식을 가진 각각의 사회구성체이기 때문에 '두 국가, 두 민족'이라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결정론적 민족개념은 실제에 부합되지 않으며 동서독의 경우에서도 부정되었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민족에 대한 정의에서도 배제된 요소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공통성이라는 요소를 한국민족의 개념적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에서 국가와 경제적 측면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쯤에서 지금까지의 남북한주민의 동일민족적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 또는 징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민족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족은 물론 역사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는 동태적인 사회적 실체이다. 민족의 객관적 징표와 함께 '민족적 자의식'이라는 주관적 지표를 중시할 경우, 현재의 민족적 '자의식'은 언어, 혈연, 지역 등의 민족의 객관적 징표를 지닌 인간집단의 역사적·사회적 좌표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현재 한국민족의 성원이면 누구나 분단의 질곡을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겠다는 강렬한 의지 또는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의 한국민족 성원에게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민족적 '자의식'이 나타날

수 있었다면, 현재의 한국민족은 분단 반세기를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은 거의 본능적인 충동으로서 의식이전의 욕구와 같은 상태라고 하겠다. 이를테면 남북한주민은 누구나 본래적 존재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점에서 민족적 ‘자의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민족의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지표 등을 기준으로 한국민족을 정의하면, 한국민족은 “언어·혈연(또는 혈연의식)·지역·문화 및 자의식의 공동체로서 단일국가를 구성하려는 지향성을 지닌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한국민족에 대한 이러한 개념규정을 토대로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보자.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논의는 대개 전근대설과 근대설로 대별되면서, 남북한 역사학계의 민족형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개진되었다.

## 나. 한국민족의 형성

### (1) 전근대설

전근대설은 일반적으로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종족적 단위가

---

37) 노태돈, “한국민족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1992 겨울), p. 23 참조.

씨족(Clan), 부족(Tribe), 민족(Nation)의 순서로 발전되어온 것으로 보면서 문화인류학과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민족의 고대기원설을 정당화하였다.<sup>38)</sup> 이에 앞서 안재홍, 손진태 등은 신민족주의적 입장에서 한국민족의 전근대설을 비교적 일찍부터 개진해왔다. 이들은 민족과 민족의식의 유래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근대자본주의 시대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해방공간의 혼돈 속에서 민족적 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민족의 동일혈연성, 공통의 지역성, 운명공동체, 공동문화의 유대성 등을 강조하였다.<sup>39)</sup>

최근 북한의 민족형성론도 유적발굴을 통한 고고인류학적 자료에 기초하여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고대기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남한학계의 전근대설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우리 인민이 이 나라, 이 땅에서 기원한 이래로 오로지 그 하나의 피줄을 이어 이루어진 우리 나라의 고대종족들은 예맥과 맥족

38) 이러한 입론은 사실 민족에 대한 개념규정을 도외시한 채 민족이 선험적 실체임을 전제한 입장이다. 김정학, “한국민족형성사,” 『한국문화사대계』 I (민족·국가사),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4); 김정배, “한국민족과 예맥,”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서울: 고려대 출판부, 1973).

39)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편, 『민세안재홍선집』 2 (서울: 지식산업사, 1983); 손진태, “서설,” 『한국민족사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83).

및 한족이었다. 옛기록에 의하면 이 종족들은 혈연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들은 문화와 풍습 그리고 언어에서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생활에서도 동족으로서의 친근감에 기초하여 깊은 인연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혈연적 공통성은 대대로 계승되어 오늘날 우리 인민의 인류학적 특징에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사람의 인류학적 단일성과 혈연관계에 기초한 지역적 공통성을 더욱 힘있게 론증하여 준다...<sup>40)</sup>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북한학계에서도 혈연, 지역, 문화, 언어 등의 객관적 지표를 준거로 한국민족의 형성의 고대기원설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민족형성론의 경우 북한학계는 전근대설을 기본입장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혈액형이나 지문과 같은 유전학적 자료들을 통해 우리 나라의 북부와 중부 및 남부 지역 주민들은 인류학적으로 한 갈래에서 기원한 집단의 인종적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은 우리 강토에서 태어난 이래 오직 하나의 피줄을 즐기치게 이어온 단일한 인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sup>41)</sup>

그런데 우리 민족의 기원이나 형성에 관한 북한학계의 견해가 시기에 따라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주체사상

40) 김용남,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인류화석과 조선사람 기원문제의 해명,” 『역사과학』 1981년 제4호.

41) 위의 책.

이 강요되는 시기와 맞물려 우리 민족의 혈연적 단일성과 본토기원설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표명되기에 이른다.<sup>42)</sup> 남북한 학계의 전근대설은 민족의 구성요소중 혈연과 지연을 특히, 북한에서는 혈연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의 민족형성론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민족개념에 대한 변화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한때 민족을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으로 정의했다.<sup>43)</sup> 이는 물론 스탈린의 민족에 대한 정의 특히, 경제생활의 공통성이 중시되는 민족개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후 주체사상이 확립된 시기에 와서는 달라진다. 이즈음 “령토와 피줄, 언어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sup>44)</sup> 이라고 하면서 경제생활의 공통성의 요소는 일단 배제시켰다. 그후 곧 김정일에 의해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민족의 징표’를 강조하는 가운데 “민족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된다”는 정의를 공식화하고 있다.<sup>45)</sup> 말하자면 북한의 민족에 관한 공식적 정의에서는

42) 정운용, <“논평”민족의 형성문제를 보는 북한학계의 시각>, 김정배 위음, 「북한의 우리고대사 인식」(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1).

43)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23.

44) 「백과전서」2(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890.

45) 김정일,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1985.10), p. 14.

‘피줄과 언어’를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sup>46)</sup>

민족개념에 있어서 개인의 공속의식과 같은 자발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우가 자유주의적 전통에 연관되는 반면에, 민족의 객관적 측면을 - 북한의 경우와 같이 영토, 피줄, 언어 및 문화 - 강조하게 되면 민족의 고유성의 주장을 넘어 배타성을 함축하면서 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sup>47)</sup> 북한의 민족에 대한 정의에 내포된 정치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줄과 언어’를 중시한 북한의 민족개념은 남북한주민의 공통적 요소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검토한 한국민족의 개념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적 공통성과 언어 및 문화의 공통성이 형성된 바탕 위에서 고구려·백제·신라의 주민을 같은 ‘韓’의 갈래로 여기면서 삼국민을 아우르는 동족의식인 이른바 ‘一統三韓意識’이 나타남으로써 비로소 한국민족이 형성된 것이라고 하는 노태돈의 입론도 역시 전근대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sup>48)</sup>

46) 「김일성저작집」, 18권, p. 14.

47) 홉스봄은 최근의 아시아정치에서 민족의 ‘객관적’인 정의를 선동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족주의적으로 이용한 스리랑카의 타밀민족주의의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E. J. Hobsbawm,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pp. 20~23.

48) 노태돈, “한국민족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1992 겨울) 참조.

## (2) 근대설

한국민족의 근대형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민족을 자본주의 형성과정의 산물로 보고 대개 서구의 민족이론을 수용하는 데에서 출발한다.<sup>49)</sup> 이것은 내재론적 시각과 외인론적 시각으로 다시 구분된다.<sup>50)</sup> 이러한 구분은 조선사회의 내재적 발전과 외압에 의한 규정력의 문제 그리고 외세에 대한 저항과 주체적 대응이라는 문제 등이 구분의 기준으로 될 수 있다.

내재론의 시각에서는 한국근대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민족이 안으로 형성되어가면서 외부적 충격에 대응하는 양상을 주목한다. 민족형성을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논리를 비판하고, 조선후기의 내재적 발전경로에서 반봉건적 요소인 근대적 가치체계를 검출하고 근대국가 수립을 향한 노력을 통해 근대민족이 형성되어가고 있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내재적 발전경로가 외압에 의해 단절됨으로써 근대민족형성의 내재적 시각은 하나의 가능성의 차원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어느 면에서 세계자본주의 침략이라는 외부적 요소에 의한 민족형성의 피동성을 극복하려는 방법론이라고 생각된다.<sup>51)</sup>

49) 전상인, “민족국가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관한 一考,” 『통일연구논총』, 제2권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50) 이영호, “한국근대 민족문제의 성격,” 『역사와 현실』, 창간호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1989).

51) 강만길, “한국근대민족주의의 전개,” 『한국민족운동사론』 (서울: 한길사, 1985).

의인론의 입장은 식민지종속국의 일반적 유형에 따라 한국민족의 형성문제를 이해한다. 한국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길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단절과 왜곡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보고,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비로소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 거주하던 주민집단이 민족의식을 공유하면서 민족으로 형성·결집되었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한국근대사회는 반봉건근대화를 담당할 부르조아지계급이 성숙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근대민족은 저항주체와 관련하여 민중계층 중심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외세에 대한 민중적 저항이라는 차원에서 민족문제를 바라보고 있다.<sup>52)</sup>

한편 한국민족 형성에 대한 전근대설 및 근대설에 대한 이분법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나타났다. 신용하는 서구의 근대민족설은 한국민족과 같이 오랜 역사 속에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유지해온 민족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先민족, 전근대민족, 근대민족, 신민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그는 민족이 근대에 형성될 뿐만 아니라 전근대에도 형성되고 현대에도 형성되는 역사적 범주의 인간공동체라 정의하면서, 이 분류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적용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민족형성론은 전근대-근대를 함께 잇

52) 정창렬, “백성의식, 평민의식, 민중의식,” 변형윤·송건호 편, 「역사와 인간」 (서울: 두레, 1982); “좌담 (강만길·신용하·정창렬): 한국근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신동아」 1984년 9월호.

는 이론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전근대-근대민족을 형성하는 요소로 전자의 경우에는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라는 요소가, 후자의 경우에는 경제의 공동과 민족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sup>53)</sup>

신용하는 ‘선민족’을 전후로 나누어 ‘前期선민족’을 고조선, 부여, 예, 맥, 옥저, 마한, 진한, 변한 등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後期선민족’으로 구분했다. ‘전근대민족’의 형성은 통일신라의 성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후삼국을 통합한 고려에 의해 ‘전근대민족’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민족에 있어서 ‘전근대민족’으로부터 ‘근대민족’으로의 변혁은 19세기의 개화기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sup>54)</sup> 이와 함께 ‘전근대민족’으로 부터 ‘근대민족’으로 형성되는 데에 있어서의 몇가지 사회적 조건으로, ① 사회신분제의 폐지, ② 자본주의의 발흥과 국민경제의 성립, ③ 민주주의의 발흥과 국민국가의 성립, ④ 국민교육의 보급과 민중의 문화적 발전, 마지막으로 ⑤ 민족의식의 고양과 민족주의의 발흥을 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근대민족’으로의 획기적 분기점이 되는 요소는 첫째 요소인 사회신분제의 폐지만이 두드러져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민족개념에 대한 유형적 구분의 이론적 유용성은 두 측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그것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53) 신용하, “민족형성의 이론,” 『한국사회연구』, 제7집 (1984년); 『민족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54) 위의 책, pp. 33~46.

수립 등을 민족형성의 조건으로 파악하는 서구편향적 시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이 이론을 우리 역사에 적용하게 될 때, 현존하는 남북한 두 국가의 역사적 계보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민족이란 실체는 전근대와 근대로 이분화되고 있다. 그의 '전근대민족'이나 '선민족'은 모두 스미스가 말하는 '에스니' 개념에 수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스니'는 근대민족이 형성되기 전단계의 인간집단의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에스니'가 근대에 와서 변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인 'nation'을 지칭할 경우 - 우리의 경우 근대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집단의 내부구성이나 성격 등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수반한 것은 아니다 - 이를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족'이라는 말은 한국민족의 경우, 오늘날 말하는 이른바 '민족적' 성격을 지닌 인간집단이 반드시 근대에 비로소 형성되고 역사에 등장한 것이라기 보다는, 근대에 서구로부터 수용되어 광범하게 사용되어온 용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인간집단의 내부구성이나 그 성격으로 보아, 전근대·근대의 시간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인간집단의 내부구성이나 고유한 성격이 대체로 그대로 이어져온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민족

을 전근대·근대 민족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에스니’라는 개념은 전근대·근대라는 시간적인 구분을 관통하며 양자에 일관되게 이어져온 특정한 인간집단의 실체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에스니’는 우리 말의 ‘족’(族)에 해당하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 ‘족’의 근대적 명칭을 서구로부터 수용한 ‘nation’ 즉, ‘민족’으로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스미스의 말을 들어보면, ‘nation’ 즉, 민족은 민족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체감, 전통, 신화, 상징, 및 의사소통의 코드 등과 같은 ‘ethnie’적 중심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중 하나라도 지니지 못하면, 민족은 다시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sup>55)</sup> 민족적 요소들을 ‘다시 만들어낸다’(re-invent)는 말은, 겔너나 홉스봄의 주장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에스니’적 중심에 걸맞고 납득할만한 요소를 발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민족형성론을 이해하기 위해 ‘에스니’라는 개념을 차용한 까닭은, ‘ethnie’와 ‘nation’사이의 역동성을 통해서 한국 민족형성에 대한 전근대설 및 근대설의 이분법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남북한주민은 동일한 하나의 민족이다. 이 당연한 명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소 장황하게 끌어온 감이 없지 않다. 어쨌든 먼

55) A.D. Smith,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p. 212.

저 한국민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문제삼았다. 이를 위해 남북한주민의 공통적 요소를 중심으로 민족개념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민족개념과 관련하여 민족형성론을 검토한 까닭은 민족문제를 한국사의 전체적 발전과정 안에서 체계적으로 위치지우지 않는 한, 남북한주민이 동일민족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당위론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민족개념과 민족형성론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현재의 남북한주민을 “하나의 민족에 두 개의 국민”으로 나뉘어진 결손국가(a broken nation-state)<sup>56)</sup>로 보는 입장에 설득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민’의 현실은 한민족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정신적 갈등상태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게 한다.<sup>57)</sup>

우리 민족은 누구나 분단 반세기를 비정상적 상태로 여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열망은 거의 본능적인 충동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라 하겠다. 이는 마치 결손가족이 원래적인 가족 결합의 상태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이전의 욕구와도 같다. ‘천만이산가족’,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 등이 의미하는 바는 분단상황 아래서 결손가족의 확대된 관념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다음으로 실천적 차원에서 분리주의적 시각을 극복

56) ‘결손국가’는 가족사회학적 개념인 ‘결손가족’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57) 한국민족의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상태로부터 적극적으로 해방된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두 국가의 서로 다른 정치행태와 다양한 현상적 차별성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민족의 분리의식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단일민족의식을 회복하고 또한 확산시켜 나가야 할 단계라는 점에서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제Ⅲ장 한국민족주의의 접근방법 및 전개과정

#### 1. 한국민족주의의 접근방법

민족주의를 일차적으로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정치적 원리로 규정한 E. 겔너의 논리를 수용한다면, 한국민족주의는 한민족의 자주적 근대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치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이와 함께 민족국가를 유럽의 서쪽 변두리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전 세계를 정복한 자본주의적 발전과 관련된 정치적 통치의 전형적인 형태로 파악하게 되면 민족주의를 둘러싼 미스테리는 해소될 것이다.<sup>2)</sup>

하나의 정치이념 또는 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민족단위와 정치단위의 일치를 지향해온 민족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아직 민족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에서 한국민족주의의 실천적 과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1) E. 겔너는 “감정으로서의 민족주의이든 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이든, 민족주의는 이런 원리적 입장에서 가장 잘 정의될 수 있다. 민족주의 감정은 이 원리를 침해받는 데서 오는 분노의 느낌이거나, 이 원리를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다”고 하면서, “민족주의 운동은 이런 종류의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고 설명한다.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Cornell Univ. Press, 1983), p. 1.

2) Chris Harman, “The Return to the National Question,” *International Socialism* (1992, Autumn).

한국민족주의를 이해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을 세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한국민족주의는 발생사적 차원에서 서구민족주의와는 다르다. 민족주의가 최초로 나타난 지역은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였다.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의 고향인 프랑스, 영국, 독일의 사례연구에 집중된 서구중심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서구의 지리와 역사 및 문화적 잣대로 비서구사회의 민족주의를 재단하는 데에는 많은 오류가 따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구사회의 민족주의와 다른 유형의 민족주의를 구분하여, '서방형'과 '동방형' 민족주의로 불렀던 플라메나츠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참고할 만하다.<sup>3)</sup> 이처럼 중·서부유럽과 동부유럽지역의 민족주의의 차별성을 유형적으로 구분한 플라메나츠의 입장은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한국민족주의의 연구에 그대로 투영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금세기 초의 민족주의는 민족중심의 논리에 의해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 우위를

3) J. Plamenatz는 19세기에 전형적인 것으로 자유주의 사상과 깊이 관련된 '서방형' 민족주의와 중부유럽을 벗어난 그의 출신지인 발칸지방의 민족주의를 '동방형' 민족주의로 유형화했다. 그는 자유주의적이고 온화한 서방의 민족주의와는 달리 동방의 민족주의는 독일·이탈리아 언어들이 지닌 명백하게 정립된 문화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문명제국 가운데서도 선두주자들로서 진보적 문명을 구가하고 있던 영국·프랑스의 서방민족주의 형태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투쟁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Two Types of Nationalism," in E. Kamenka, ed., *Nationalism: The Nature and Evolution of an Idea* (London: Edward Arnold, 1976), pp. 22~36.

강조하거나, 비이성적 민족주의가 대두함으로써 반민주적이고 폭력적 이념체계로 변질되어 마침내 국제적 갈등과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참상을 경험했다. 이는 20세기 후반의 서구의 민족운동의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며 분열적인 성격의 역사적 귀결이었다. 이런 점에서 E.홉스봄이나 A.기든스를 비롯한 민족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하면서 민족주의의 장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sup>4)</sup> 그리고 최근의 동유럽지역의 민족국가의 부활에 따른 정치지도의 변화와 국제질서의 재편성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여기에다 인종중심적 민족주의의 발흥과 참상은 민족주의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한국민족주의는 서구민족주의와는 존재론적 기반을 달리한다. 서구민족주의의 파국적 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그것에 의한 직접적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한국민족주의는 ‘민족주의에 반하는 민족주의’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했다.<sup>6)</sup> 따라서 한국민족주의는 서구민족주의 즉, 제국주의로부터 민족해방을 위한 ‘자유

4) Eric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Anthony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참조.

5) Michael Lind, "In Defence of Liberal Nationalism," *Foreign Affairs* (May/June, 1994).

6) 최장집, "한국민족주의 이해," 「탈냉전시대와 새로운 정치질서」 (동곡김하룡박사정년기념논문집, 1994).

와 평등'의 이념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특수가치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리적으로 불분명한 경계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민족이 이합집산하는 과정 속에서 흔히 '인종중심적'(ethnocentric)이거나 비이성적인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왔던 서구사회의 경우와는 또한 다르다. 인종주의는 자치주의를 넘어서, 가장 야만적인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인종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함께 폭발한 보스니아의 추악한 전쟁은 이것의 극단적인 실례가 된다. 서구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정학적 특수성과 독자적인 민족형성의 과정을 지닌 한국민족에게 인종중심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뿐이다. 이는 일찍이 서구민족주의의 발흥과 패인에 대한 안재홍의 탁월한 통찰력을 통해 해명된 바 있다.<sup>7)</sup>

세제, 한국민족주의의 이념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민족의 고유한 과제라는 사실이다.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의 좌절과 그에 따른 민족문제의 미해결은

7) 安在鴻은 영·불은 국가가 민족에 앞섰으나, 독일은 민족이 먼저 존재하고 그에 의하여 근대 독일국가가 창설되었다고 하면서, 전자가 행운인 순풍에 돛을 달고 자연생장의 코스를 정진할 때, 후자는 착급하는 목적 의식에서 많은 기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 기획이 모방이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생기고 역사가 다르게 되었다고 한다. 민족적 활동은 정치적 영역에서 보다 문화적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그들의 민족주의는 정치적 프로그램만이 아닌 완전한 생활철학이었으며, 생활철학화한 이념이 배타독선적인 경계까지 돌진하게 된 것이라고 파악했다.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세안재홍선집』 2 (서울: 지식산업사 1983), pp. 25~26.

한국민족의 주체적 역량의 결여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민족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세계사적 모순구조인 구시대의 냉전적 유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마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민족주의의 접근방법으로는 서구민족주의와는 발생사적·존재론적 차원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일단 전제로 한다.

한편 유럽지역을 벗어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민족주의의 의제와 서구의 물질문명이 밀려옴에 따라 급격한 전통사회의 해체와 변화에 대응하는 운동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서구 사회의 민족주의에 대한 일반론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9세기 이래 서구유럽내에서의 사회적·정치적 변동은 주로 구성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분석될 수 있다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전통적 사회는 비록 정제된 사회는 아니었지만, 이 지역의 정치적·사회적 변동은 대체로 그 성격에 있어 침투적이고 외생적인 것으로 서구의 정치적·문화적 및 경제적 영향에 의해 조건지워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기반을 토대로 민족주의의 일반적인 유형화를 시도한 A. 스미스의 연구는 한국민족주의의 이해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스미스는 식민지 상태를 경험했던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주의의 패턴은 비교를 위해 제시되었던 '서구의 모델'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지역의 민족주의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19세기 중엽부터 20

세기 후반까지 유럽인들과 식민지지역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의 변형들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단계 혹은 형태로 나누고 있다.<sup>8)</sup>

1. 유럽의 침투에 대한 '원초적인 저항'(primary resistance)운동
2. 식민지 통치에 대한 이른바 '천년지복적'(millennial) 저항운동
3. 새로운 토착계층의 잉태와 '적응'시기
4. 자치를 위한 민족주의적 선동의 단계
5. 민족주의에 의해 대중들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채택

이와 같은 스미스의 아프리카의 경험을 일반화한 민족주의 패턴의 단계적 구분은 한국민족주의의 접근방법과 이론적인 친화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크게 해방을 전후하여 분단시대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前期的 단계의 민족주의와 그리고 後期的 단계에 해당하는 분단시대의 민족주의로 대별하고, 각각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단시대 전단계의 민족주의의 과제는 자주적 근대국가 수립의 실패에 따른 국권상실의 기간을 전후하여 민족형성 및 민족보존과 민족해방의 이념과 실천 속에서 발견된다. 이 단계는

8) Anthony D. Smith, *State and Nation in the Third World: The Western State and African Nationalism* (Brighton: Harvester Press, 1983), 김석근 옮김, 「제3세계의 국가와 민족」(서울: 삼영사, 1986), pp. 59~91.

가) 척사론으로 나타난 원초적 민족주의, 나)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운동으로 나타난 저항적 민족주의, 다) 신채호의 사상과 실천 속에서 구현된 민중적 민족주의, 그리고 라) 좌·우익의 민족주의의 민족국가 건설론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시대의 민족주의의 과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상태인 통합민족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것으로, 가) 해방후 ‘계급에 앞서는 민족’ 이념으로서 신민족주의와, 나) 분단국가주의로 자리잡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민족해방론과 관련된 민중민족주의로 나누어 이해하고자 한다.

## 2. 前期的 단계의 민족주의

### 가. 원초적 민족주의<sup>9)</sup>

한국민족주의의 전근대적 형태인 원초적 민족주의는 전통사회의 在地土族 출신이 주도한 척사위정운동으로 나타났다. 19세기 후반 서세동점의 시기에 외세와의 접촉을 계기로 존왕양이에 사상적·문화적 기반을 두었던 이항로의 사상과 실천은 양반유생층의 반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항로는 이분법적 세계관인 화이관에 토대를 두고 중국을

9) ‘원초적’이라는 용어는 민족주의의 일차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양세력의 침입에 대한 거의 반사적 반응이라는 점과 근본적으로 ‘전통적’이라는 점 때문에 ‘원초적’이라 불렀다.

우주의 중심으로 하는 문화체계를 ‘正’으로, “利를 좋아하고 의리를 어둡게 하며 환영을 기뻐하고 常道를 싫어하는”<sup>10)</sup> 서양을 ‘邪’로 규정했다. 그러므로 화이에 대한 질서가 서야하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臣이 君을 능멸하고 ‘사’가 ‘정’을 이기는 것으로 세상이 뒤집힌 형세와 같다. 따라서 그의 화이관은 ‘사’를 물리치고 ‘정’을 바로잡는 이른바 척사위정론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화이는 우주의 원리에 의해 自別되는 것이요, 그 자별에 의해 속성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서양은 성현의 덕을 본받지 못하고 그들의 이기는 보잘것 없는 것임에도 법도에 어긋나는 물질 위주의 과학을 신봉하는 문화적 미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당시 자신이 처한 시대를 양적이 창궐하는 위급하고 존망이 달려 있는 때로, 北虜가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중에 서쪽의 오랑캐까지 밀려와 정론이 망해가고 사실이 시끄러운 때로 보았다. 그리하여 양이의 禍가 홍수·맹수보다 더하다고 하면서 사학의 무리를 잡아죽이고 바깥으로 서양세력과의 접촉을 엄금해야 함을 주장하여 洋禍에 의한 절박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인식은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한층 강경한 주전론을 주장했다.<sup>12)</sup>

주전론과 더불어 통상교섭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역 자체를

10) 華西 李恒老(1792-1868) 『華西集』, 권10, 雅言 “尊中華” 18엽.

11) 위의 책, 권3, 疏筭, “工曹參判疏 三疏”.

12) 위의 책, 권3, “辭同副承旨兼陳所懷疏”.

서양세력의 동점과 침략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교역관을 살펴볼 수 있다. 1832년 영국상선 로드 앰허스트호가 홍성 앞바다에 와서 교역통상을 요구한 이래 지속적으로 서양과의 교역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는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중국과의 조공관계만이 당시의 전형적인 국제관계 또는 국제무역관계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새로운 충격이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거부반응은 자연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항로는 乞和交易을 ‘邪妄’이라고 못박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교절 밖에 없다고 갈파하는 것과 동시에,<sup>13)</sup> 중국적으로 교역을 끊고 서양인이 오는 것을 막는 길은 洋物을 쓰지않는 데 있다고 주장하여 양물배척의 금령을 엄하게 할 것을 국가정책으로 삼도록 요구했다.<sup>14)</sup> 그는 교역을 오늘날의 통상을 통한 무역으로 본 것이 아니라 원료의 수탈과 풍속교화를 타락시키는 행위나 또는 양인침입의 전초적 행위로 파악했던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 서구의 충격과 그후의 문호개방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최종적 접점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근대적 조공체제는 막을 내린다.<sup>15)</sup> 그러나 조선의 경

13) 위의 책, 권3, 疏筭, “工曹參判再疏”.

14) 위의 책, 권3, “辭工曹參判三疏”.

15) Samir Amin, *Unequal Development: An Essay on the Social Formations of Peripheral Capitalism* (Trans. by Brien Pearce, Monthly Review Press, 1976), pp. 51~58.

우 서구의 충격이 지정학적 이유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비교적 느슨하게 가해졌던 결과 전근대적이고 중세적인 가치체계가 강제적 문호개방의 시기까지 지속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문물에 의한 충격에 대한 반동으로 주자학적 교조주의가 이 시기에 와서 ‘尊中華 攘夷狄’의 기치아래 이른바 ‘소중화’의 배타적 자존 속으로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서구 자본주의의 침입은 침략주의와 정복주의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척사론’은 삶의 고유한 양식의 보존과 특히 전통적인 문화가치를 고수하려 했다.

이항로의 화이관, 주전론, 교역관 등에 반영된 원초적 저항의식은 ‘민족주의적’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많은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그가 양적과의 싸움에서 주전주의자를 ‘國邊人’으로 보고 주화주의자를 ‘敵邊人’으로 규정한 것은 외부의 침략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응전의 각오를 보여준 것이며 그리고 서양의 공업생산물품과 우리의 농업생산물품과의 교역과 통상은 전통사회의 생산구조와 삶의 양식을 파괴하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의 척사론에 따른 정통성론의 근거는 국가를 보위하는 ‘衛國’에 두어진 것이 아니라, 孔孟과 주자학의 정통을 고수하는 ‘衛道’에 있었다.<sup>16)</sup> ‘위국’이 국가적·정치

16) “나라를 보위(衛國)하는 충성은 반드시 흥망이 판별되기 전에 있고 正道를 보위(衛道)하는 공로는 시비가 정해지지 않는 날에 있다” 이항로, 「화서집」, 雅言 권12, “異端” 1엽.

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위도'는 문화적·사상적 가치를 내포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정통과 이단론의 핵심은 바로 공맹의 도에 있는 것이요, 그 공맹의 도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해동의 한 모퉁이를 지키는 것이 민족사상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현실위기의 타개책은 춘추대의의 大一統을 세웠다는 유가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이단을 물리치고 정학을 받드는 '關異崇正'을 바탕으로 요순의 이상정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다.<sup>17)</sup> 요컨대 주자학적 유학의 구현이 바로 위기의 타개책이요 민족보위의 주된 가치체계였다. 이런 점에서 척사론은 문화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구세력에 의한 외부의 충격에 대해 이처럼 복고적·반동적 세계관으로 대응한 경우는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척사론에 함축된 복고주의의 정치적 의미는 새로운 사조나 변화지향적 사회세력을 철저히 탄압하는 전제로 道の 보존과 민족의 방위를 기하려 하였고, 사상적 의미로는 새로운 사상적 경향에 대해 거부하면서 과거로의 회귀를 고수하는 배타적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sup>18)</sup> 현실극복과 근대를 향한 열린의식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에 기반한 계급관계의 해체와 신분해방을 통한 인간 평등성의 확보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17) 이러한 이항로의 중심사상은 「華西集」, 雅言의 “異端”, “攘夷”, “洋禍”, “關邪辨錄” 등 그의 상소문과 잡지에 나타나 있다.

18) 이이화,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연구」, 18집(1977).

국민주권의식의 대두가 ‘민족’ 형성의 필수조건이라면, 이항로와 전통유림들의 척사론은 원초적 저항의식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근대적 ‘민족’ 형성 및 민족주의의 역사적 계기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시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들에게 서구세력의 침투는 정치적·경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 부터 전승되어온 생활방식과 관습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원초적 저항은 대개 사회변동에 대한 왕조적, 귀족적이며 방어적인 저항이나 외세의 무력개입에 의해 곧 와해된다. 원초적 저항에는 민족주의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개념은 ‘민족’ 그 자체를 의미한다. 민족주의를 공통된 기원과 역사를 주장하는 문화적으로 통일된 사람들의 전체적인 집합성으로서의 ‘민족’의 형성을 전제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자치권, 응집력, 일체감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운동으로 정의할 때<sup>19)</sup>, 구질서나 왕조적·귀족적인 단편적 부분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원초적 저항형태의 민족주의적 운동의 한계는 명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근대 이전의 민족공동체의 주민들이 지닌 척사론의 배외적 집단의식은 홉스봄이 말하는 ‘원형민족적’(proto-national) 결속과 유사한 형태이나<sup>20)</sup>, 배외적 집단의식은 그후 제국주의

19) A. D. Smith, *Nationalism in Twentieth Century*, ch. 4, 참조.

20) E.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 69.

침탈에 대항하여 대중동원의 저항민족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원초적' 민족주의는 비록 문화적·사상적 결집에 주안점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민족주의의 맹아적 형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나. 저항적 민족주의

한국의 근대민족과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의 세계적 팽창과정 속에서 서양세력에 대한 위구감의 증폭과 동양문화권 내의 하위범주로 - 즉, 중국중심의 천하관에 의한 변방 - 인식해온 일본의 무력적 침입에 의한 충격과 위기의식 속에서 나타났다.<sup>21)</sup> 이 시기에 중세적 세계관의 붕괴와 동시에 집단적 정체성 또는 민족의식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비로소 '민족'이 되면서, '민족'에 대한 共屬意識과 함께 자주적 국민국가를 목표로 한 근대적 민족주의의 대두를 보게 된다. 이 단계의 민족자위항쟁의 담지층은 농민계층이 중심이 된 민

21) 조선이 일본의 국교수교를 거부한 이유는 일본이 보내온 국서의 형식·내용이 전례와 달랐으며 특히 명치유신 이후 「皇」이니 「勅」이니 하는 문자가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문계삼아 조선은 중국만이 쓸 수 있는 문자를 일본이 사용하는 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위계와 권위를 무시하는 도전적 행위로 인식했다. 한편 중화의식에서 보면 조선은 현실의 청국보다도 중화의 전통적인 계승자인 반면, 일본은 변방에 불과했다. 旗田 巍, “근대에 있어서 한국인의 일본관,” 『思想』 (1967. 10).

중부문과 일부 양반유생층으로부터 나왔으며, '위로부터'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서로 보완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한 이른바 '천년지복적'(millennial) 저항 운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태평천국운동과 조선의 동학운동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부합된다. 태평천국운동이 중국 근대의 벽두에서 서양열강의 침략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이상 사회인 대동적 사회를 모색하고자 했던 점에서 천년지복적 운동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sup>22)</sup> 그러나 천년지복운동이 반제국주의적인 중오심에도 불구하고 복고적이고 대개 '근대화'와 사회 변동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동학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서학의 충격아래 전통적인 민중사상이 뒤섞인 종교이자 하나의 사회사상이다. 동학은 자연적 조화사상에 토대를 두고 유교의 천명과 도교의 무작위적 자연 및 불교의 원용적 회통론을 포섭하였다.<sup>23)</sup> 이런 점에서 동학은 동양적 사유체계가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철학적 전제로 삼은 것으로 당시 조선사회의 유교, 불교, 도교사상을

22) 하정식, "태평천국에 대한 조선정부의 인식," 『역사학보』, 제107집(1985); 김성찬, "태평천국정권의 확립과정과 '安民'정책," 『동양사학연구』, 제27집(1988) 참조.

23) "吾道는 원래 儒도 아니며 佛도 아니며 仙도 아니니라. 그러나 오도는 유불선 합일이니라. 즉 천도는 유불선이 아니로되 유불선은 천도의 한 부분이니라," 이돈화 편, 『천도교창건사』, 1편 (서울: 천도교중앙총리원, 1933), p. 47.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sup>24)</sup> 도덕질서가 회복된 이상사회는 一治一亂의 순환적 우주관에 바탕하여 無爲而化를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설교함으로써 정치적 순옹주의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인 수도와 주술적 방법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종교적 신비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점에서 근대적 비전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sup>25)</sup>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학사상은 신분해방을 주창하고 교단의 지도부내에서 실현함으로써 중세적 질곡을 극복할 수 있는 반봉건사상과 그에 기반한 반봉건운동의 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양열강의 침략에 의한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강한 반외세 의식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반봉건·반외세 사상에 매개된, 비록 사상내재적 한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동학의 이상사회와 교단조직은 당시 소외되고 억압받는 민중의 공동체적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이 하나의 사회사상이거나 또는 종교형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적 동류의식에 의한 집단행동의 분출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의 철폐와 더불어 반외세 저항운동이 총체

24) 우윤, “동학사상의 정치·사회적 성격,” 『1894년 농민전쟁 연구3』 (서울: 역사비평사, 1993).

25) 자연과 인간간의 합일을 통해 투쟁과 갈등이 해소된 이상사회는 동학의 21자 주문-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을 통한 주술적 처방으로 가능하다는 신비주의적 입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적으로 표출되는 1894년의 농민혁명에 연관된 동학의 사상과 교단조직의 역할을 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학이 천년지복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한 그것은 인간의 자립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을 믿거나 또는 초자연주의적인 것으로서, 현실적 세계로부터 비판적인 도피자세는 결코 세계를 개혁하고 재구조화하려는 민족주의적 이상과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sup>26)</sup> 그럼에도 천년지복운동은 비록 그 자체의 의도가 민족주의의 이상으로부터 유리되고 심지어 반대되기까지 해도 민족적인 감정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sup>27)</sup>

동학농민혁명의 한계로서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체제로의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과 정치적 차원에서 근대국가체제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동학이 함축한 피억압계층의 공동체의식, 이른바 B. 앤더슨이 말하는 ‘수평적 동료의식’(horizontal comradeship)<sup>28)</sup> - 이 개념은 앞으로 한국민족주의의 방향정립을 위한 이념적 지표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강렬한 반봉건 및 반일투쟁은 한국민족의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나아가 동학

26) A. Smith, *Nationalism in Twentieth Century*, ch. 2, 참조.

27) 노태구, “2000년대를 향한 한국민족주의-동학과 관련하여,” 『한국민족주의』 (경기: 경기대 민족문제연구소, 1993) 참조.

28)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p. 7.

농민혁명의 단계로부터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의 원형을 찾을 수 있으며, 그후 의병운동을 비롯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본류를 형성하게 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sup>29)</sup>

다음으로 저항적 민족주의의 또 다른 갈래로는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던 시기에 척사·척화론에 기반한 유생층의 의병운동을 들 수 있다. 최익현을 비롯한 재야유생들은 친일 개화파를 비난하고 개화의 허위성을 규탄하면서 유교적 가치질서를 회복하는 '존왕양이'의 기치를 들었다. 그들은 친일개화과정권의 권력다툼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에서 자유·민권 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체계가 유포되는 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여기에다 전통적 향촌사회의 봉건적 질서가 붕괴되는 위기적 상황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강경한 봉건질서의 재건을 주장하는 수신군주론을 이념적 토대로 개화정책에 반대하고 일제에 대한 무력항쟁을 호소했다.<sup>30)</sup>

그러나 그들은 무력항쟁을 주장하는 척사·척화논리는 전 단계의 화이론과는 달리 서양세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조약준수를 강조하고 침략행위에 대해 만국공법과 국제여론에 호소하고자 했다.<sup>31)</sup> 즉, 만국공법과 국

29) 김도형, "한말 의병전쟁의 민중적 성격," 『한국민족주의론Ⅲ』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참조.

30) 崔益鉉의 疏, "再疏" (戊戌(1898년) 十月初九日),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면암집 I」, pp. 158~184 참조.

31) 최익현의 疏, "倡義討賊疏" (丙午(1906년) 閏四月十一日), 「면암집 I」, pp. 235~237.

제여론에 호소하는 외교적 방법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각성시키는 방법으로 무력항쟁을 선택했던 것이다.<sup>32)</sup> 이처럼 당시 재야유생층은 대부분 외교론을 강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일투쟁의식은 크게 부각되었다.<sup>33)</sup> 당시 집권개화파는 친일주구화되었고, 지식인계층의 계몽운동이 반일무력항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때였으므로 재야유생층의 배일감정과 무력항쟁에 대한 호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광범한 민중계층으로부터 상당한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유생층은 전통적 가치관과 중세적 봉건질서의 회복을 위한 존왕양이적 국가관에 매몰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근대적 비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반외세투쟁의 맥락에서만 민족적 정체성 및 민족의식의 형성을 통해 ‘민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민족주의적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면, 이 단계의 유생층의 반일외병운동의 기치는 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쟁형태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지만 한국민족주의의 한 갈래로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비록 저항적 민족주의가 무력투쟁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

32) 최익현, “진실로 세력을 헤아리지 않고 민중을 멋대로 선동하여 강한 오랑개와 목숨을 다투려 함은 아니옵니다” 라는 상소문의 내용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무력항쟁보다는 소극적 대응론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위의 책, pp. 235~237.

33) 국권회복을 위한 재야유생층의 공통된 방법은 외교론이었다. 이이화, “한말 유생층의 현실인식과 의병투쟁,” 「국사관논총」, 15집(1990) 참조.

두지는 못했으나, 이것이 지향하는 가치의 측면에서는 민족정기를 양양하고 민족의식을 범민족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장래의 민족주의운동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 하나의 초석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저항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공동운명체적 의식과 통일적인 행동규범을 형성·강화시켜 반외세운동을 보편적인 '시대정신'으로서 자리잡게 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했다. 더우기 저항적 민족주의를 통해 양반유생층의 대의명분과 민중의 투쟁적 반일의식이 합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음 단계의 한국민족주의의 뚜렷한 지향점을 제시해 주었다.

민족주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경제행위의 긴밀화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및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르는 민족자본의 맹아적인 발생, 교육 및 언론·출판활동을 통한 근대문명의 소개와 대중계몽 활동, 철도 및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의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애국계몽운동은 문화적 계몽활동을 기본내용으로 한 것으로, 민족적 각성이 국권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보면서 교육사업, 언론·출판 및 학회활동 등을 활발히 펼쳤다.<sup>34)</sup> 그러나 국가의 독립과 근대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봉건적인 요구와 함께 반일투쟁구호를 앞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4) 북한학계에서는 '애국적 지식인'들에 의한 「애국문화운동」을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한 조류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선전사14」 (근대편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p. 132~152.

지식인들은 당시 풍미한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문명개화론에 경도되어 정치적 실천을 도외시한 채 근대문명 즉, 서구문명에 대한 소개·수용을 통한 대중적 계몽을 국가의 정치적 독립의 전제로 생각했던 것이다.<sup>35)</sup> 사회진화론은 선진문명에 의한 주권침탈을 자연사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제국주의적 현실을 긍정하는 논리를 배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애국계몽운동은 주권국가로서의 ‘국가’를 유보했으며, ‘민족’은 계몽을 전제로 형성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민족주의 운동에서 일탈하고 말았다. 그러나 계몽운동을 통해 교육, 언론, 출판활동 등의 한글 중심의 ‘민족활자어’(national print-languages)<sup>36)</sup>의 보급과 확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의식을 형성하고 고양시켜 저항적 민족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5) 俞吉濬은 “内地의 暴亂을 막는 것이 국가의 自守하는 道”라는 입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을 ‘東匪’의 소란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인민의 지식이 부족한 國은 卒然히 其인민에게 國政參涉하는 權을 許함이 不可”하다고 주장했다 (『서유견문』, 제5편).

36) 앤더슨은 민족주의의 문화적 근원에 대한 설명에서 ‘인쇄자본주의’(print-capitalism) 만큼 성공적으로 민족주의를 촉진시킨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근대 민족 및 민족국가와 소설·신문 등의 ‘민족활자어’(national print-languages)와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p. 36, p. 46.

#### 다. 민중적 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평을 개척한 선구적 업적은 단연 단재 신채호의 사상과 실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민족주의는 구질서의 단순한 방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신채호의 이른바 민중적 민족주의로 정립되는 ‘건설적’<sup>37)</sup>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데 30여년이 걸렸다. 그러나 아시아·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민족주의의 발생·발전의 과정과 비교해 볼 때 결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예속상태에서 반일민족주의 사상 및 행동은 주체적 역량이 결여된 비조직적 상태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한국민족주의는 사상 및 운동의 차원에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후 한국독립운동의 양상은 대체로 두 갈래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전 단계의 자강론적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한국인의 실력과 민족의식을 양성·축적하려한 점진적 장기계획파요, 다른 하나는 「3·1운동」의 무저항적·평화적 시위운동의 실패에 따른 반응으로 사회주의운동을 통해 독립을 성취하려한 노선으로 대별되었다. 그러나 양자의 독립운동의 방법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신채호의 민중적 민족주의의 좌표가 설정된다.

37) ‘건설적’이라는 의미는 이념적 차원에서 구체적 대안과 함께 민족운동의 주체설정 및 운동방법 등의 모색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신채호가 활동했던 시기에 서구근대사상으로는 새로운 자연·세계의 질서체계로서의 사회진화론과 시민적 가치를 정치사회의 중핵으로 여겼던 계몽주의사조가 흥미하고 있었다면, 국제질서의 현실에서는 도덕적 규범보다는 민족국가의 이익이 앞서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적 국제질서가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신채호의 사상에도 사회진화론 및 시민론적 정치이념과 함께 제국주의적 국제질서관이 서로 뒤섞이는 가운데, 초기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계몽주의적 성격으로부터 일제의 억압적 통치에 대응하여 점차 저항적, 무력항쟁적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이게 된다. 초기 계몽주의적 활동은 정열적인 논설을 통해 단순히 서구의 시민론적 정치이념을 소개·수용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영웅적 인물들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족적 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심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한편, 중세적 역사인식인 ‘존화사관’, ‘소중화사관’ 및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시민적 근대민족주의사학을 개척하고자 했던 노력에서 잘 드러난다.<sup>38)</sup> 이 단계를 신채호의 계몽적 민족주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계몽

38) 申采浩의 「讀史新論」(1908)은 근대적 시민민족주의사관의 효시가 된다. 신용하, “신채호의 <독사신론>의 비교분석,” 「단체신채호와 민족사관」(단체 신채호선생 탄신100주년기념논문집; 서울: 형설출판사, 1980) 참조.

39) 계몽적 민족주의는 ①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성원의 가치적 정신세계의 고양이 필요하고, ② 이러한 고양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나 제도의 변혁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의 지향 즉, 근대민족국가의 발전으로 추구되어야 하고, ③ 세계사의 보편적인 사상

적 민족주의 사상은 서구 제국주의 침탈이 물질적 가치의 우위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문물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여전히 정신적인 민족내면의 고유성과 이념을 규범화하여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채호는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 저항적 민족주의에 대한 발전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대한매일신보에 쓴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논설에서 제국주의를 ‘영토와 국권을 확장하는 주의’라고 못박고, 민족주의를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타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 주의’라고 규정했다.<sup>40)</sup> 나아가 “민족주의는 실로 민족보존의 不二의 法文이라...민족을 보존코자 하는 자가 민족주의를 捨하고 何를 堂取하리요. 是故로 민족주의가 팽창적 웅장적 건인적의 광휘를 揚하면, 여하한 극열적 극악적의 제국주의라도 감히 參入치 못하나니, 요컨대 제국주의는 민족주의가 박약한 國에만 참입하나니라”<sup>41)</sup>고 하여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그의 민족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

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대의 국가사상 - 당시의 국가사상은 민족주의였다 - 의 현실화가 강구되어야 하고, ④ 특히 일반 민중의 애국계몽의 실천적인 성격은 과거의 민족적 발전과 흥륭을 가르쳐주는 교육적인 기능으로 추구될 수 있다고 믿었다. 진덕규, “단체 신채호의 민중·민족주의의 인식,” 강만길 편, 「신채호」(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40) 신채호,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28일) 「단체 신채호전집」, 하권 (이하 「전집」이라 함), p. 108.

41) 「전집」, 하권, pp. 108-109.

이념체계와 실천적 방향이 표출된 선언이라는 점에서 단재 민족주의의 핵심이 되며, 이를 계기로 한국민족주의는 그때까지 이념적으로 공허한 상태를 극복하게 된다. 그는 자강론적 근대화론에 입각한 준비론적 독립운동과 열강에 독립을 청원하는 외교론의 타협주의적 속성을 비판하고 독립운동의 이념적 미숙성과 평화적·비폭력적 실천양식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고유적 조선의, 자유적 조선민중의, 민중적 경제의, 민중적 사회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족통치의, 박탈제도의, 사회적 불평등의, 노예적 문화사상의 현상을 타파함”<sup>42)</sup>을 역설하면서 일제에 대한 전민중의 저항을 주장했다. 그는 강권주의는 혁명으로 타도해야 하며, “모든 혁명은 민중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고 역설한 무정부주의자인 크로포트킨의 ‘민중혁명론’<sup>43)</sup>에 크게 공감하여 ‘민중직접폭력의 민족운동’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각한 민중이 민중의 전체를 위하여 혁명적 선구가 됨이 민중각오의 제일의 길이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민족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은 자각된 전체민중의 의지에 의해 표현되는 민족주의적 투쟁 즉, 혁명만이 유일한 방도임을 역설했다.

그는 민족의 발전적 미래를 가능하게 할 역사적 실체로서 민

42) 신채호, “조선혁명선언”(1923), 「전집」, 하권, pp. 35~50.

43) Peter Kropotkin, *La Science Moderne et l'Anarchie* (1912), 이을호 역, 「현대과학과 아나키즘」(1973), p. 139.

중은 곧 민족과 일치된다고 믿었으며, 민중을 민족주의 혁명의 담당주체로 삼았던 것이다.<sup>44)</sup> 여기서 그는 혁명 즉, 민족독립운동을 담당할 주체로 민중을 발견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민중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민족상층 지도부의 한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으며, 민중전체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한 투쟁적 민족주의를 주장한 것은 실력준비론이나 외교론과 같은 타협적이고 청원적인 독립운동 방식은 일제의 의도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보았다. 신채호의 민중은 비록 개념적으로 인식된 존재는 아니지만 식민지적 억압 속에서 피착취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모든 모순의 담지계층이었다.<sup>45)</sup> 그러나 그의 민중은 일본의 식민지적 조건에만 한정된 민중은 아니었고, 세계 자본주의의 침해를 받고 있는 무산대중 특히 아시아지역 식민지사회의 무산대중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세계 체제적 시각 속에서 확대된 민중이었다.<sup>46)</sup>

그러나 신채호의 민중은 사회주의적 계급은 아니다. 그의 혁명 즉, 민족해방노선은 사회주의적 노선을 배척했다.<sup>47)</sup> 그의

44) 단재는 역사 발전을 담당할 주체를 초기의 영웅에서 국민으로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의 시기에는 민중에 착안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강만길, “신채호의 영웅·국민·민중주의,” 「신채호」(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참조.

45) 신채호, 「전집」, 하권, p. 42.

46) 신채호, “우리는 세계 무산대중! ...무산민중... 더욱 동방 각 식민지 민중” 「전집」, 하권, p. 47.

47) 신채호, “용과 용의 대격전” (1928년)에서 공산당의 대조류에 독립군이

민족주의의 이념적 특징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이념을 모두 거부하고, 무정부주의를 지향했다는 데에 있다.<sup>48)</sup> 제국주의시대 피억압민족의 최대의 염원은 '자유'였다. 신채호는 무정부주의를 “동방의 기성국체를 변혁하여 다같은 자유로서 잘 살자는 것”<sup>49)</sup>으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오직 현 제국주의 제도에 불평과 약소민족의 미래를 위하여”<sup>50)</sup> 무정부주의를 선택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는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보다는 자유를 지고의 가치로 삼는 무정부주의에 크게 공감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자유에 반하는 '공산전제'라 하여 배격하였다. 그가 폭력적 민중혁명을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민중·민족의 자유를 위해 주장했기 때문에 계급독재를 다른 계급에 대한 또다른 전제로 이해하여 사회주의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모스크바 추종을 사대적인 것으로 비판했다.

신채호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은 이 무렵 중국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무정부주의자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

거부하고 떠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집」, 별집, p. 280.

48) 당시에 소개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스펜스 등의 사회진화론에 기반한 민족주의와 루소의 민권론에 기반한 민족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강자의 논리로 민족들 사이의 외경에서의 적자생존·우승열패·약육강식의 원리에서 적자·우자·강자·승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면, 후자는 식민지 현실에서 전혀 실현불가능한 민족주의 논리였다.

49) 「제4회 공판기록」(동아일보, 1929년 10월 7일자), 「전집」, 하권, p. 433.

50) 「제3회 공판기사」(동아일보, 1929년 4월 8일자), 「전집」, 하권, pp. 431~432.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일부 좌익운동가들이 일본의 무산계급과 조선의 무산계급은 모두 피착취대중이니 ‘민족’으로 구분하지 말고 ‘유·무산’으로 구분하여 조선과 일본의 무산계급의 연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 그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일본의 무산자가 조선의 유산자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조선에 이식하는 일본 무산자는 조선민중의 생활을 위협하는 식민지 선봉이 되기도 하므로 일본무산자를 환영하는 것이 곧 식민지 선봉을 환영하는 것이 된다고 경고하였다.<sup>51)</sup> 이처럼 그는 전세계 노동자계급과 연대를 주장한 「공산당선언」의 기본입장과는 달리 제국주의 강국의 민중은 제외하고 식민지·반식민지의 민중 특히, 동방 각 식민지·반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주장했다는 사실에서 오늘날 제3세계적 민중인식의 선구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요컨대 신채호는 한국민족주의의 실천적 주체로 ‘민중’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민중적 민족주의는 ‘민족’ 개념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민중적 민족주의는 특수이익에 대한 공동이익의 시각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족관념의 토대를 마련하는 이념적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단시대에 와서 근대화와 발전논리로 정당화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재발견되는 이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51) 신채호, “浪客의 新年漫筆” (동아일보, 1925.1.2), 「전집」, 하권, p. 28~29.

## 라. 민족국가 건설론

민족국가 건설론은 식민지시대 민족주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식민지시대의 민족주의의 과제는 주권회복을 위한 투쟁과 함께 해방후 민족국가의 건설방향의 모색에 모아졌다. 이 시기엔 민족운동의 이념, 방법, 주도세력 등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좌·우익간의 다양한 분파가 형성되고 상호 대립적인 노선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좌·우익의 모든 분파는 민족해방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로 합류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일찍이 조지훈이 “한국의 민족운동은 민족적 사회주의·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색조가 진작부터 짙었고, 이러한 상호 영향의 요소 때문에 해방전까지의 공산주의 운동은 민족해방운동사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sup>52)</sup>고 했을 때, 민족해방운동사에 있어서 좌파의 역할과 성격을 민족국가 수립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했던 것이다.<sup>53)</sup> 노령지역의 민족운동이 코민테른이 성립되기 전부터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나타나게 된 것은 민족운동의 구체적 노선을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기 보다는 “독립운동의 숙원

52) 조지훈, “한국민족운동사,” 『한국문화사대계』, 1권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4), p. 737.

53) 이정식은 한국민족주의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민족주의적 열망과 그들 노선의 필요성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되었으며... 후에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된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진영에 합류하였던 것은, 한국독립의 목적이 그들의 이념투쟁에 적합하리라는 믿음에서였다”고 한다.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한국민족주의의 운동사』 (서울: 미래사, 1982), “저자의 말” 참조.

을 달성코자 유력한 정부의 원조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도에 불과했던 것이다.<sup>54)</sup> 민족국가 건설론은 3·1운동을 계기로 처음 공화주의국가 건설론에서 일치하였고 그후 좌·우익의 대립으로 차이점이 나타났으나, 국내외에서 민족운동의 두 노선은 합일점을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sup>55)</sup>

이 시기에 식민통치체제의 다양한 자문·심의기구와 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 식민지 통치체제로부터 최소한의 권리와 양보를 기대하는 타협적·개량주의적 노선도 나타났다.<sup>56)</sup> 이러한 개량주의 노선은 교육수준이 높고 서양과 식민지 모국의 문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식민지엘리트층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우리에게 자치권과 참정권을 호소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이는 스미스가 일반화한 민족주의의 한 유형인 ‘자치를 위한 선동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sup>57)</sup>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족운동에 대한 이념적 분화를 명백히 하게 되고 민족진영의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다.<sup>58)</sup>

54)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제1권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p. 176.

55) 강만길, “독립운동 과정의 민족국가 건설론,” 「한국민족주의론 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참조.

56)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1924년 1월2일-6일)은 개량주의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표명한 글이다.

57) A. D. Smith, *State and Nation in the Third World: The Western State and African Nationalism*, pp. 70~76.

58) 타협적 정치운동을 기대한 민족우파는 식민지적 현실이 일본의 침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인식이 결여된 ‘조선인의 무지’에 기인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민족개조’를 주장하게 된다. 이광수, 「민족개조론」(『개벽』, 1922. 5) 참조.

이를 계기로 개량화된 민족주의 우파를 제외하고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민족협동전선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신간회의 창설로 구체화되었다.<sup>59)</sup>

신간회의 초대회장이었던 이상재는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의 근원이며,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의 본류”라고 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인식하려 하였다.<sup>60)</sup> 신간회는 민족주의 좌파의 주도권 아래 ‘민족적 협동전선론’에 입각한 조선공산당이 합류하여 민족운동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리하여 신간회는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민족·사회 양주의자가 제휴한 공동전선이었고, 합법적인 결사운동으로 비타협적 투쟁을 감행하는 민족운동의 대표적 단체”<sup>61)</sup>로서 한동안 민족운동의 구심이 되었으나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른 좌익의 해소론에 의해 민족유일당운동은 붕괴되고 말았다. 이 시기 코민테른의 대한정책은 신간회 창립과 해소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한국의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소련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좌편향적 이해와 중국의 혁명경험을 중시한 사회주의 종주국의 논리와, 특히 한국의 좌익계가 이러한 모순된 정

59) 신간회 창립시의 간부진(51명)은 조선일보계, 기독교계, 불교계, 천도교계, 유림계, 조선공산당계 및 학계를 망라하고 있는 점에서 민족단일당 혹은 민족유일당의 매개형태로 창립되었다. 이규영, 「신간회연구」, 제1장 “창립” (서울: 역사비평사, 1993).

60) 「조선일보」 1928년 4월 1일자 사설 참조.

61) 조지훈, “한국민족운동사,” 「한국문화사대계」, 1권, p. 774.

책을 기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민족협동전선은 실패하고 말았으며<sup>62)</sup> 민족운동역량의 큰 손실을 초래했다.<sup>63)</sup>

국내에서의 민족협동전선의 실패와는 달리 만주와 중국지방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민족연합전선을 지향하면서 해방후 민족국가 건설방향에서 점차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시대의 말기 좌·우익의 민족주의적 합일점에의 접근은 그러한 노력이 정착되기도 전에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미·소의 분할점령과 동서냉전이 심화됨으로써 민족분단이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한국민족주의의 이념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해방을 맞이함으로써 결국 이념적으로 분열된 두개의 국가가 수립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한 민족적 갈등은 해방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었으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의 민족, 두개의 국민’ 상태인 미완의 민족국가로 귀결되고 말았다.

62) 김명구, “코민테른의 대한정책과 신간회,” 「신간회연구」 (서울: 동녘, 1983) 참조.

63) 신간회의 창립(1927년 2월 15일)과 해체(1931년 5월 16일)에 이르는 5년 동안의 기간은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해방후 이념적 갈등과 분단을 예고하는 측면도 있다.

### 3. 분단시대 민족주의

#### 가. 신민족주의

##### (1) 통일민족국가 수립론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은 길다’ - 이는 신민족주의의 핵심적 요체다. 해방 벽두에 “오늘날의 최대 급무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목표로 삼는 통일민족국가의 결성에 있나니, 이제 그 논술의 붓을 잡는다”<sup>64)</sup>는 말로 시작하는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은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제에 있어 우리 민족사회는 유럽 민족사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전제에서, 전민족 초계급적으로 굴욕과 피착취의 대상으로 되었다가 전민족 초계급적으로 해방되었으니 이제 ‘초계급적인 통합민족국가’의 건설이 당면과제임을 주장하였다.<sup>65)</sup>

안재홍은 해방정국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도우파적 입장에서 창당한 국민당의 강령으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논술했다. 이 글에서 그는 당면한 민족적 과제가 국내적으로 계급투쟁과 정권투쟁이 일소된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과 함

64) 安在鴻의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는 1945년 9월20일에 탈고하여 그 해 12월에 출간했다. 『민세안재홍선집2』 (서울: 지식산업사, 1983)에 수록.

65) 위의 글.

게 국제적으로 민족의 자주독립과 친선을 강구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모든 고정된 선입주적 국권이 지양되고, 협동통합의 민족국가에로 초계급적 초당파적 회통이 요청되는”<sup>66)</sup> 상황에서 경제적 숙명론이나 기계론적 유물사관의 과오를 배제하고 윤리와 자유의 세계를 찾아야 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적 계급관을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영원히 대립 평행할 선은 아니요,早晚에 통과하여야 할 역사의 행진 도정에서의 양개의 점이다”고 하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과의 적정한 조화를 호소했다.<sup>67)</sup>

신민족주의의 중심개념은 ‘민족’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 보편성을 전제한 민족이었다.<sup>68)</sup> 안재홍은 일찍이 「조선학의 문제」에서 세계사적 보편성이 전제된 민족의 개념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 자신의 문화 및 그 사상에서 조선인적이면서 세계적이요 세계적이면서 조선 및 조선인적인”<sup>69)</sup> 민족을 강조했다. 나아가 배타고립적인 구시대의 문화적 잔재로서는 곤란하며 “외타인민과 상호적 교환적 혹은 병존적 때로는 또 협진적의 개방된 세계적 자아관에 입각한”<sup>70)</sup> 민족이어야 함을 역설한

66) 위의 글.

67) 위의 글.

68) 안재홍의 ‘민족’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주장해온 ‘대한정신’, ‘한국혼’, ‘낭가사상’, ‘얼’ 및 ‘조선심’ 등과 같이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관념적인 민족은 아니다. 이지원, “신민족주의사관,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역사비평』 (1991 가을) 참조.

69) 樗山, “조선학의 문제,” 『신조선』 (1934.12), p. 3.

70) 위의 글.

바 있다. 이처럼 조선적이면서 세계적이고 세계적이면서 조선적인 민족·민족주의를 민족적 국제주의·국제적 민족주의라 했다. 그는 ‘민족적 개아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민족 특유의 전통과 국제대동의 체제는 반드시 대립됨이 아니니...근대에 있어 국제적 협동연관성을 무시하는 고립배타적인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는 배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1)</sup> 민족·민족주의는 서구 근대자본주의의 유일한 산물이 아니라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각자의 민족주의의 성격이 달라져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는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등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리하여 국제친선과 협동으로 민족주의를 발휘해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신민족주의는 당시 민족사 서술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민족주의사가 손진태는 민족문제야말로 조선사에 있어 근본적인 중대성을 가지는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전제군주시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족사상 및 민족주의는 진정한 민족주의가 아니었다고 규정하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민족 전체의 균등한 행복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며, “민족 전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균등한 의무와 권리와 지위와 생활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민족국가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요, 민족의 친화와 단결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sup>72)</sup>고 하였다. 다시말해 민족의 균등성의

71)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확립과 민주적 과제의 해결을 신민족주의의 내용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민족주의적 입장에 입각하여 조선사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민족문화 일반에 대한 신민족주의적 견해는 문화에 대한 계급적 이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과거의 조선문화의 주류가 비록 귀족중심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피지배민중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귀족계급만의 문화가 아니라, 민중과 귀족계급과의 연관 위에서 조성된 문화라는 점에서 민족적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sup>73)</sup> 민족은 한 계급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두 계급으로 구성된 까닭에 민족문화가 민족적으로 보아 이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문화는 계급문화라기 보다는 민족문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4)</sup> 이러한 사관에 입각하여 그는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 분열을 초래하고, 민족의 내쟁은 필연적으로 민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길을 피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민족균등이 실현되면 계급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고 보았다.<sup>75)</sup> 진정한 민족의 번영은 민족 내부의 반목과 투쟁에 있지 않고, 민

72) 孫晉泰, 「韓國民族史概論」 “自敍” (1948. 1) (『한국문화총서』, 제11권 서울: 을유문화사, 1983).

73) 위의 책, “自敍”.

74) 위의 책, “自敍”.

75) 위의 책, “自敍”.

족의 전체적 조화와 단결에 있음을 역설하는 가운데,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은 길다”고 선언했다.<sup>76)</sup>

그리하여 손진태는 민족의 단합만이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의 길이며, 민족문화의 세계적 발전과 기여도 이러한 민족단합을 통해서만 이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신민족주의의 가치를 내걸었다. 나아가 민족의 균등,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민족의 단결을 역설한 손진태는 백남운을 가리켜 봉건적 사관을 깨뜨린 선구자였다고 평하면서도, 그가 피지배계급의 발전에만 열중한 나머지 민족의 발전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 (2) 계급협조주의

신민주주의의 건국이념으로 안재홍은 ‘균형경제, 平權정치, 대중공생’의 원칙을 제시했다.<sup>77)</sup> 이는 중도우파적 입장에서 계급독재의 부인과 全民的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향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도는 중산계급인 중소지주 및 중소기업가 계급과 노동자·농민이 서로 협조하여 민족통합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선은 곧 계급협조주의를 강조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좌우합작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각 계층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모든

76) 위의 책, “自敘”.

77)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및 “국민당선언” (선언문: 1945.9.25)  
참조

세력을 합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걸맞는 것이라고 하여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총의를 묶는 일이 선결문제임을 호소했다.<sup>78)</sup>

그는 좌우합작의 당위성을 무엇보다 우리 역사에서 찾았다. 우리 역사에서 왕조혁명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회조직이 뒤집히는 사회혁명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봉건적 자본주의적’인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철저히 몰락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총체적인 몰락을 통해 비로소 완벽한 사회혁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일제의 강폭한 폭압정치와 결과 경제적 균등사회가 만들어져 정치균등과 문화균등의 객관적인 토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는 자연 소멸상태에 이르고 말았음을 강조하는 것과 아울러, 지배계급은 도덕적 반성과 지성적 판단을 통해 근로대중의 반열에 내려올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민족단일의 우애로써 결성된 만민평권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 극좌·극우와 계급독재를 배척한 좌우합작을 통해 대중공생·만민공화하는 신민주주의의 민족국가를 건설할 것을 호소했던 것이다.<sup>79)</sup>

한편 중도좌파적 입장에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조선적 이해에 대한 공통적 요소를 발견하고자 했던 백남운은 연합성

78) 안재홍, “좌우합작의 정치적 의의” (서울중앙방송 : 1946년 7월 17일), 『민세안재홍전집2』, pp. 129~133.

79) 안재홍, “민족위기 타개의 일로 - 좌우합작의 정치노선” (서울중앙방송: 1946년 7월 19일), 『민세안재홍전집2』, pp. 134~138.

신민주주의론을 제시했다. 그는 “연합성 신민주주의의 정치형태로서 아직도 혁명성인 유산자는 자금을, 인텔리는 지식을, 과학자는 기술을, 무산자는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건국을 위한 연합활동을 하자고 제창하는 동시에 민주경제를 수립할 만한 연합민주정권을 구성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고 하여 권력구조면에서 신민족주의의와 유사한 초계급적인 입장을 표명했다.<sup>80)</sup> 이러한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이념적 지표를 제공이 아닌 민족문제에 두고 있는 점에서, 연합성 민주주의론은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한국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백남운의 연합성 신민주주의 정치형태에 대한 주장이 최근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함을 역설하는 가운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튼튼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할 것을 주장했다.<sup>81)</sup> 이러한 입장은 연합성 신민주주의론과 우연적인

80) 백남운, “조선민족의 진로” (1947년 5월 8일부터 21일까지 12회에 걸쳐 연재).

81) 김일성,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계급지상주의의 한계와 해방정국의 민족화합노선의 역사적 정당성을 재발견하는 계기로서 이해된다.

계급협조주의인 신민족주의와 좌우합작운동<sup>82)</sup>은 비록 정치적 迷兒로 역사의 뒤켠에 내팽겨쳐지고 말았다 하더라도 그것의 의의는 재음미될 필요가 있다. 신민족주의의 의의는 식민지시대의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사상적 계승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좌우합작운동이 분단을 막고 분단시대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운동이었다면 신민족주의론은 좌우이념의 극복을 지향한 통일국가 수립의 민족주의 이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83)</sup>

신민족주의는 계급이 해소된 민족개념에 바탕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적 자유와 평등이 관철되는 민족주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민족간의 평등에 기초한 민족주의 이념은 식민지시대에 저항의 논리로 나타났다면, 해방 직후에는 한반도를

82) 좌우합작운동을 후원하고 있던 미군정청의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본주의 14%, 공산주의 7%, 사회주의 70% (모른다 8%)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일반여론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길로서 중도노선을 바라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동아일보』, 1946년 8월 13일자 (『자료대한민국사』, 3권, p. 105)

83) 신민주주의의 원형을 복고적이고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고대사의 '다사리'주의에서 찾음으로써 고대사를 중시한 식민지시대의 민족주의와 접맥되고 있다. 민족적 특수성론에 근거한 신민족주의는 경제개발과 근대화를 추진하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계승되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박한용, "한국근현대의 민족이론과 민족주의론," 『한국사』, 24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 - 2) (서울: 한길사, 1994) 참조.

들러싼 국제정세 속에서 민족자주 및 국제친선의 논리로 부각되었다. 신민족주의의 골격인 세계적 민족관·민족적 세계관은 당시 해방정국의 현실인식과 관련하여 계급해소와 민족자존을 지향하는 실천적 이론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분단시대의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표로서 설정될 수 있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심이 요망된다. 또한 최근 국제화·세계화라는 담론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신민족주의의 개념과 지향성 속에서 민족주의적 구호의 무정형성<sup>84)</sup>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 (1) 국가와 민족의 일체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이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자본가계층이 미약한 가운데 국가와 대지주 및 신흥자본가계층과의 연합을 통해 형성되는 민족주의로 전체주의적이고 유기체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크게 두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중 하나는 서구민족주의의 발전도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의 파

84) 국제화·세계화와 관련하여 한국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 '밖을 향한 민족주의' 또는 '진출적 민족주의'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국적 귀결인 파시즘과 나찌즘의 팽창적 민족주의로 나타났다면,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주변부를 점하고 있는 후발산업국에서 나타나는 중상주의적·발전론적 민족주의로 나타났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B. 앤더슨이 말하는 ‘관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sup>85</sup>)로 불리기도 한다. 그에 의하면 ‘관주도 민족주의’는 후발산업국가에서 과거 팽창주의적 열강의 민족주의 모형을 의식적으로 모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민족으로 상상된 공동체의 세계적 전개에 위협을 느낀 지배계층이나 지도인물이 있는 국가들은 ‘관주도 민족주의’의 모형을 따른다고 한다. 어쨌든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정치적 독립과 함께 정통성 문제가 선차적인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 시기에 ‘국민’ 또는 ‘민족’이 어떻게 정의되든 그것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것이 정통성 문제를 푸는 데 가장 간편하다는 점에서 익히 알려진 방법이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분단구조가 심화되고 적대논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1공화국 시대에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문제와 연관하여 민족은 반공의 범주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었고 북한 공산주의 집단은 민족범주에서 배제되었다. 해방공간에서의 좌·우파의 이념적 갈등이 민족주의적 언술 속에서

85) 앤더슨은 ‘관주도 민족주의’의 반동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B.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ch. 6.

전개되었던 경험과, 반공을 보루로 세워진 외삼국가의 대외종속성<sup>86)</sup>은 반독재의 논리보다 민족주의적 이념을 더욱 위협한 것으로 여겼다.

민주주의적 외형과 권위주의적 실제 사이의 대립에서 발생한 「4·19혁명」에 의해 통일지향적 ‘민족’이 부활되는 계기가 나타났다. 「4·19혁명」에서 학생세력의 통일에 관한 언술과 접근방식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이고 개방적이었고 이들의 ‘민족’은 반공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나,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반공노선의 기반 위에서 무력통일론인 북진통일론의 허구를 비판하고 평화통일론을 제창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적인 민족주의를 천명한 진보당의 입장에 처음으로 나타났다.<sup>87)</sup> 제2공화국 때 혁신계가 부르짖은 자주 및 자립경제 그리고 민족통일의 논리에는 반보수와 반미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sup>88)</sup>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으로 반공체제에서 존재이유를 찾는 군부집단이 병영을 이탈하여 시민사회를 점령함으로써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86) 진덕규, “미군정시대 정치의 시민사회적 함의에 대하여,”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합동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1991. 4.

87) “민족이 살고 민주주의 토대위에서 모든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세상, 즉 완전한 통일된 민주주의적 자주국가를 세우자는 것이 우리들의 영원인 것이니...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총집결하여 통일행동체를 구성함으로써 공산당과의 대결에서 이겨 내자는 것이다” 조봉암, 「우리의 당면과업」 (서울: 혁신문예사, 1954), pp. 73~74.

88) Sung-joo Han, *The Fail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한편 군부집단 내부에 「4·19혁명」과 혁신계의 탈상과 큰 차이가 없는 민족주의적 이념에 동조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른바 ‘민족적 민주주의’가 표방되었다. 이 노선은 곧 국내 보수야당으로부터 이념논쟁과 함께 미국측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자 스스로 철회되고 말았다. 이러한 정치적 에피소드는 분단구조 아래서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민족 및 민족주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89)</sup>

정통성과 효율성의 두 축은 민족국가의 통치의 기반이다. 군부정권은 정통성과 효율성 가운데 하나만을 택해야 했다. 근대화 와 경제개발은 정통성의 문제를 상쇄시켜주는 대안적 가치로 부각되면서, ‘선건설·후통일’론이 제창되었다. 이리하여 경제발전이 지상명제로 설정되자 국민대중은 다시 집단의식적 존재인 ‘민족’으로 불리워지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민족’을 산업

89) 문화방송 사장 황용주의 논문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월간세대』, 1964년 11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다시 말하면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된 독립정부를 가지려고 하는 민족 전체의 염원을 담고 있다...국내민중의 민족주의체제의 성숙아래 강대한 민족주의적 정권을 수립하는 것만이 유일한 통일정부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 글의 필자는 박정희정권의 입장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군사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이론화했으나 미국측과 보수야당의 비판에 부딪혀 수난을 당했다. 이 필화사건으로 민족적 민주주의는 금기시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상우, “박정희 후보와 사상논쟁,” 『정경문화』 (1984년 10월호); 송건호, “60·70년대의 통일논의,” 『한국민족주의론Ⅱ』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화의 동력으로 전제하고, 산업화 주도세력은 스스로 경제이념을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확신하면서 '위로부터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주창하고 나섰다. '민족중흥', '조국근대화' 등의 구호가 이념적 차원으로까지 승화되었고 '민족경제의 타개' 및 '자주경제의 확립' 등이 국가목표로 설정되었다.

근대화 추진세력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족사적 위치와 과제를 강조하는 것과 아울러<sup>90)</sup> 지도자 스스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개인을 일체화시키려고 시도했다.<sup>91)</sup> 이러한 현상은 후발산업국의 민족주의는 국가의 이익과 지도자 자신을 스스로 일치시키는 '메시아콤플렉스'와 유사한 정신적 기제가 강화됨으로써 마침내 민주주의로부터 이탈되고 마는 사례를 연구한 R. 에머슨의 분석을 상기시키기도 한다.<sup>92)</sup> 이후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논리는 전체 속에 개인을 매몰시키는 국가유기체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90) 「5.16」 쿠데타를 “동학농민혁명, 3·1 민족독립선언,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관통해 흐르는 한가닥 민족사의 巨流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함을 주장했다. 박정희, 「우리 민족이 나갈길」 (서울: 동서출판사, 1962), pp. 118~119.

91) 군사정권 초기 박정희 자신의 생각과 발표된 글들을 수록한, 「국가와 민족과 나」 (서울: 向文社, 1963)는 책표지명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와 민족과 지도자 개인이 일체화되고 있다.

92) Rupert Emerson, “The Erosion of Democracy in the New States,” *From Empire To Nation, The Rise of Self Assertion of Asian and African Peoples* (Boston: Beacon Press, 1980).

나를 확대한 것이 즉 우리 국가다. 우리 민족이라고 할 때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나를 확대한 대아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며,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크게 다지면 내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sup>93)</sup>

개인의 확대가 곧 국가와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충성과 근대화와 짝지워진 민족주의운동의 개인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추상개념을 이해가능한 현실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지도자상을 부각시켰다. “나의 고심은 패배의식을 불식하고 다시 주체의식, 자립의식, 자부심을 되찾아 주는가에 있다...민족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국력을 조직적으로 훈련하여 저력을 개발한다면, 민족의 발전은 회복되고 민족중흥의 새 전기는 창조될 수 있을 것”<sup>94)</sup>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발전의지를 심으려는 노력은 지도자의 도덕적 이상으로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sup>95)</sup> 그러나 국력의 조직화는 곧 안정과 질서의 강조로 이어지고, 민족중흥은 투철한 반공의식을 바탕으로 총력안보와 국민총화를

93) 박정희, 「연두기자회견」 (1970년 1월 9일).

94) 박정희, 「민족의 저력」 (1971년).

95) 박정희는 중국의 손문혁명, 일본의 명치유신, 터키의 케말 파시스혁명, 이집트의 나세르혁명 등을 “민족의 재기와 발전을 위한 거룩한 혁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가와 혁명과 나」, p. 196). 나세르의 민족주의가 민중의 지지를 받은 반식민주의에 그 본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세르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의 개인적 역할이나 지도자의 사명감 등에 확신을 갖게 된다.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게 되는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민족관념은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해도 같은 말, 같은 역사 그리고 하나의 피로 이어져 온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이데올로기는 변해도 민족은 영원하다. 하루속히 한민족으로서의 자아를 회복하고 북녘 땅에 민족의 양심이 소생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는 데 과감하여야 한다”<sup>96)</sup>고 촉구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지향적 민족의식의 강화보다는 반공·반북의식에 기반한 민족정통성의 선언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고 민족사관의 확립을 주장하는 역사해석을 시도하는 가운데 역사상 지도적 인물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키기도 했다. 또한 전통시대의 충효사상을 부각시켜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과 순응논리를 체계화시켰다.<sup>97)</sup> 국가주의적·관주도 민족주의가 주창되는 단계에는 흔히 지식인의 계몽적·선도적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지식인은 자유주의적 이상과 가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의지 보다는 국가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논리를 중시하면서 국가목표를 합리화하고 노력했으며, 그들 스스로 정치지도자와 동일한 인식패턴을 나타내기도 했다.<sup>98)</sup>

96) “광복절기념사” (1978년 8월 15일).

97) 박정희의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로는 이우영, 「박정희통치이념의 지식사회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p. 167~180.

## (2) 발전전략과 민족주의

분단시대 민족주의의 한 형태인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특징은 그것이 국민통합과 동원의 논리로 기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화와 근대화론에 접맥된 민족주의의 일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의 강렬한 반제외식과 서구에 대한 투쟁적 민족주의와는 다르다. 한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규정력이 관대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신생국가의 반제민족주의와 성격을 달리하는 배경이 된다.<sup>99)</sup>

미국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신식민지적 착취의 대상으로 편입된 것이라기 보다는 중심부의 정치적 관심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압도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경우 신식민지국가에 대한 중심부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해방후 미국의 농지개혁에 대한 진보적 정책과 군사 및 경제원조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적용 등으로 인해 반제·반미 이념은 쉽사리 확산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심부국가에 대한 우

98) 라이샤워는 "교육받은 아시아인들 대부분은 그들이 지도자가 되리라는 사실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 O. Reichauer, *Wanted: An Asian Policy* (N.Y.: Alfred A. Knopf, 1955), p. 165.

99) Bruce Cumings, "Power and Plenty in Northeast Asia: The Evolution of U. S. Policy," *World Policy Journal*, vol. 5, no. 1 (Winter 1987~88).

호적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였다. 여기서 미·일 - 일본에 대한 민족감정에도 불구하고 - 중심의 세계분업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외세에 대한 저항보다는 종속적 위치를 선택·자임하면서 발전우위의 전략을 아무런 저항없이 선택할 수 있었다.<sup>100)</sup>

그후 산업구조의 심화와 그에 따라 거대한 산업노동자군이 창출됨으로써 심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수반되자, 계획합리성을 강조한 개발노선은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이에 고도의 강권력을 동반한 안정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해외자본의 적극유치를 통한 고도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군부엘리트와 민간관료들 축으로 국제자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상층자본가와 민간테크노크라트간의 동맹을 통해 민중부문을 배제하고 억압하면서 민주주의적 가치체계를 한층 왜곡시키고 유보하였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최고도의 효율성을 지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과 함께 안정·질서·화합을 고도성장의 가치에 접목시켜 새로운 정통성의 기초로 삼았다. 이것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국가안보와 공리주의적 경제발전의 논리로 대체한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이전의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립축을 공정한 분배와 발전주의의 축으로 전환시키는 것

100) 남북한의 사회발전전략을 '주체'와 '모방'의 발전전략으로 접근한 연구는, 김병로, "남북한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비교,"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서울: 한울, 1994).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sup>101)</sup>

그러나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심화와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는 오히려 그동안 권력분점에서 배제되었던 세력들의 거센 반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피지배계급의 정치적 동원이 조직화되는 길을 원천적 봉쇄하기 위해 극도로 억압적인 권위주의체제인 유신체제를 성립시켰던 것이다. 이 결과 주기적이 선거,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간의 제한적 허용, 언론의 자유, 지식인의 비판 등과 같은 형식적이고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틀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국면이 나타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는 깨어지게 되었다. 이는 반공과 반통일의 논리에 기반한 발전논리의 한계를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했으며, 반민주주의적이고 억압적·배제적인 ‘위로부터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통일과 민주화를 지향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민족주의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근대화논리의 종속적·반민족적 성격에 대한 강한 비판<sup>102)</sup>과는 다른 입장에서, 산업화의 성공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어느정도 유보하게 하는 해석들도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경제적 민족주의로

101) 최장집, “한국 정치균열의 구조와 전개,”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1993).

102) 이대근, “한·일 경제관계의 기본성격과 그 실태,” 「한국민족주의론Ⅱ」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정윤형,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 (이산 조기준박사 고회기념논문집, 1988).

이해되는 한 무조건 비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G. 뮈르달은 서방의 부유한 국가들에 대응하여 사회적 통일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저개발국들에서는 자극제로서 민족주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변호했다.<sup>103)</sup>

후발산업국가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독점적 대기업 중심의 개발전략을 선택하여 국가 및 관료기구의 통제하에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104)</sup> 따라서 후발산업국가일수록 국가의 경제개입을 중시하게 되며, 중상주의적 경향을 띤 국가주도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국부를 곧 국력으로 여기게 된다. 중상주의는 국제경제관계를 경쟁적이면 제로섬관계로 인식하는 점에서, 국제경제관계에서 개방적이고 상호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자유무역주의와 대조된다. 또한 중상주의는 국제무역수지의 흑자를 중시하면서, 국부증대를 위해 무역정책 뿐만 아니라 생산, 고용, 재정, 금융 정책 일반에까지 정부간섭과 개입을 정당화한다. 후발산업국가의 중상주의 정책은 보호무역주로 나타나면서, 독일의 산업화 과정에 자유무역주의를 비판한 F.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주장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민족주의가 고무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103) Gunnar Myrdal, "Economic Nationalism in the Undeveloped Countries," *Beyond The Welfare State: Economic Planning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 ch. 12.

104)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p. 31~51.

D. 쟁하스는 F. 리스트의 이론적 체계 위에서 국제분업체제에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의 압력을 이겨내면서 이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의 면에서 리스트적인 문제들 즉, 대외경제적 조건에 부응하는 '자기중심적'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sup>105)</sup> 그는 유럽 밖의 주변부 사회의 발전정책을 종속적인 재생산의 구조적 결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발전논의에서 주장되는 것과는 달리,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과 필요한 경우에는 더 발전된 사회와의 엄격한 선택적 협력을 택하는 '단절적' 발전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신흥공업국들의 추격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한국과 대만을 들었다.<sup>106)</sup>

경제적 민족주의는 국가의 기술합리성을 강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형성적 또는 시장지배적인 개발국가로 역할을 자임했던 것이다.<sup>107)</sup> 그러나 국가가 시장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개입국가전략이 주변부국가에서 성공한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I. 왈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적

105) Dieter Senghaas, 한상진·유팔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서울: 나남, 1990), pp. 25~41.

106) 위의 책, 제4장 참조.

107) 임현진·김병국,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국가·자본·노동관계의 한국적 현실," 「사상」 (서울: 사회과학원, 1991 겨울).

시각에 따르면, 주변부국가는 '기회포착전략', '초청에 의한 상승전략'(Promotion by Invitation) 및 '자립전략'의 3가지 전략에 의해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내의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상승할 수 있는 데, 한국의 경우는 '초청에 의한 상승전략'에 의해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로 꼽힌다.<sup>108)</sup> 기회포착전략은 세계경제의 수축시 수입대체산업을 채택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국가들에 해당한다. 이 국가들은 1930년대 공황으로 중남미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압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수입대체산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중주의적 민족주의의 등장을 보게되었다. 이와 달리 '초청에 의한 상승전략'은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팽창기에 중심부 자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그들의 초청에 의해 지위상승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1960년대에 이르러 신국제분업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 국제자본은 노동비용이 싼 지역인 주변부에 원료와 중간재를 공급하여 조립한 후 다시 중심부로 수입하는 형태의 국제분업질서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신국제분업질서의 출현으로 국제자본과 주변부와의 협력에 의해서 세계시장을 위한 상품생산이 주변부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양질의 노

108) Immanuel Wallestein, *Dependence in an Interdependent World: The Limited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with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김성국, "세계체제와 한국의 정치경제," 박현채 외, 「한국사회의 재인식」 (서울: 한울, 1984).

동력이 풍부한 한국, 대만 등이 후보지로 선택되어 국가와 국제자본과의 연계에 의해 산업화를 추진한 전략을 말한다.<sup>109)</sup>

이와 달리 북한, 쿠바, 탄자니아 등은 사회주의 발전전략에 입각하여 자력갱생의 길을 모색했다. 그런데 민중주의적 민족주의 전략과 자력갱생전략을 택하는 경우 반제국주의적 성격과 더불어 민중동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발전전략과 연관된 민족주의에 관한 남미에서와 같이 민중부문이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로 부상될 수 없었다. 이런 까닭에 한국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는 ‘민족의식’, ‘민족주체성’ 등의 다양한 민족주의적 담론이 보편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실체가 정치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볼 때,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국가’ 속에 ‘민족’을 매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족은 발전논리에 입각한 국가목표의 대상이자 객체에 불과했던 측면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산업화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크게 강조된 발전전략은 초기의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의의 문제와 합리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한계점을 노정했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산업화의 성공의 배면에 권력집중에 의한 권위주의적 질서의 공고화를 동반했으며 또한 뚜렷한 반민주적 성격과 함께 신국제분업체계에 의한 중

109) 임혁백,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관관계,” 『시장·국가·민주주의』 (서울: 나남, 1994).

속적 발전의 외세의존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분단시대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를 새롭게 부각시키게 되었다.

#### 다. 민족민주운동과 민중민족주의

##### (1) 민주화와 민족문제

국가주도적 개발전략에 따른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국가와 자본과의 동맹관계는 효율적인 축적을 위해 민중부문에 대한 배제와 억압을 구조화했으나 성공적인 산업화와 권위주의적 억압체제간의 배리는 마침내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게 했으며, 이를 계기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이론적·실천적인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80년대에 들어서 남북한 갈등과 대결의 분단체제 아래서 민주화 달성과 민족문제의 해결방법을 둘러싸고 해방공간에서 나타났던 좌·우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압축적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경험했다. 여기서는 이 시기 민족문제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의 이념과 이론적 기초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급격한 사회변화가 초래된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는 아카데미즘의 학문영역 뿐만 아니라 비제도권의 사회운동영역에서도 함께 제기되면서 상호 교호적인 관계를 통해 논쟁적으로 전개되었다. 사회운동의 이념적 기반은 '60년대의 소시민적 민주화운동의 단계와 '70년대의 포퓰리즘적 민중운동의 단계를 넘어 한국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지향하는 혁명적 민중운동의 방향으로 진전되었다.<sup>110)</sup> 이러한 변혁운동의 이론적 기초로는 먼저 소시민적 사회관과 낭만적 운동관에 머물고 있었던 시민민주혁명론(CDR)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노동계급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삼아야 한다는 민중민주혁명론(PDR)과 민족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민족민주혁명론(NDR)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회운동의 계급적 기초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자본주의화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계급적 구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확산되었다. 사회운동을 변혁운동으로 여기면서 일차적으로 그 계급적 기초와 계급해방적인 변혁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성격논쟁 또는 사회구성체논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민주화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인식은 자유주의적 시각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적인 시각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사회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국가독점자본주

110) 조희연,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서울: 죽산, 1989), p. 14.

의 규정의 적용을 주장한 입장과<sup>111)</sup>, 한국사회의 주변부적 특수성 및 그에 대응하는 별도의 인식적 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sup>112)</sup>이 나란히 제기되어 관심을 끌었다. '80년대 초기에 수용되었던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제기되면서, 자본주의의 고전적 발전경로가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된 논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론적 갈래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논쟁의 우열을 가늠하는 문제는 누가 더 마르크스주의적 인식과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을 체현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 있었다. 이 시기의 민주화는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발전경로에 대한 총체적 극복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 계급적 시각의 중요성이 주장되었다.

## (2) 민족해방론과 민중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적 인식과 방법론의 수용이 강조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배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어 갔다.<sup>113)</sup> 이러한 입장은 제3세계변혁론 일반과 동

111) 박현채,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둘러싼 종속이론 비판," 「창작과 비평」 (부정기간행물, 1985).

112) 이대근, "한국자본주의 성격에 관하여 -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부쳐," 「창작과 비평」 (부정기간행물, 1985).

113) 반미운동은 '80년 10월 광주미문화원 방화사건, '82년 3월 부산미문화

구에서의 ‘인민민주주의변혁론’ 그리고 한국의 좌익운동사와 북한의 통일론 및 혁명론 등을 수용·연구한 바탕 위에서, 서구의 혁명론과는 다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으로 정립된다. 이는 반파쇼민주화운동의 한계를 반외세자주화와 조국통일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과 함께 한국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적 지배에 의해 규정된다는 입장에서, 반외세자주화의 중심축 위에서 민주화와 통일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민족해방론’적 노선이 대세를 이루게 됨으로써 일반론적인 계급지상주의는 후퇴하게 되었고 민족해방운동으로서 한국사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것이다. 여기서 반외세자주화 및 민족해방론과 관련된 민중민족주의가 대두했던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남한사회만을 독자적인 단위로 놓고 자본주의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반편’의 시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의 즉, ‘민족전체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는 곧 ‘반국적’ 시각이 아닌 ‘일국 전체적’ 시각의 당위성을 환기시키는 주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남한사회는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미해방된 지역이고, 북한은 그 지배로부터 벗

---

원 방화사건 그리고 '85년 5월 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등과 '86년 초의 '반전반핵', '팀스피리트반대', '양키용병교육반대' 등의 학생운동으로 나타났다.

어난 '민주기지'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제국주의적 식민지적 지배가 가져온 반동적 결과는, 아무리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해도 민족분열이 고정화되고 통일 민족의 형성이 저지되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반이 축소·파괴되고 예측성만 심화된다면, '반봉건'의 청산을 운위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한국사회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했다. 이 논리는 한국사회 변혁의 성격을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론과 다르다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기본대립관계를 미국대 한국민중으로 파악하고 강한 반미의식을 나타냈던 것이다.<sup>114)</sup>

민족해방론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화와 통일문제는 반의세자주화의 실현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국주의적 지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사상 및 실천의 영역에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했다. 바로 여기서 모색된 대안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식민지 종속형사회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한 것으로 주장된 '주체사상'이었다. 이 시기의 변혁운동이 주체사상과 결합됨으로써 실천적 차원에서는 반의세자주화운동으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될 수 있었으나,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론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명의 여지가 없었다.

'80년대 '민주변혁'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

114) 정민,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론," 「사회와 사상」, 제3호 (서울: 한길사, 1988.11).

유주의적 인식들이 마르크스주의적 인식들로 대체되는 단계를 거쳐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을 민족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대두하게 되자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급격한 단절과 전환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의 배경으로 '80년대 후반의 사회주의중주국인 구소련의 사회주의 이념의 포기과 그에 따른 동구사회주의제국의 이탈과 자본주의로의 회귀는 한국사회의 민주변혁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에 한국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지향한 입장에서는 한국사회의 근본모순은 계급모순이라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적 규정력에 의한 민족모순과 분단체제 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분단이야말로 모든 모순의 응집체로 인식되면서 통일운동론으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분단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그것의 재생산구조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반영되면서 민족문제의 해결과 통일주체의 문제에서 민중적 시각을 다양하게 제시하기도 했다.

민중민족주의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내재적 모순과 분단모순을 통일적으로 파악한 민족해방론의 이론적 배경 위에서 등장했다. 민중민족주의는 총체적 사회변혁론의 한계가 역사적으로 검증된 시점에 있어서도 한국사회에 미치는 외재적 규정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확인시켜 주는 이념적 지표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아래로부터

의' 민중적 시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중민족주의는 계급환원론적 시각을 극복하고 민족범주의 재구성을 위한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를 단순히 반제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과도한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세계사적 전환기에 대안적 이념으로 발전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 제Ⅳ장 한국민족주의의 성격 및 과제

### 1. 한국민족주의 성격

한국의 민족형성과 함께 한국민족주의는 그것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강렬한 민족주의적 신화, 꿈, 열정 등에도 불구하고 민족단위와 독립적 정치단위를 일치시키고자 한 민족주의의 이념과 운동은 현재도 미완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외부적 충격에 따른 민족주의의 발생으로부터 해방과 분단을 전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민족국가의 수립에 대한 좌절과 그에 따른 저항적 민족주의의 발흥과 함께 식민지 민족해방노선으로서의 반제민족주의 등은 한국민족주의의 토양이었다. 이와 더불어 해방벽두에 '계급에 앞선 민족'을 통해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민족국가 수립론을 주장한 신 민족주의론에서나 발전전략에 접맥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변혁의 논리 속에서 전개된 민중민족주의 등으로부터 한국민족주의의 풍부한 자산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민족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한국 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이해한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을, 해방과 분단을 전후하여 민족주의와 관련된 과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방

전단계의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적 성격으로 문화민족주의와 문화민족주의에 결부된 공동체적 성격을 밝혀보는 작업과 함께 해방 전후 단계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민족주의의 성격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국민족주의의 당면한 과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 가. 문화민족주의 및 공동체적 결속력

한국민족은 민족형성의 과정과 관련하여 볼 때, 장구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 문화체제와 역사를 꾸려왔다는 점에서 H. 왓슨이 말하는 ‘정치적 민족’(political nation)과 ‘문화적 민족’(cultural nation)이 일치하고 있다.<sup>1)</sup> 이런 점에서 한국민족은 강한 ‘국가성’과 뚜렷한 ‘민족성’을 동시에 지녀왔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한국의 민족형성의 특성은 강한 문화민족주의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F. 마이네케가 구분한 ‘문화민족(Kulturnation)’ - ‘국가민족(Staatsnation)’이라는 개념과 선택적 친화력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이네케가 말하는 ‘문화민족’이란 문화, 언어, 전통, 풍속 등의 문화적인 공동체협의 소유에

1) Hugh Seton-Watson, *Nations & States - An enquiry into the origin of nations and the politics of nationalism* (London: Methuen, 1977), p. 4.

입각한 공동체의식은 있으나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또한 ‘문화민족’은 민족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가 일치하는 영국, 프랑스의 ‘국가민족’의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문화민족의 개념은 아직 식물적이며 비인격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초기 단계와 민족이 스스로를 하나의 커다란 인격으로서 또한 커다란 역사적 통일체로서 느끼려는 자각적인 의지가 눈을 뜨는 후기 단계로 나누어진다. 마이네케가 주목한 것은 바로 문화민족의 후기에 속하는 단계로, 이 단계로부터 점차 현실적인 국가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신사적인 차원에서 파악하였던 것이다.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진 문화민족의 식물적인 단계에서 점차 의도적인 국가민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고자 하는 ‘민족에의 의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sup>2)</sup>

그러나 그후 독일의 문화민족론은 복고적·낭만적·비합리적 요소에 토대를 둔 이른바 ‘민족정신’(Volksgeist)에 호소하면서 마침내 국가민족의 형성단계를 넘어서게 되자 독일민족주의는 곧 초민족적인 인류보편의 가치관과 세계주의적 이상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선민의식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을 경험했다. 이에 비해 한국민족주의는 민족형성 과정에서 중시된 ‘문화민족’적 성격을 바탕으로 내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외적 차

2) Friedrich Meinecke, *Weltbürgertum und Nationalstaat* (Berlin: 1911), ss. 1~21.

별성을 부각시켰으나, 독일의 경우와 같은 문화민족주의의 반인륜적이고 선민의식이 강조된 것과는 전혀 무관한 성격이었다. 뿐만 아니라 근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치와 전통의 결합 형태를 띤 범이슬람주의로 표방되는 폐쇄적 민족주의로 발현되지도 않았다.<sup>3)</sup>

한국의 문화민족주의는 공통의 언어, 혈연, 지역, 문화, 전통 등에 의해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관리하는 정치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체의식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민족주의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역사적·자연발생사적으로 결정되는 즉, 비선택적 운명공동체라는 점에서 공동체적 遺制가, 또는 산업화 단계에서는 공동체의식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온존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되어왔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시대에 와서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간극과 이질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나, 그러한 간극과 이질화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보다 심층적인 민족문화와 객관적인 민족적 징표에 의해 열려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문화민족주의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더욱이 이러한 문화민족주의의 참된 구현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통일에의 의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sup>4)</sup>

3) 황병덕, “통일조국의 이념,” 『통일문제연구』, 제5권 3호 (서울: 통일원, 1993 가을), p. 99.

4) 한인계 혈통을 지닌 세계 모든 지역의 인민을 공통의 문화, 사회적 기

한편 한국민족주의는 민족의 내부적 결속력을 공고히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측면에서 민족공동체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인은 외부적 충격에 의한 근대적 자각이 생성된 시기로부터 전통사회와의 급격한 단절을 통한 산업사회단계에 들어와서도, 우리사회를 운명공동체로 인식하는 전통적 관념이 오래동안 존속해왔던 것이다.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민족도 운명적 관계를 통해 결속된 공동체로 인식해왔다. 공동체적 관념은 물론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통해 재생산되어왔던 측면도 있다. 그리고 산업화가 어느정도 진전된 단계에서도 식민지시대에 일제에 의한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생산관계의 봉건적 유제가 그대로 온존된 상태에서 한국사회의 봉건적·반봉건적 요소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부분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구식 개인주의나 공리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전통사회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이 상당기간 유지됨으로써 공동체적 관념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개인적 이해관계와 기능적 다원화와 가치관의 분화에 따른 갈등구조의 복잡화는 공동체적 신화가

---

반 위에서 결합시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결성하는 사상 내지 운동으로 'Pan-Korean Community 범한공동체(대한공동체)·범한민족주의·범한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구종서, "팬코리아니즘과 민족통일," 및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와 비전: 팩스 코리아나," 「격변하는 세계 도전하는 한국 - 21세기 세계질서와 한국민족주의」 (서울: 나남, 1994) 참조.

지닌 한계를 여지없이 노출시키고 있다. 이념적 차원의 남북분단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갈등적인 노사관계나 지역감정 등에 의해 공동체적 결속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민족주의가 민족국가의 구성원들 사이의 실질적인 차별과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상상된 공동체'로 인식하게끔 하는 이념적 기제라고 한다면, '상상된 공동체'의 내적 구조는 '수평적 동료의식'으로 결속될 필요가 있다. '수평적 동료의식'에 기반한 민족주의는 단지 하나의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시키는 기능을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구조, 가치, 사회조직의 성격 등 그 사회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앞 장에서 검토한 동학사상이나 그후의 민중사상에 함축된 수평적이고 평등지향적인 가치는 분열적이고 이기적인 심성을 억제하고 공동체의 논리와 윤리를 재발견할 수 있는 이념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전통사상의 고유한 가치가 貶下되어온 분위기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sup>5)</sup> 우리사회에서 갈등통합의 원리를 민족주의에서 찾고자 한다면,<sup>6)</sup> 수평적-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민족주의야말로 새로운 삶의 그물로 지역간·세대간·계층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5) 김지하, "개벽과 생명운동," "지기(至氣)," 「생명」(서울: 솔, 1992) 참조.

6) 박종철, "한국민족주의의 특성과 통일이념으로서의 과제,"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나. 반외세의 논리와 한계

아시아의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3중의 혁명'을 꾀어야 했다. 아시아의 민족주의 혁명은 외세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 여기에는 서구문명 즉, 백인의 멸시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한 혁명이었다. 그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요, 국내의 지배계급에 대한 사회경제적 저항일 뿐만 아니라 서양에 대한 동양의 인종적 특히 문화적 저항의 성격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한국민족주의의 특성인 민족적 자주성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반외세지향성은 아시아 민족주의의 일반적 유형의 전형적인 형태가 된다.

흔히 한국민족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한국민족주의의 역사 속에 각인된 강한 반외세지향성과 반외세의 궁극적 목표로서 한국민족의 독자적 정치단위의 수립에 대한 즐기찬 노력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반외세의 논리는 19세기 이래 서구 세력으로부터 규정받은 비유럽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주의 일반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에 反하는 민족주의'로 출발한 한국민족주의의 내재적 성격을 말해준다. 비록 그것은 我와 非我, 강자와 약자, 해방과 자유, 식민지와 제국주의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극복하지 못한 논리이며, 미래를 향한 창조적 가치를 기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민족단위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의지는 민족주의가 생명력을 지니는 한 보편적인 가치를 함축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반외세 자주의 논리는 민족국가의 상호 평등성과 민족 단위의 정치적 자결권을 주창하는 민족자결의 원리로서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민족문제의 세계사적 의의를 보여주고 있다.<sup>7)</sup>

그러나 한국민족주의의 역사적 성격의 한 측면으로 정치적 자주성을 지향하는 반외세의 논리는 민족적 자존의 회복과 '역사적 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킨 점에서 반외세 논리의 의의를 긍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우리의 인식구조 속에 뿌리내린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자존적 폐쇄성은 개방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며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주의와 배치될 우려가 크다.<sup>8)</sup> 반외세의 논리는 밖을 향한 개방의식에 반한다는 점에서 강한 결속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족주의의 미래지향성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한편 반외세 저항의 논리와 관련하여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반외세논리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면, 북한의 주체사상은 어느 면에서 '전투적 민족주의'라고 말해질 수 있다. '80년대 후반이래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부응한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으로 제시된 '우리식 사회

7) Charles Tilly, "National Self-Determination as a Problem for All of Us," *Daedalus*, vol. 122, no. 3 (Summer 1993).

8) 이홍구, "세계화로 향한 의식개혁의 과제," 「사상」 (서울: 사회과학원, 1993 겨울호) 참조.

주의'는 외부사조를 차단하고 사상교양강화를 통해 사회적 통제와 폐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민족주의는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이념으로 이해되고 있다.<sup>9)</sup> 이 시기에 민족적 자주성에 대한 강렬한 의지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함께 등장한 '조선(우리)민족제일주의론'에도 반영되었다.<sup>10)</sup> 민족주의의 이러한 변용은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로의 이행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고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에 불과한 측면도 있다.

북한은 민족주의라는 담론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위배되는 부르조아지의 가치체계라고 비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소간 해계모니갈등에서 정치적 자주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을 얻어내고 또한 대외관계에서 외세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통해 '민족주의적' 행태를 보였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및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보듯이 민족주의적 담론을 체계화 하면서,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민족의 영예와 자랑을 온 세상에 더 깊이

9) 서재진, "주체사상과 민족주의의 관계,"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개원2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3. 4. 8), pp. 74~83.

10) 김정일,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근로자』 (1987.7), p. 11;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떨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sup>11)</sup> 할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밖으로는 단절과 배타적인 폐쇄성을 드러내면서 안으로는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을 통한 전인민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19세기 말엽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저항적 민족주의의 원형으로 나타났던 斥邪論의 반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형태와 마찬가지로 ‘우리식 사회주의’ 및 ‘조선민족제일주의’는 한국민족주의의 역사적 특성의 한 측면인 반외세의 논리가 현상황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맹목적으로 반영된 형태로 이해된다. 북한에서 주장되는 민족주의가 개방성과 상호의존성이 높아가는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열린 의식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족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통해 사회주의를 대체하는 체제이념의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민족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함께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비록 왜곡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사적 정통성을 고양하기 위한 민족사 재해석 작업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의 올바른 방향정립과 더불어 북한의 민족주의의 합리적 변화를 유도하여 상호 지양과 조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11) 김일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공지와 자부심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기본해,” 「철학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2), p. 2.

## 2.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 가. 평화통일의 이념 및 「민족공동체」

한국민족주의는 분단극복과 통일의 논리보다는 자유주의의 수호 또는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세계주의 혹은 국제주의가 우선시되는 냉전체제 속에서 지금까지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민족주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통일의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로는 민족통일 및 민족의 발전과 관련되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그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그리고 인류 내지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통용력을 지닌 사상적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이다.<sup>12)</sup>

분단체제하에서 남북한은 모두 민족주의적 담론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왔으나 민족주의적 담론은 언제나 상징체계나 통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남북한을 공통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한국민족주의의 기본적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국가의 창출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주체사상의 배타적·폐쇄적 민족주의 그리고 반미·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이제 한국민족주의의 뚜렷한 존재이유를 외재적인 투쟁목표에

12) 최상룡, “한국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 「한국민족주의의 이념」 (서울: 아세아정책연구원, 1977) 참조.

서 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민족주의 목표설정을 위해서는 민족내부의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한반도에 미치는 외재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을 목표로 삼지 않는 한국 민족주의는 공허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민족주의의 기본목표는 물론 평화적 방법에 의해 7천만 동포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의 실현에 두어져야 마땅하다. 폭력적이고 물리적 수단을 동반한 통일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 최선의 길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평화로운 분단상태가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 통일의 수단이나 통일 때문에 파괴되어서는 안될 보편적 가치로 뿌리내리고 있는 평화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sup>13)</sup> 우리사회에서 오래동안 반공·반북이데올로기가 수용되었던 까닭은 정부가 민족적 정통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쟁과 무력수단에 호소하여 분단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북한의 도발행위가 가져다준 민족적 참상을 기억하고 있는 한 최선이나 차선보다는 오히려 억압적 상황을 용인하는 정치문화를 배태시킬 수 밖에 없었던 데에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단체제 자체가 남북한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왜곡시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 할

13) 최상룡, “한국인의 의식에 나타난 정치적 평화,” 『평화연구』, 창간호 (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1) 참조.

때, 민족주의는 상호관용과 이해를 토대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념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민족주의의 극복대상으로 분단구조에 기생하는 남쪽의 기득권층과 분단수혜층을 지적할 수 있다면, 그와 함께 북쪽의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주체사상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서 한국민족주의의 주체설정의 문제는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sup>14)</sup> 흔히 한국민족주의의 주체세력으로 중산층을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념형에 부합되는 중산층을 발견하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있어 '위로부터의' 민족의 리더쉽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sup>15)</sup>

본래 민족과 같은 커다란 인간집단에 있어서는 집단의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족이란 그 본성에 있어 언제나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케 하는 것이거나 혹은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분'(pars pro toto)일 수 밖에 없다. 물론 민족보다 더 큰 무한대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민족주의의 목표가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의 이념으로 설정되거나 또는 국민통합의 논리가 되어야 한다면, 한국민족주의는 '아래로부터'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민족의 진운에 대해 미래지향

14)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그것의 주체와 관련하여 전근대의 귀족-민족, 근대의 부르조아-민족 및 민중-민족 등으로 구분된다.

15) 신복룡, "근대 한국 민족주의의 갈등구조," 「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구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논총 제7집; 서울: 평민사, 1990) 참조.

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계층의 역할을 기대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된다.

#### 나. 자유와 민주주의

민족주의는 이념적으로 좌익과 결합한 사회애국주의(social chauvinism)로부터 극우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북한의 민족주의가 계급적 연대를 강조하는 국제주의를 포기한채 국가체제에의 맹목적 순응을 요구하는 체제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다면, 자본주의적 개방체제 속에서 우리사회의 민족주의적 이념은 해체과정에 놓여있고 민족중심적 가치관은 점차 호소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한국민족주의는 북한의 왜곡된 형태의 민족주의와 우리사회의 민족주의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에 따른 민족주의 이념의 왜소화 현상의 양극단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국민족주의의 대안적 모색은 민족의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비판적 사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내적 논리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민족주의가 열린 사회의 自由型과는 달리 인간의 개성과 인격을 무시한채 계급적 고립주의와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닫힌 논리라면, 우리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관용 속에

서 협동을 지향하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무엇보다 자유주의체제와 짝지워져야 한다. 이를테면 민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천과정으로서 민주화와 깊은 연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민족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설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냉전체제의 와해 및 제3세계와 탈공산화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외연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전환기적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는 내포적 심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화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두 영역에 걸친 이중의 민주화가 역설되어왔다. 그러나 분화와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영토적 경계로 구분되는 민족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쟁점들이 민주화의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제한된 지리적 영역내에서 그리고 더 넓은 국제 공동체내에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초국적 사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가능성은 민주적 제도와 기구의 팽창적 틀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범세계적 모델’ (the cosmopolitan model of democracy)을 제안하는 주장도 있다.<sup>16)</sup> 이 주장에 따르면 민주화의 방향은 국

16) David Held, “Democracy: From City-States to a Cosmopolitan Order?” *Political Studies* (1992), XL, Special Issue, pp. 33~34.

가와 시민사회의 이중의 과제에 국제관계의 민주화가 덧붙여짐으로써 민주화는 이제 삼중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 된다.<sup>17)</sup>

요컨대 한국민족주의의 과제는 민주주의와 보편주의 등을 핵심내용으로 포괄하며, 이들 내용은 민족주의의 틀 내에서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한국민족주의가 매우 현대적이면서 합리적일 수 있고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와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 다. 통일민족주의와 「책임공동체」

분단체제가 고착화된 이래 남북한의 통일 노력은 강대국에 의해 강요된 명에를 민족주의를 통해 극복해 보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남북한의 현대사는 체제간 대립구조하에서 각기 이데올로기서의 體制觀과 통일지향적 민족주의와의 갈등 속에서 체제이데올로기를 우선시해온 역사와 함께 ‘민족주의의空洞化’<sup>18)</sup>

17) 민주화는 일정정도의 경제발전이 선행조건이 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권의주의적 형태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재고되었지만, 아직도 국가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급격히 비대해진 재벌과 고도성장의 수혜층은 민주화에 동참하기 보다는 노동계급을 배제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다.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를 민주주의 이념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화의 성취가 요망된다.

18) 김영작, “해방후 민족주의의 사상사적 갈등구조,” 「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구조」, (서울: 평민사, 1990) 참조.

현상을 초래했다. 분단국가체제가 형성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측이 제시한 통일방안은 상호 불신의 해소와 화해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및 이념적 측면에서 자신에 의한 타방의 흡수 또는 병합을 추구해온 점에서 상호 실제의 인정이 거부되어온 셈이다.

북한의 「연방제통일안」이나 우리측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론상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체제 및 이념의 극복을 위한 내용과 방향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양측의 체제가 수렴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렴론의 성공적인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우호적인 공존관계가 성숙되고 양자가 체제전환을 통해 고도의 '구조적 상용성'(structural compatibility)을 확보한다면 체제이질성으로 인한 분열성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나아가 이러한 상태에 다다르면 민족적 통합력이 보다 큰 힘으로 발휘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의 확보를 통해 남북한 사이에 일종의 공존형 통일형태의 모색이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상호 대립적인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 체제내부의 개혁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9) 우성대, "통일의 정치적 조건 - 연방제 통일론을 중심으로," 「탈냉전시대와 새로운 정치질서」(동국김하통박사정년기념논문집, 1994), p. 496.

바람직하다. 하나의 국가상태로 서둘러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보다는 세계적인 화합물결에 동참하여 해외동포와 더불어 남북한은 민족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화합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면에 걸쳐 民族共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단계라고 하겠다. 지금 우리 민족 앞에 제기된 과제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의 모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묵은 증오감을 극복하고 관용과 화해를 통해 동포애를 확인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단체제를 평화상태로 관리하면서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흔히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성을 초래하는 요소로는 혈연, 언어, 종교, 전통 및 관습 등 주로 민족적 구성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민족의 경우는 이와 달리 체제 및 이념이 분열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 민족적 동질성은 분명 뚜렷한 통합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앞 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남북한은 체제 및 이념의 차이와는 달리 민족적 동일성은 불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임이 충분히 밝혀졌다. 그러나 '민족적 동일성'은 계급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사회에서 동일한 본질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으로 '민족적 동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사회 내부의 계급적 갈등과 불균등성이 은폐되는 현상이 우려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최근 북한의 민족관의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족개념에

대한 계급론적 결정론을 극복해가면서 '민족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정치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주민이 모두 단군의 자손으로 이 땅에서 수천년을 함께 더불어 살아왔다는 단일민족의 일체감은 한국민족주의를 뒷받침하는 정신적 초석임에 틀림없다.

민족통일은 체제 및 이념을 하나로 묶는 국가통일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으로, 민족 내부 성원의 화합과 일체감을 지향하는 지난하고 지속적인 통합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통합한 독일통일을 결코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내적 통합의 공동과제 앞에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전제에서, '진실된 의지'와 '공동정신'을 강조하는 전 동독 총리인 드 메지에르의 호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독일통일은 동독의 서독에로의 편입과 더불어 완료되지는 않았다. 독일통일은 전 독일인들의 공동과제이며 계속 공동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독일통일은 形而下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행되어야 하는 공동정신의 문제이다. 통일은 댓가가 지불되어야 하며 또한 진실된 의지가 있어야 한다.<sup>20)</sup>

20) Lothar de Maiziere, "독일통일의 비판적 고찰," 케스터-하이슬러 재단 초청연설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11), pp. 23~24.

민족이라는 것이 단지 혈연과 언어 그리고 공통의 문화 및 역사에 불과한 것인가? 이러한 객관적 징표는 물론 남북한주민의 '민족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분단현실 앞에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 수 없다. 민족이란 이러한 집단적 정체성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갈등과 반목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음 세대에 더 이상 분단조국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다는 공동책임 속에서 묶어져야 한다. 요컨대 이제 한민족은 분단극복과 민족발전에 대한 「책임공동체」로서의 민족개념을 새롭게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제 V 장 세계화와 한국민족주의

### 1. 세계화와 민족국가

#### 가. 세계화의 개념과 본질

세계화와 민족국가의 장래에 관한 논의가 최근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환기적 세계질서 속에서 국제화·세계화·지구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념정립과 함께 이 개념들 상호간의 위상설정이 요망되고 있다.<sup>1)</sup> 국제화 및 세계화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모두 외국과의 관계나 거래의 비중이 더욱 증대되는 개방화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상태를 뜻한다. 개방화를 계기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사회는 더 이상 민족국가들만이 주체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

다국적·초국적기업과 유사-초국가적 기구 등의 출현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제 전통적인 국가중심적 인식론의 틀을 벗어나게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및 교통수단 등의 발달로 인해 국가와 지역간의 개방과 교류가 가속화됨으로써 어떠한 국가

1) 우리 정부의 '세계화' 구상은 '국제화·세계화·미래화'의 연속선 상에 있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세계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국력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세계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경쟁력 중심의 국제화보다 상위개념이다. 공보처, 「열린세계 열린미래」(1994년 12월).

나 지역도 고립되어 있거나 폐쇄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sup>2)</sup>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시장경제가 세계경제의 기초가 됨으로써 경제의 세계화는 곧 세계적 경쟁시대가 도래했음을 뜻한다. 국가간·지역간 교류에 따른 세계화는 국가, 기업의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sup>3)</sup>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상품, 자본, 기술, 정보, 문화, 인력 등 모든 부문의 자유로운 이동은 일정한 영토에 기반한 민족국가의 역할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이며, 그 결과 전통적인 '영토국가'의 성격도 점차 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는 때때로 '지구화' (globalization) - 사실 '서구적 지구화'의 한 과정으로서 - 현상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구화는 두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함축한다. 첫째,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의 공간적 영역이 전세계적 범위로 되었으며 둘째,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과 사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호연결의 수준이 한층 강화되었다.<sup>4)</sup>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정치는 종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2) Hedley Bull & Adam Watson, ed.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참조.

3) 군사적 갈등과는 달리 경제적 경쟁은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제로섬게임으로, 무한·무차별 (Borderless & Boundless) 경쟁과 함께 상호협력도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COMPETERATION' (Competition + Cooperation) 시대를 열어 놓았다.

4) Tony McGrew, "Conceptualizing global politics," in *Global Politics*

면서도, “상품과 자본의 흐름, 여행, 통신, 공중교통 그리고 인공위성 등에 의해 충만하고 초월된”<sup>5)</sup> 세계를 배경으로 하면서 우연성과 비결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화와 세계화는 물론 동일한 차원의 개념은 아니다. 양자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화는 경제·제도·문화·의식에 있어서 개별 민족국가의 영토성을 뛰어 넘는 국가간의 교류를 뜻한다. 국제화는 국가 사이의 인적·물적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및 문화 영역에 있어서까지 상호교류의 수준이 훨씬 높아진 상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제화의 주체는 국가와 기업단위로 사고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세계화는 현재 상호교류의 수준과 범위가 전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화라는 인식들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세계화는 국제화를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에서, 국가와 기업단위를 넘어 개개인의 삶의 수준에까지 확대하여 세계적 변화추세에 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화가 경쟁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세계화는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상호협력관계가 중시된다.

1(1)(D312), (The Open University, Milton Keynes, 1988), pp. 19~20.

5) Charles W. Kegley and Eugene R. Wittkopf,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1989), p. 511.

세계화는 국제화가 공간적 차원에서 전지구적 범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구화라는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민족국가의 개념이 한층 약해지면서 민족적 특징이나 차별성 보다 상호의존에 바탕을 둔 세계공통의 보편적 기준 및 가치 등이 앞서면서 개개인의 생활방식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의식구조의 영역에서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세계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의식구조와 세계에 대한 인식들을 바꿀 것이 요청되는 한편, 국가 및 기업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영역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화의 경우 경쟁과 국가중심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는데 비해, 세계화는 인류의 공존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부각된다.

국제화 및 세계화를 우리의 입장과 관련하여 보면, 국제화는 많은 민족과 국가가 공존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와 다른 나라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는 데에 초점을 둔 문제라면, 세계화는 우리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sup>6)</sup> 이를테면 국제화가 우리와 바깥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강조한 것이었다면, 세계화는 인류전체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생각하지 않

6) 이홍구, "국제화의 도전과 과제," 「국제화와 한국의 과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시리즈 94-1).

으면 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화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sup>7)</sup> 정책적 차원에서 국제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의 의식개혁과 제도 및 관행개선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면, 세계화구상은 국제화정책을 보다 근원적으로 다루어 보자는 것으로 경제 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국제화를 강도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로 강조되고 있다.

#### 나. 세계화와 대응논리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개별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개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다. 새로운 질서 역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힘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재 심화되고 있는 상호교류의 성격을 '상호의 존적'인 것으로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심부국가들에 의한 주변부·반주변부국가들에 대한 지배와 종속의 새로운 형태로 파악하는가에 따라 인식들이 달라지게 된다. 세계화의 추진력은 물론 경제적인 힘이다. 그러나 비록 경제가 장기적으로

7) 국제화·세계화·지구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도 변화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인 요청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변화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근본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집중토론: 내가 생각하는 국제화, 세계화," 「창작과 비평」, (1994 여름) 참조.

정치와 문화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와 정치 및 문화와의 충돌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된다.<sup>8)</sup> 세계화에 대한 개별 민족국가의 경제적 대응은 그 자체가 특정한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는다. 이와 동시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민족문화가 세계화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계화과정에서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문제는 고사하고 오히려 민족문화 자체의 존립가능성마저 회의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 긍정적 전망

세계화를 확산과 수렴 그리고 통합의 지속적인 순환과정으로 바라볼 경우, 그것은 미국·EU·일본의 세계 3대경제권의 경제적 혁신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러한 확산에 대하여 정치적, 문화적 적응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입장은 세계화의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수렴과 혁신의 확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더 나은 경제적 결과에 부응하는 정치조직과 이데올로기는 살아남는 반면,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조직과 이데올로기는 사라지는 것이 역사적 필연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호

8) Marvin Harris, *Cultural Materialism : The Struggle for a Science of Culture* (New York: Random House, 1979) 참조.

주의가 철폐되고 자유무역이 완전하게 구현되는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세계 3대경제권에서는 공산품의 산출량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국민소득은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장기적으로 거스릴 수 없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선의 순환'(virtuous cycle)이라고까지 주장한다.<sup>9)</sup>

정보·통신 혁명과 생산기술의 혁신 그리고 이러한 혁명적 혁신의 수렴 및 통합을 통한 급속한 확산은 세계화를 가속화시킨다. 신속한 확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화의 견인차는 물론 다국적·초국적 기업이다.<sup>10)</sup> 기업 수준에서 자본, 인력, 기술 및 정보 등의 흐름이 국경을 넘어 진행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제적 통합현상이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면서, EU·NAFTA·APEC 등의 지역주의 또는 블록화 경향과 선진7개국 정상회담(G7)이나 UR 협상 등은 폐쇄적이 아닌 개방적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세계는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전망은 미국·EU·일본 등의 중심부 세계에만 한정된다는 사실과 다양한 계층이 모두 세계화의 수혜층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

9) Mckinsey 세계연구보고서, "왜 세계화여야 하는가," 「사상」 (서울: 사회과학연구원, 1993 겨울호), pp. 106~107.

10) Kenichi Ohmae, *The Borderless World* (New York: Harper Business, 1990) 참조.

11) 박형준, "21세기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21세기프론티어」 (서울: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길벗, 1994), pp. 22~33.

하고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세계화에 대한 장미빛 전망의 근거로 국가주의의 퇴조와 함께 지방화시대의 도래를 예찬한다. 국가주의의 퇴조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정치적 억압의 근원이었던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고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글로칼리제이션(globalization: global localization)의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정치의 현지화와 분권화를 촉진하게 되어 관료화된 중앙집권적 정치행태로부터 지방적 개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화시대를 꽃피우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2)</sup>

## (2) 부정적 전망

세계화 추세 속에서 '선의 순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열려있지 않다. 기술 및 생산력의 혁신과 확산 그에 따른 상호수렴을 통한 더 많은 혁신과 전파는 3대경제권에만 한정될 것이며, 이들 지역 내의 경제적·정치적 및 문화적 연계와 상호의존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화는 기업가, 노동자, 농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강요한다. 경쟁은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 부문,

12) "범세계적으로 생각하되 지방적으로 행동하라" 또는 "지방적으로 생각하되 범세계적으로 행동하라"는 구호가 글로칼리제이션 시대의 정신으로 강조된다.

사회집단 및 개인 차원에 있어서까지 승자와 패자로 갈라놓는다. 따라서 세계화의 물결은 국가간, 지역간, 부문간, 계층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및 문화적 보호주의가 세계화 추세를 거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에 상당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경계선없는 세계’, ‘국경없는 세계’ 등으로 주장되는 논리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시켜 접근하면서 그것의 실체를 비판하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M. 미요시는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NIEs)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 수많은 옛식민지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식민주의로부터 초국적주의로 전환에 따른 주변부 민족국가의 쇠퇴현상을 역설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제국주의국가가 식민지를 수탈했다면, 지금은 다국적·초국적기업이 주변부국가 수탈의 주범이다. 이른바 ‘국경없는 세계’의 주인은 다국적·초국적기업으로 주변부 민족국가는 인류의 진보와 무관한 존재인 초국적기업에게 완전히 먹혀버린 상태에서 민족국가의 공동체적 결집력은 허울 뿐인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계선없는 세계’, ‘국경없는 세계’라는 담론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에 불과한 식민주의의 본질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상적 차별보다 본질적 불변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sup>13)</sup> 이러한 비판과 동일한 맥락에서

13) Masao Miyoshi, "A Borderless World? : From Colonization to

국제화·세계화 논의는 성장과 경제개발 및 자유무역의 논리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려는 다국적·초국적기업과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지배·종속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sup>14)</sup>

글로벌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의 이동은 더욱 유동적으로 되었다. 국제적인 기업활동은 정보·통신체계에 있어서 국가의 수준을 능가하기 때문에 국가의 비효율적 정보망과 관리체제로 기업활동을 규제·통제하는 상황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기술·표준·규격·지적소유권·정보·지식 등의 우열적 경쟁을 통해 소득과 정보 및 지식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는 경제에 예속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인민주권의 문제는 법률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업가주권이 작동할 수 있다. 다국적·초국적기업의 활동과 영향력은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의 통제범위를 벗어남으로써 무한경쟁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층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긴장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 선택범위는 점차 협소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

Transnationalism and the Decline of the Nation-State," *Critical Inquiry* (Summer 1993).

14) 김진균, "세계화' 패러다임과 한국," 「경제와 사회」, 제22호 (1994 여름).

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sup>15)</sup>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화는 선택적 대안이 아니다.<sup>16)</sup> 세계화는 우리에게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추세에 어떻게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창조적 극복의 논리가 과제일 뿐이다.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해가는 힘과 논리는 선진강대국의 정치경제학적 변화과정 속에서 나온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선진강대국들의 세계전략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 속에 개별국가가 처한 지정학적 조건이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 및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대응전략이 달라지게 된다.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통적 민족국가의 성격을 변질시키는 논리가 세계화의 핵심적 기저라면, 21세기의 한국민족주의는 이제 세계사의 피동적으로 선택당한 역사에서 주체적·자율적 선택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화의 추세에 비춰 민족국가의 장래에 대한 의문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이상인 보편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으나 특수공동체로서

15) 세계화와 민족국가의 관계를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상호규정적 관계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는 절충론적인 제안으로는, 정진영,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장래," 『경제와사회』, 제23호 (94년 겨울호) 참조.

16) 성경룡, "국민국가의 장래와 정당정치 의 향방," 김재한 편, 『정당구도론』 (서울: 나남, 1994), p. 259.

민족공동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무책임한 논리일 것이다.<sup>17)</sup> 세계화는 모든 부문에서 동질성을 지향한 통합의 과정은 결코 아니며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간의 새로운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동질성에 기반한 보편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족공동체의 의의를 폄하시키는 논리는 아직 이르다고 하겠다. 여기서 세계화와 한국민족주의의 정립이라는 과제가 다시금 요청받게 된다. 민족국가가 국민경제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경제적 민족주의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문제와 아울러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방향정립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민족주의의 문제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세계화와 한국민족주의 정립방향

### 가. 문화민족주의

문화민족주의는 언어, 전통, 예술, 민속 등의 분야에 걸쳐 특정 민족의 역사적 삶의 방식과 형태 속에서 그 표현을 찾을 수 있다. 문화적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체 성원 개개인이 민족정

17) 김성배, "지구화시대의 민족주의," 「탈근대 지구정치학」 (서울: 나남, 1993), p. 393.

체성의 가치와 상징체계에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지나게 되는 의미의 체계이다. 특정 민족공동체의 가치와 상징체계를 강조하는 문화적 민족주의는 흔히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는 보편주의와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또는 지역에 따라 문화는 세계화 속에서 단순히 동질화의 과정으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방어적인 저항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도 한다. 그런데 보편주의는 또한 서구문화의 가치와 형식 등의 기준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그것에 대한 광범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계문화가 '문화적 다원주의'를 의미하는 한,<sup>18)</sup> 문화적 민족주의로 표현되는 문화적 개성은 긍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민족주의의 정립방향의 한 축인 문화적 민족주의는 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분단현실에 대한 비정치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경우, 문화적 민족주의는 상호 정치적·이념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의 의의를 강조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

18) '문화적 다원주의'라는 개념은 세계체제의 분화에 대한 서구적인 이해 방식으로 탈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서구적 경험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서구중심적 헤게모니가 해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계질서와 문화적 수직체계가 강제적으로 관철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Jonathan Friedman, "Being in the World :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Theory, Culture & Society* vol. 7(1990), pp. 311~328.

제화·세계화가 자본주의적 상품논리와 맞물려 민족 고유의 역사나 문화의 독자적인 존립가능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sup>19)</sup> 문화적 민족주의를 통해 남북한의 정치적·이념적 차별성을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세계화와 함께 한국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과정 속에서 민족공동체 형성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문화와 관련하여 우선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양태를 일원화시키고 있는 '보편적 문화'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sup>20)</sup> 흔히 보편성은 세계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통용되는 문화 혹은 가치를 말하고, 고유성은 특정 사회, 특정 민족에게만 수용되고 통용되는 문화 혹은 가치를 말한다. 보편성은 그 시대의 지배적 가치 혹은 主流文化를 일컫는다. 그러나 보편성의 기반은 서구적 보편주의에 두고 있다.<sup>21)</sup> 따라서

19) 민족문화와 관련하여 “국제화는 서구 산업문명의 인류적 공유화이자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지구화이며, 정신적 허탈과 심리적 불안정의 세계화”로 정의하는 입장이 있다. 염무웅, “국제화시대의 민족문화,” 「역사비평」 (1994 겨울), p. 57.

20) 월러스타인은 보편적 문화로 지칭되는 '지구문화' (global culture)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그것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규정했다. Immanuel Wallerstein, “Culture as the Ideological Battleground of Modern World System”.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통해 '지구문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한 논쟁으로, Mike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A Theory, Culture & Society* (1990 특집호) special issue: SAGE Publications, 1992) 참조.

21) Edward W. Said, *Orientalism* (1979),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

‘보편적 문화’는 사실 서구·미국문화의 세계적 현상일 뿐이다. 이를 제국주의의 세계적 착취와 관련하여 문화적 지배의 필수 불가결성을 주장하면서 문화에 대한 지배-종속관계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파악하는 입장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문화제국주의의 주요한 방향은 문화상품 판매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목표와 함께 대중의식에 영향을 미쳐 헤게모니를 확립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 문화식민주의의 새로운 양상들로는 단순히 엘리트층만을 전향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대중을 공략하는 방향을 취하면서, 그 범위가 전세계적이며 그 영향은 균질화하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특징이 있다. 또한 보편주의를 가장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상징·목표·이익 등을 신비화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집단적 대응을 마비시키기 위해 문화제국주의는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하거나 그러한 정체성으로부터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내용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나아가 공동체의 연대를 깨버리기 위해 문화제국주의는 민족 외부의 상징들과의 일치를 의미하는 이른바 ‘현대성의 숭배’ (the cult of *modernity*)를 고무한다. 이를테면 ‘개인성’의 이름으로 사회적 유대를 공격함으로써 개별 인성은 매체의 메시지가 명령하는 데에 따라서 재형성되어 나타나도록 한다. 특히 제3세계 전체에 걸쳐, 서방세계의 지원을 받는 지식인들은 ‘콘세르타시온’(concertacion) 즉, 계급협조라는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이 제국주의 대신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제국주의는 대중매체를 통해 또는 간접적으로는 피억압민족의 지식인 계급 및 정치적 계급의 포획을 통해 피억압민족의 의식의 내면을 정복하는 데까지 이른다.<sup>22)</sup>

문화제국주의와 민족문화와의 상충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식민지 담론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H. 바바의 지구촌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이 분야에 대해 또다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문화와 문화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현대사회에 남아있는 제국주의적 잔재를 프로이트의 고정관념화(Stereotyping), 물신숭배(Fetishism)의 개념에 기초하여 매혹과 멸시의 이중성으로 파악하면서 식민지 담론에 의해 지배받는 피지배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sup>23)</sup>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피지배자들의 대응은 겉으로는 무력으로 주어진 새로운 정체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외적 권위에 자기방어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전하는 풍자적 흉내로, 바로 이러한 '흉내'(Mimicry) 또는 모방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저항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흉내와 모방 형식을 통한 문화수용을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하나의 대응전략으로 파악하는 논

22) James Petras, "Cultural Imperialism in the Late 20th Centur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3-2 (1993).

23)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pp. 66~84.

리는 지구촌의 거대한 흐름을 인위적인 쪽으로 막아 놓아봤자, 보호하고자 하는 고유문화의 힘이 얼마나 키워지겠는가 하는 회의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침투하는 문화를 방어하려는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그것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지배문화의 언어와 형태를 갖추어서 그들의 담론 속에서 그 문화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나아가 경제적인 힘이 동등하지 않을 때, 고유문화의 고수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고유문화를 조롱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존적인 국수주의의 한계는 비판적으로 극복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H. 바바는 한 사회의 문화체계와 맞서려면 그 사회의 담론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아이러니컬한 타협을 주장한다.<sup>24)</sup>

그렇다면 문화적 차원에서 ‘국제화’ 및 ‘세계화’ 라는 구호는 모든 민족문화의 歐美化를 획책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은폐하는 담론체계에 불과한 것인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제국주의·식민지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비록 자기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제공해주는 논리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이론적 한계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한계는 곧 대안적 모색의 가능성을 무척 협애화시키는 데에 있다. 우리 사회는 단순히 제국주의 새로운 종속형태로만 파악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래적인 토착문화는 급속도

24) 위의 책, p. 85.

로 와해되고 소멸되는 상태에서, 세계인식의 코드를 서구인의 사이클에 맞출 것을 강력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민족문화의 고유한 영역의 존립가능성과 개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새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문화적 민족주의와 국제화·세계화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영역 또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문화의 자본주의화 내지 세계화 곧 歐美化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종속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문화의 '자율적 공간'이나 '비시장적 영역'을 확보해 나갈 방도를 찾는 길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산업주의에 포섭되지 않는 문화장르들의 재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문화영역에서 산업화되지 못할 분야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할 수 없는 분야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sup>25)</sup> 이와 더불어 문화를 새로운 측면에서 즉, 문화형성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sup>26)</sup>

어느 면에서 우리의 근대문화의 전과정을 이식된 서구적 가치체계와 형식을 민족적인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현 단계의 문화제국주의적 성격을 '민족문화'의 내용과 형식 속에 어떻게 융해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민족문화와 '보편문화'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설정되기 위해서

25) 염무웅, “국제화시대'의 민족문화”.

26) 강명구, “국제화와 문화적 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제22권 제2호 (1994 여름).

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적 삶의 방식 및 가치관 가운데 계승할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한 민족문화 전반에 대한 自矜心을 불러일으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 통신,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이제 文化的 正體性은 단순히 ‘우리/남’의 이원적인 대립구도로 파악할 수는 없다. 이렇듯 까닭에 고유한 민족문화나 민족적 정체성을 찾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할지 모르나, 민족과 민족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성원들의 정서적 일체감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자신의 의미와 ‘위신’<sup>27)</sup>을 높여줄 수 있을 때 보다 공고한 공동체로 상상될 수 있을 것이다. 외래문화의 무차별적인 수용은 문화외형을 키우는데 기여했지만 문화의 외부지향성과 일방적 전파는 우리 사회의 自我同一性을 상실케 하고 공동체적 삶의 내면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했던 것이다. 한국민족주의가 한편으로는 민족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지구적 문화의 다양성 안에서 고유한 민족문화의 가치를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다양한 부문에서의 문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7) Liah Greenfeld, “Transcending the Nation’s Worth,” *Daedalus* (Summer 1993).

## 나. 공동체의식과 '열린 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의 과제가 정치적 차원에서는 분단극복과 통일 지향에 있다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관련은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민족주의의 문제의식은 세계자본주의체제와 관련하여 민족경제의 범주설정의 문제와 더불어 민족공동체의 내부구성의 논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새로운 세계질서 하에서 국제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는 이념이나 군사력 보다는 경제가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신국제경제질서 아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가는 점차 국민경제를 기획할 수 힘과 대외개방 압력에 대한 보호막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선진자본주의체제에 유리한 자유무역체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재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환경문제와 연관된 그린라운드(GR)와 저임금체제나 노동조건을 문제삼는 블루라운드(BR) 등을 통해 주변부·반주변부 민족경제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의 이념이 전지구적 범위에서 관철되고 있는 개방체제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역사적 정합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체제는 비록 강대국 중심논리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의 '민족적' 범주를 허용하지 않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려

는 입장 보다는 대내적으로 경제정의의 확립에 기반한 민족주의의 구현이라는 방향에 관심의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 변화의 특징적인 유형을 지적하면, 무엇보다 변화의 급진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변화의 급진성은 외부세계의 변화를 통제할 수 없었고 따라가기에만 급급했던 사정에도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 관심부문과 비관심부문, 성장부문과 정체부문, 체제영역과 체제외적 영역 사이의 대칭성·양극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 다른 특징적 유형으로 변화의 급진성으로 인한 비균질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우리 사회에서는 “명분과 논리의 균형, 균질, 평등, 조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현장과 실천의 전개는 항상 불균형, 비균질적” 이었다.<sup>28)</sup> 이런 불균형과 비균질적 변화의 유형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내부의 항상적 갈등구조를 배태시킨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한국민족주의의 정립방향과 관련하여 볼 경우,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민주화는 21세기를 내다보는 세계화시대에 한층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의 민주화는 균형과 형평의 논리가 강조되고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경제제도를 핵심내용으로

28) 김진현, “21세기의 한국민족주의,” 「세계화시대와 한국민족주의」, (조선일보 창간 74주년 심포지엄, 1994년 3월 2일).

한다.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내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성원과 공동체 간의 결속을 평등한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사회통합의 원칙을 그 중심에 담는다. 민주화는 자유를 최선의 가치로 추구하면서, 자유와 이 자유를 중심축으로 재정의된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체제의 구현에 궁극적인 목표를 지닌다. 이 경우 공동체 내부구성 성격과 관련하여 사회의 기본계층의 염원과 바람직한 사회체제에 대한 지향성의 향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sup>29)</sup>

사적소유권과 공적영역과의 마찰과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양자의 우열관계는 사회적·역사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지만, 우리사회에서 토지소유의 문제는 사회적 긴장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관건적인 문제일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그것의 추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단과 생활공간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독과점과 배타적 행사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토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공적 관념의 확보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민주화의 결실이라는 성격이 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의 근본정신을 부정하고 사적 소유권의 원리를 사회정의의 원칙적 측면보다 우위에 두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29) 최근 바람직한 경제체제에 대한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조사한 결과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도(37%)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 노동자 정치의식연구Ⅱ」(서울: 한국노총, 1994. 8) 참조.

이 우려된다.<sup>30)</sup> 이 결과 앞으로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공익개념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쟁력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장주의의 논리에 따라 모든 국영기업과 공기업 등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논리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은 사회전체적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민영화를 통한 개별기업수준의 효율성과 사회전체적 효율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영화의 부정적 측면은 국토의 공익성을 훼손시키고 자원의 왜곡된 배분과 특혜에 의한 관리권의 확보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다 무차별적·무제한적 경쟁논리는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고용구조를 한층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形骸化시키는 결과를 수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심화되면 선진자본주의사회의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상징분석가들'이며 '창조적 전문가들'<sup>31)</sup>인 엘리트계층의 경제적 결집을 정당화하는 배타적이고 특권을 지닌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사회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공동체의 해체현상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30)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공시 제157호 (1994년 7월 29일 선고결정), 「관보」, 제12792호 (1994. 8.17).

31) Robert B. Reich, *The Work of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91), pp. 268~281.

서 엘리트계층에 의한 배타적·독점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구조적 차별성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상상된 공동체'라는 신화가 실제로 허구로 인식될 경우 단일민족의식에 기반한 민족주의의 내부결속력과 국민통합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의 개혁과 민주화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화·세계화를 위해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구실로 '시장의 신화'에 매몰되어 '복지없는 시장주의'를 강조할 경우 생산성의 효율적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가경쟁력은 개개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노동윤리의 확립과 노동의욕의 고취를 통해 사회적 생산성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한국민족주의의 정립방향과 관련하여 민주화의 과제는 자유시장논리가 사회정의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자유시장주의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탈락되는 엄청난 실업자와 소외계층을 양산시키게 됨으로써 계층간의 갈등의 심화, 반사회적인 범죄의 만연, 치열한 경쟁논리에 따른 인간상호간의 불신과 증오를 증폭시키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동체적 결속력을 와해시켜 그에 따라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상품·시장·경쟁논리에 대항

32)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예산이 GNP의 1%를 밑돌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서구선진사회의 복지병을 우려하는 논리는 시기상조에 불과하다.

하여 최소한의 복지논리가 국가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지 않는 한 시장적 인간형만 양산되어 공동체의 의미는 상실되고 말것이다.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되도록 작은 정부가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런 정부는 부유한 사람, 자산가의 입장에 서기 쉽다. 따라서 작은 정부의 논리를 수정·보완하는 대안적 모색이 필요하며, 공동체성원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조건 축소될 수만 없고 공공선을 위한 시장에서의 개입과 자원배분의 합리적 통제, 복지수준의 향상과 공공영역의 확보의 차원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역할은 더욱 요망되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국제화·세계화 추세 속에서 한편으로는 문화적 차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와 관련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한국민족주의의 방향정립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는 사회성원 개개인의 '수평적인 동료의식' 속에서 동질적이고 정서적인 만족감이 보장될 때 비로소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민족주의의 성패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높은 수준의 형평성에 기반한 물질적 조건의 확립과 민주화의 지속적인 실천이라는 과제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이와 더불어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정체성이 확보될 때 참된 공동체로서 '상상되고' 그 결과 세계를 향한 '열린 민족주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VI장 결론

민족단위로 구성된 '영토국가'는 근대정치사의 가장 중요한 정치단위였다. 이러한 근대 민족국가도 부족국가, 봉건국가, 제국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기에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정치조직 구조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불변한 실체라고 볼 수는 없다.

21세기의 문턱에 이르러 근대라 불리우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근대사의 중요한 흐름을 이루었던 유럽의 팽창, 백인의 정복, 제국주의와 식민지, 자유주의와 휴머니즘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도시문명과 부르조아문화 등은 모두 민족을 단위로 하는 영토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정한 영토에 기반한 민족국가는 20세기 세계질서의 기본단위가 되었지만, 현 단계를 넘어서는 탈근대 세계화 과정의 진전은 민족국가 자체를 사라지게 하거나 적어도 민족국가의 위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족국가의 발상지인 유럽은 이제 민족국가의 소멸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민족국가의 장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냉전체제의 와해에 따라 민족중심의 국가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분출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활발한 통합

현상과 상반되는 분화현상은 초강국의 헤게모니적 통제력이 사라진 힘의 공백에 따른 약소민족의 정치적 독립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 다시 한번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냉전 이후의 세계는 미국 중심의 단일 군사질서 수립, 세계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성립, 민주주의의 지구화 등과 함께 내셔널리즘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의 진전과정과 탈냉전의 세계질서 형성과정 속에서 민족국가의 성격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민족국가의 존립가능성과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족은 아직 민족단위의 근대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 동일민족과 분단체제는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국민’이라는 존재양태로 드러난다. 민족적 일체감과 서로 다른 이념 및 체제간의 괴리는 한민족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정신적 갈등상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와해는 한반도에서 체제대결의 논리 대신에 민족의식과 민족주의 논리를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탈냉전 이후 신세계질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세계화의 조류는 한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시도하도록 하는 면도 있다.

한국민족주의는 민족문제와 평화통일의 과제가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한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의 이념적 자원으로 재발견될 수 있다. 나아가 세계 속의 한민족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민족공동체 내부구성원의 논리와 가치를 발견하는 데에 한국민족주의의 의의를 강조할 수 있다.

한국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동시에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병행했다. 그리하여 다음의 세 측면에서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한국민족은 누구인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과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오늘날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민족적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국민족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을 추론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를 설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민족주의의 전망과 함께 한국민족주의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본고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하는 수준에서 개략적인 정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민족운동의 이념인 민족주의에 대한 본격적 접근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민족이론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민족개념과 민족형성론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성과를 분석하면서 민족이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을 선행한 까닭은 한국민족의 개념 및 한국민족의 형성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사적인 맥락에서 민족이론에 대한 예비적 고찰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족’이라는 용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내이션’은 서구에서는 근대 이후에 나타난 인간집단의 결속형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내이션’ 즉, 민족의 발생 및 형성은 근대 이전시기로 소급할 필요가 없으며, 근대 이전의 인간집단의 결속형태에 대한 문제는 민족 및 민족주의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 이른바 ‘근대주의’의 주장이다. 민족형성의 문제에 관한 한 대개 근대주의적 입장이 다수를 이룬다.

근대주의는 민족을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실체라는 점에서, 전근대와 단절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집단의 결속형태의 연속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족이 비록 근대적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전근대의 인간집단과 근대적 민족을 서로 전혀 상관없는 무매개적인 관계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의 종족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種族共同體(ethnic community)’라 할 수 있는 ‘에스니(ethnie)’ 즉, ‘族’을 민족연구의 지표로 삼을 경우, 민족의 발생 및 형성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근대적 민족과 전근대적 공동체 사이의 단절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개념의 발견이 가

능해진다. 따라서 근대적 '민족' 개념과 전근대적 공동체를 포괄하는 '族' 개념으로 한국민족의 실체를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문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근대설과 전근대설 가운데, 절충적 입장이 없지 않으나, 대개 서구의 민족이론에 접맥된 근대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근대설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랜 시기동안 공동의 역사생활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적 특수성을 간과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한국민족은 서구 다민족사회에서 중시되는 민족에의 귀속의식과 같은 주관적 요소와는 달리, 혈연·언어·역사·신화 등의 객관적 징표가 한국민족의 주된 지표임을 밝혔다. 이처럼 한국민족 형성의 근대설을 거부하고 또한 민족의 객관적 징표를 강조함으로써 남북한 주민의 민족적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민족주의는 평화통일 및 「민족공동체」 형성의 이념적 지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이 상호 대립적인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제 내부의 개혁작업을 선행하여 구조적 상용성을 확보한 바탕 위에서, 상호 분열성을 완화하고 민족적 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와 관련된 한국민족주의의 정립방향을 살

펴보았다. 현단계의 전환기적 세계질서 속에서 위계질서의 상충부를 이루는 중심부 국가들의 경우 질서가 유지되고 번영이 보장되고 있지만 주변부 민족국가의 장래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세계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세계화와 한국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우리사회 내부의 성격과 구성논리에 대한 관심이 요망되는 단계라 할 것이다. 예컨대 성장과 경제지상주의의 신화는 형평성, 복지, 환경, 인권 등 민주주의 원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약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우기 최근 우리보다 못한 나라와 민족들을 무시하는 경향은 세계로 향한 한국민족주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민족주의는 개개인의 '수평적인 동료의식' 속에서 결집될 때, 참된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통한 한국민족주의의 방향정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민주화를 통해 우리사회 성원 모두의 높은 수준의 물질적 형평성과 기회균등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사회 내부의 변화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민족주의가

여러 민족국가의 공생하려면 다민족 시민사회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국경을 넘은 시민사회(다민족 시민사회)'의 존재에도 주목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만길 편. 「신채호」.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 구종서. 「격변하는 세계 도전하는 한국: 21세기 세계질서와 한국민족주의」. 서울: 나남, 1994.
-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 김지하. 「생명」. 서울: 솔, 1992.
-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II)」. 서울: 죽산, 1989.
- .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둘러싼 종속이론 비판」. 서울: 창작과 비평, 1985.
-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서울: 까치, 1989.
-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 이광수. 「민족개조론」. 서울: 우신사, 1981.
- 이균영. 「신간회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3.
- 이대근. 「한국자본주의 성격에 관하여 -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부쳐」. 서울: 창작과 비평, 1985.

- 이정식. 「한국민족주의의 운동사」, 서울: 미래사, 1982.
- 임지현 엮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서울: 한겨레, 1986.
- 기든스, A. 진덕규 역. 「민족국가와 폭력」. 서울: 삼지원, 1991.
- 싸이드, E. W.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1991.
- 쟁아스, D. 한상진·유팔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서울: 나눔, 1990.
- 코징, A. 김영수 옮김. 「사적 유물론적 민족이론」. 서울: 아침, 1989.
- 크로포트킨, P. 이을호 역. 「현대과학과 아나키즘」. 서울: 현대사상사, 1973.
- 털리 C. 이향순 옮김.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서울: 학문과사상사, 1994.
- Amin, Samir. *Unequal Development: An Essay on the Social Formations of Peripheral Capitalism*. Trans. Brien Pearce.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76.
- \_\_\_\_\_. *Class and Nation*.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0.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 Armstrong, John A. *Nations Before Nationalism*. New York: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 Bull, Hedley. *The Anarchical Society*. London: Macmillan, 1977.
- Emerson, R. *From Empire To Nation, The Rise of Self Assertion of Asian and African Peoples*. Boston: Beacon Press, 1960.
- Gellner, Ernest.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t and Nicolson, 1964.
- \_\_\_\_\_.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3.
- Gerschenkron, Alexander.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 Han Sung-Joo. *The Fail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Harris, Marvin. *Cultural Materialism : The Struggle for a Science of Culture*. New York: Random House, 1979.
- Hayes, Carlton. J. H. *Essays on Nationalism*. N.Y.: The Macmillan Company, 1926.

- \_\_\_\_\_ · 차기벽 역. 「민족주의」. 서울: 문명사, 1979.
- Hobsbawm, Eric. J. and Ranger, Terence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83.
- Hobsbawm, Eric. J.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 Kegley, Charles W. and Wittkopf, Eugene R.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1989.
- Kohn, Hans.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Origin and Background*. New York: Macmillan, 1961.
- \_\_\_\_\_ · *The Age of Nationalism: The First Era of Global History*. N.Y: Harper & Brothers, 1962.
- \_\_\_\_\_ · “민족주의의 개념.”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 Kurian, G. T. *The Book of World Rankings*. New York: Facts on File, 1979.
- Mike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Nationalism, globalization and modernity, A Theory, Culture & Society* (1990) special issue. London: SAGE Publications, 1992.
- Meinecke, Friedrich. *Weltburgentum und Nationalstaat*. Berlin, 1911.

- Ohmae, Kenichi. *The Borderless World*. New York: Harper Business, 1990.
- Reich, Robert B. *The Work of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91.
- Reichauer, E. O. *Wanted: An Asian Policy*. New York: Alfred A. Knopf, 1955.
- Seton-Watson, Hugh. *Nations & States: An enquiry into the origin of nations and the politics of nationalism*. London: Methuen, 1977.
- Smith, Anthony D. *Theories of Nationalism*. London: Duckworth, 1971.
- \_\_\_\_\_. *Nationalism in Twentieth Century*. Oxford: Martin Robertson, 1979.
- \_\_\_\_\_.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Ltd., 1986.
- \_\_\_\_\_. 김석근 옮김. 「제3세계의 국가와 민족」. 서울: 삼영사, 1986.
- \_\_\_\_\_. *National Identity*. New York: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0.
- Wallerstein, Immanuel. *The Modern World-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 \_\_\_\_\_. *Dependence in an Interdependent*

*World: The Limited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within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2. 논문

- 강만길. “독립운동 과정의 민족국가 건설론.” 『한국민족주의론 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 . “한국근대민족주의의 전개.” 『한국민족운동사론』. 서울: 한길사, 1985.
- 강명구. “국제화와 문화적 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제22권, 제2호 (1994 여름).
- 김도형. “한말 의병전쟁의 민중적 성격.” 『한국민족주의론Ⅲ』.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 김명구. “코민테른의 대한정책과 신간회.” 『신간회연구』. 서울: 동녘, 1983.
- 김병로. “남북한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비교.”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서울: 한울, 1994.
- 김성국. “세계체제와 한국의 정치경제.” 박현채 외, 『한국사회 의 재인식』. 서울: 한울, 1984.
- 김성배. “지구화시대의 민족주의.” 『탈근대 지구정치학』. 서울: 나남, 1993.

- 김성찬. “태평천국정권의 확립과정과 「安民」정책.” 『동양사학연구』 제27집 (1988).
- 김용남.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인류화석과 조선사람 기원문제의 해명.” 『력사과학』, 제4호 (1981).
- 김일성.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평양: 평양출판사, 1993.4.6.
- 김일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기본핵.” 『철학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김정배. “한국민족과 예맥.”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서울: 고려대 출판부, 1973.
- 김정일.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평양: 평양출판사, 1985. 10.
- 김정학. “한국민족형성사.” 『한국문화사대계 I, 민족·국가사』.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4.
- 김진균. “세계화 패러다임과 한국.” 『경제와 사회』 제22호 (1994 여름호).
- 김진현. “21세기의 한국민족주의.” 『세계화시대와 한국민족주의』 (조선일보 창간74주년 심포지엄, 1994년 3월 2일).
- 노태구. “2000년대를 향한 한국민족주의: 동학과 관련하여.” 『한국민족주의』. 서울: 경기대 민족문제연구소, 1993.
- \_\_\_\_\_. “세계화와 한국민족주의의 장래: 그 이론적 통합에 대

- 하여.” 제4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4.
- 노태돈. “한국민족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대사 논총 1』. (1991).
- \_\_\_\_\_. “한국민족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1992 겨울).
- 박종철. “한국민족주의의 특성과 통일이념으로서의 과제.”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한용. “한국근현대의 민족이론과 민족주의론.” 『한국사 24,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 - 2』. 서울: 한길사, 1994.
- 박형준. “21세기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21세기프론티어』. 서울: 길벗, 1994.
- 서재진. “주체사상과 민족주의의 관계.”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개원2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3).
- 성경룡. “국민국가의 장래와 정당정치의 향방.” 김재한 편. 『정당구도론』. 서울: 나남, 1994.
- 송건호. “60·70년대의 통일논의.” 『한국민족주의론Ⅱ』.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 신복룡. “근대 한국 민족주의의 갈등구조.” 『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구조』. 서울: 평민사, 1990.
- 신용하. “민족형성의 이론.” 『한국사회연구』 제7집 (1984).

- 염무웅. “‘국제화시대’의 민족문화.” 『역사비평』 (1994 겨울).
- 우윤. “동학사상의 정치·사회적 성격.” 『1894년 농민전쟁 연구 3』. 서울: 역사비평사, 1993.
- 이대근. “한·일 경제관계의 기본성격과 그 실태.” 『한국민족주의론Ⅱ』.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 이상우. “박정희 후보와 사상논쟁.” 『정경문화』 (1984년 10월호).
- 이영호. “한국근대 민족문제의 성격.” 『역사와 현실』 창간호.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1989.
- 이우영. “박정희통치이념의 지식사회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 이이화.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연구』 18집 (1977).
- \_\_\_\_\_. “한말 유생층의 현실인식과 의병투쟁.” 『국사관논총』 15집 (1990).
- 이지원. “신민족주의사관, 무엇을 계승할 것인가.” 『역사비평』 (1991 가을).
- 이흥구. “세계화로 향한 의식개혁의 과제.” 『사상』 (1993 겨울).
- \_\_\_\_\_. “국제화의 도전과 과제.” 『국제화와 한국의 과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4.
- 임현진·김병국.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국가·자본·노동 관계의 한국적 현실.” 『사상』 (1991 겨울).
- 임현진·김병국·공유식. “왜 缺損國家인가? -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역사사회과학적 단상.” 『남북관계의 새로

- 운 인식」(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1993).
- 입혁백.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관관계.” 「시장·국가·민주주의」. 서울: 나남, 1994.
- 전상인. “민족국가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관한 一考.” 「통일연구논총」 제2권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정 민.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론.” 「사회와 사상」 제3호. (1988.11).
- 정운용. “〈논평〉민족의 형성문제를 보는 북한학계의 시각.” 「북한의 우리고대사 인식」. 김정배 엮음. 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1.
- 정윤희.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념.”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이산 조기준박사 고회기념논문집, 1988).
- 정진영.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장래.” 「경제와사회」 제23호, (1994년 겨울).
- 정창렬. “백성의식, 평민의식, 민중의식.” 변형윤·송건호 편. 「역사와 인간」. 서울: 두레, 1982.
- 조지훈. “한국민족운동사.” 「한국문화사대계」 1권.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64.
- 진덕규. “미군정시대 정치의 시민사회적 함의에 대하여”(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합동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1991.4).
- 최상룡. “한국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 「한국민족주의의 이념」.

- 서울: 아세아정책연구원, 1977.
- \_\_\_\_\_. “한국인의 의식에 나타난 정치적 평화.” 『평화연구』  
창간호 (1991).
- 최장집. “한국 정치균열의 구조와 전개.” 『한국민주주의의 이  
론』. 서울: 한길사, 1993.
- \_\_\_\_\_. “한국민족주의 이해.” 동곡김하룡박사정년기념논문집,  
『탈냉전시대와 새로운 정치질서』 서울: 나남, 1994.
- 하정식. “태평천국에 대한 조선정부의 인식.” 『역사학보』 제107  
집 (1985).
- 황병덕. “통일조국의 이념.” 『통일문제연구』 제5권 3호. 서울:  
통일원, 1993 가을.
- 旗田巍. “근대에 있어서 한국인의 일본관.” 『思想』. 東京: 岩波  
書店, 1967. 10.
- McKinsey 세계연구보고서. “왜 세계화여야 하는가.” 『사상』  
(1993 겨울).
- Absalom, Roger. “Gramsci’s Contribution to the Debate.” in  
Eric Cahm and V. C. Fisera ed. *Socialism and  
Nationalism* vol. I. London: Nottingham Spokesman,  
1979.
- Cummings, Bruce. “Power and Plenty in Northeast Asia: The  
Evolution of U.S. Policy.” *World Policy Journal*, vol.  
5, no. 1 (Winter 1987~88).

- Friedman, Jonathan. "Being in the World :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Theory, Culture & Society* vol. 7. (1990).
- Greenfeld, Liah. "Transcending the Nation's Worth." *Daedalus*. (Summer 1993).
- Harman, Chris. "The Return to the National Question." London: *International Socialism*. (Autumn 1992).
- Held David. "민주주의, 민족국가 그리고 지구촌." 정일준 역.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1.
- \_\_\_\_\_. "Democracy: From City-States to a Cosmopolitan Order?" *Political Studies* XL, Special Issue (1992).
- Hoffman, Mark. "Restructuring, Reconstruction, Reinscription, Rearticulation: Four Voices in Critical International Theory." *Millennium*, vol. 21, no. 3 (Winter 1992).
- Kolakowski, Leszek. "Marxist Philosophy and National Reality; Natural Communities and Universal Brotherhood." *Round Table*, no. 253 (January 1974).
- Lind, Michael. "In Defence of Liberal Nationalism." *Foreign Affairs* (May/June 1994).
- Lowy, Michael. "Marxists and the National Question." *New*

*Left Review*. no. 96 (March 1976).

Masao Miyoshi. "A Borderless World?: From Colonization to Transnationalism and the Decline of the Nation-State." *Critical Inquiry*. (Summer 1993).

McGrew, Tony. "Conceptualizing global politics." in *Global politics* 1(1)(D312). N.Y.: The Open University, Milton Keynes (1988).

Nairn, Tom. "Modern Janus." *New Left Review*. no. 94 (November 1975).

Petras, James. "Cultural Imperialism in the Late 20th Centur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3-2 (1993).

Plamenatz, J. "Two Types of nationalism." in E. Kamenka, ed. *Nationalism: The Nature and Evolution of an Idea*. London: Edward Arnold, 1976.

Stalin, J. "Marxism and the National Question(1912)". *Works*, vol. 2. Moscow: Progress Publisher, 1953.

Tilly, Charles. "National Self-Determination as a Problem for All of Us." *Daedalus*, vol. 122, no. 3 (Summer 1993).

## 3. 기 타

- 「관보」 제12792호. 대한민국 총무처, 1994.8.17.
- 「백과전서」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원 출판사, 1990.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조선전사」 14 (근대편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 공보처. 「열린세계 열린미래」. 서울: 공보처, 1994.12.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1992.
- 김정일.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근로자」 (1987.7).
- 丹齋 申采浩先生 誕辰100周年紀念論文集. 「단재신채호와 민족사관」. 서울: 형설출판사, 1980.
- 대통령 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1-5권. 서울: 대한공론사, 1976.
- 손진태. 「한국민족사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83.
-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92.

- 申采浩. 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丹齋申采浩全集」 서울: 형설출판사, 1977.
- 안재홍. 「민세안재홍선집」.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편. 서울: 지식산업사, 1983.
- 兪吉濬. 「兪吉濬全書」.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 서울: 일조각, 1971.
- 이돈화 편. 「천도교창건사」 1편. 서울: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 李恒老 華西. 「華西先生文集集 上·下」. 서울: 동문사, 1974.
- 樗山. 「조선학의 문제」. 서울: 신조선, 1934.12.
- 조봉암. 「우리의 당면과업」. 서울: 혁신문예사, 1954.
- 崔益鉉. 「면암집 I·II·I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9.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 노동자 정치의식연구」 II. 서울: 한국노총, 1994.8.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  
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  
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6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일의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方向과 南北關係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政勢認識: 對南觀·對外觀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北韓 住民의 價値意識 變化研究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  
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  
화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5-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  
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律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 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 ~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金正日政權의 變化展望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1994. 12. 31)

####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9)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ECONOMIC PROBLEMS OF NA-  
TIONAL UNIFICATION(1993)

---

---

## 한국민족주의 연구

연구보고서 94-24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4년 12월 일

發行日 1994년 12월 일

---

---